



11

199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6. 11호

(루게 589)

◆◆◆◆◆◆◆◆◆◆

차 례



◆◆◆◆◆◆◆◆◆◆

태양만이 보이는 언덕.....	4
《즐거운 휴식》	5
그 시간속에 우리는 산다.....	6
숭고한 사랑은 맑은 물과 공기에도.....	7
혁명적인 소설들을 더 많이 읽도록 이끌어주시여.....	9
사랑	11
땅속에서 나온 붉은 옥돌.....	12
붉은기정신이 내려치는 명작을!.....	14
장군님의 사랑은 인민의 행복.....	15
고향집	16
넋.....	17
명언해설	26
우리는 약속했다네(외 1 편).....	26
산에도 들에도 풀판을 늘이세	26
맑은 앞길.....	27
나는 우리 당을 잘 안다	29
우리 시대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룰리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형상.....	30
민중아 마중가자	34

자원을 찾는 사람들속에서	35
어머니의 마음	41
다시 백두산정에 올라	46
샘물집쳐녀	47
추억이 없다면	48
원형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집단경리의 위대한 생활력을 진실하게 형상한 예술적화폭	49
칠보산에 올라	55
단풍계절	56
우리 겨레, 우리 민족	64
분조장의 가을	67
얼레(외 1 편)	68
버들매	68
나는 농장의 딸(외 2 편)	69
평양하늘	69
이 딸의 마음	70
사랑해주세요	70
눈물 젖은 숲	71
사형수 1 번	80

태양만이 보이는 언덕

최창남

만수대여
너의 화강석계단은
7월의 눈물에 씻기여 정화된
인민들의 순결한 마음인가
어디를 봐도 티끌조차 찾을길 없으니
선뜻- 발놓을 자리 또한 없구나

내 삼가 옷깃 여미마
수령님 계신곳 우리르노라
그러면 혹시 이리도 층층 높이 쌓여진
만민의 그리움우에
수령님 서계시는것 아닌가!

바라보노라
푸르디 푸른 저 금잔디
그 푸른 빛에도 수령님 사랑 깃들었거니
이 땅에 내리는 모든 흰서리
자신의 머리우에 다 없으시고
지니셨던 젊음은 네게 다 주신듯...
수령님 주신 젊음으로 네가 푸르고
금잔디- 너처럼 내 삶도 푸른듯...

오, 여기서
건듯 부는 바람도 레사롭지 않아라
한평생 인민 위해 호흡하시던
아버이 숨결인듯 후더워
좁은 내 가슴으론 차마
숨쉬기조차 가빠지노라

나는 층계를 오른다
손에는 한송이 빨간 꽃 들고
한걸음 또 한걸음 오르는 마음속에
문득- 송구해지는 생각이여
이처럼 작고 가벼운
꽃 한송이 안고서 내가 왔던가

내가 행복하고

민족이 대대로 흥할
그 모든 복락을 주시여
우주를 드린대도 작을 그 은혜에
오, 오
이 꽃 한송이 무엇이더뇨...

송구함에 젖으며
맹세를 없으며
백두의 장군봉을 향하듯
나는 하얀 층계를 오른다

파란만장의 20세기를
사상의 덕, 령도의 덕
인간에의 덕으로 빛내이시고
김정일장군님 모시여 수령복을 노래하는
광명무궁한 새 세기의 대문가에
수령님 높이 세우신
그 절정을 오른다

오를수록 오를수록
높아만지는 만수대언덕이여
너는 천추만대에
수령님 존함으로 빛날
민족최대행운의 메부리로 솟았거니
오를수록 점점 크게만 안겨오는
불세출의 성인
아버이의 위대한 영상이여!

내 삼가 꽃을 드리노라
그리고 머리들어 우리르노라
어인 일인가
그이 옷자락이 온 세상을 감싸안아
천하를 다 가리웠으니
오! 오!
자애론 한모습밖에 보이지 않아라
태양의 모습만이 보이도다!



《즐거운 휴식》

1974년 여름은 몹시도 무더웠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여전히 휴식을 모르시고 바쁜 일속에 파묻혀 사시였다.

어느날 그이께서는 갑자기 일군들을 부르시더니 다음 일요일날 휴식 겸 교외에 다녀오자고 하시며 차비를 하라고 이르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자기들의 소원이 풀리게 되었다고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기다리던 일요일 아침,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신 승용차는 가볍게 달리며 변화한 수도의 거리를 벗어났다.

차창밖으로는 무성한 오곡이 설레이는 들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한동안 차창밖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소형록음기를 꺼내시더니 틀어놓으시는것이였다.

그이를 모시고 함께 탔던 일군은 아마도 그이께서 음악을 감상하시려고 그러시는것이라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였다.

그런데 록음기에서는 귀에 익은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이 흘러나오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 어제 주신 교시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시의 일부 대상들의 건설이 지체되고 있는것을 심려하시면서 빨리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습니다.》

일군은 더없이 승엄한 마음으로 그이를 우러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달리는 차안에서까지 자자구구 다시 되새기시며 연구하시고 사색하시는 그이, 그이의 휴식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오전 10시경, 드디어 차는 목적지인 호수가에 다달았다.

《참 좋은곳입니다. 감회가 새로와지는곳입니다.》

그이께서는 이 바다같은 인공호수에 대를 두고 전해야 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대한 노래가 담겨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일군들이 하루휴식의 일정을 짜는 사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호수가의 숙소에 들어가서 수첩을 펼쳐놓으시고 몇몇 일군들을 전화로 찾으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방금 승용차안에서 록음기로 다시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그 일군들에게

전달하시면서 평양시 건설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이럴즈음 그 지방의 당일군들이 경애하는 그이를 만나뵈우려 달려왔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모처럼 차례진 휴식을 깨칠가보아 지방당일군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이때 전화를 마친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나오시며 순목시계를 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시였다.

《찾아온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이께서는 지방당일군들이 찾아온것을 아시자 반갑게 그들을 만나주시고 방으로 이끄시였다. 수행한 일군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이미 그 전날밤에 전화로 지방당일군에게 그리로 찾아오라고 이르신것을 알리없는 그들이였다.

일군들은 초조해졌다.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휴식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지방당일군들과 마주앉으시여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고계셨기때문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군들이 시간이 너무 갔다고 말씀드릴 때면 그이께서는 이젠 다 끝났다고 하시면서도 좀처럼 담화를 끝내지 않으시였다.

이렇게 오전시간은 다 흘러가버렸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때늦은 점심을 드시고 나서야 일군들에게 즐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제는 불일을 보았으니 호수에 나가 고기도 낚고 수영도 합시다.》

그이께서는 기뻐하는 일군들과 함께 호수로 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체육에서 수영종목이 가지는 의의와 여러가지 수영방법 그리고 국제수영경기들에 대하여 깊은 조예를 가지고 말씀해주시였다.

다음은 낚시질이 시작되였다.

석양무렵의 낚시질은 여간만 흥겨운것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낚시줄을 던지자마자 큰 낚시줄을 낚아올리셨다.

《자, 선코는 내가 뎌셈입니다.》

그이께서 먼저 큰 고기를 낚으시자 일군들은 조바심이 나서 여기저기 자리를 옮기며 낚시질에 홀딱 정신을 쏟았다.

여기저기서 연방 큰 고기들을 낚아올리며 환성을 올렸다.

그런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용히 앉아계시는 것이었다.

영문을 몰라 한 일군이 조심스레 그이곁으로 다가가보니 고기가 미끼를 계속 채는데도 깊은 명상에 잠기신 그이께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신 듯 수면 위에 시선을 못박고계시었다.

고기가 미끼를 다 떼간다고 말씀올려서야 그이께서는 《아, 깜박 다른데 정신을 팔았됐군.》 하시며 낚시대를 들어올리시는 것이었다.

그러시며 그이께서는 호수가에 앉아있으니 막혔던 생각이 트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평양에

올라가면 인차 예술인들을 만나야겠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얼마전에 새로 만든 작품을 보고 수정방향을 주었는데 창작가들이 아무래도 한 장면만은 자신이 없다고 하기에 지금 생각해 보니 해결방도가 생각난다고 말씀하시었다.

결국 그이께서는 고기를 낚으신 것이 아니라 예술창조에서 걸린 문제를 푸시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루가 다 흘러갔다.

이날 저녁 일군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며 그이께서는 유쾌하게 말씀하시었다.

《오늘은 매우 즐거운 휴식일이였습니다.》

그이의 즐거운 휴식, 그것은 바로 일이었다.

그 시간속에 우리는 산다

송두희

그 언제 한번 생각한적 있었으랴
우리 한자리에 모여앉아
당생활총화를 할 때에도
조직으로부터 분공을 받을 때에도

그 언제 한번 생각한적 있었으랴
온몸에 활력을 주는 심장의 맥박처럼
그 흐르는 한초한초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한 당원이 당비무는 시간을 위해 바치신
고귀한 10분
그것은 10분이 아니여라
우리에게는 10년, 100년과 맞먹는 시간

얼마나 많았으랴 그 시간에 하셔야 할 일이
학생들에게 공급할 콩우유 생산문제로부터
새로 개발한 광산의 운영과
최전연구분대 군인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허나 그이께서는
한 당원의 당생활의 한 순간을 지켜
나라의 모든 정사를 뒤로 미루시고
몸소 그 시간을 지켜주시였거니

오 당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의 진리를
한없이 숭고한 실천적모범으로 가르쳐준
위대한 순간이여
은 나라 당원들의 가슴속에

조직의 귀중함을 심어준
력사의 순간이여

그 시간속에
60이 지난 로당원도
방금 당원증을 받아안은 신입당원도
자신의 당생활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그 시간속에
천만이 하나의 대오에 뭉쳐
원썬들의 숨통을 누르며
이 땅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거창한 보루를 쌓아가고있거니

우리 인민모두를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주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
그 품 떠나서야 우리 어찌
삶의 가치를 헤아릴수 있으랴

아 우리는 산다
값높은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는
위대한 령도자의 그 시간속에
마음을 비취보고 신념을 굳히며
영원히 당과 함께 한생을 빛내이며

생각하면 할수록
숫구치는 걱정애 가슴뜨거워
다시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는
위대한 령도자의 시간이여

숭고한 사랑은 맑은 물과 공기에도

아침이다. 건축의 대군너머 저 멀리 하늘가에 새날의 축복인양 붉은 노을이 피어오른다.

가을에 들어서 한껏 높아진 하늘은 구름 한점 찾아볼수 없이 맑고 청청하다. 폐부로 흘러드는 청신한 공기가 심신을 거뜬케 한다. 상쾌한 아침이다.

경쾌한 동음을 울리며 달리는 궤도전차와 함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 사랑의 구호도 흘러간다.

곳곳마다 아침운동에 나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체육복차림으로 기운차게 달리는 청년들, 체조를 하는 로인들, 그결에서 할아버지의 동작을 따라하느라 애쓰는 귀여운 어린이들...

약동하는 삶의 활력이 넘치는 거리의 전경을 바라보느라니 문득 하나의 생각이 가슴뜨거이 젖어든다.

우리 나라의 어딜 가나 차넘치는 맑은 공기, 티없이 정갈한 물, 그것이 과연 저절로 마련된것이라.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는 공해로 인하여 수많은 강하천들과 호수들이 죽음의 강,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공기마저 흐려져 사람들이 마실 물과 공기조차 얻을수 없어 몸부림치고있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만은 사람들이 맑은 물과 공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니 이것을 어찌 자연이 주는것이라고만 하라.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사람들은 수도 평양을 비롯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이 공원이 나 숲속에 들어앉아있는것 같다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조선의 맑은 공기와 물은 인간존중의 위대한 사랑과 정책의 결실이라고 하나같이 말하고있다.

그렇다. 우리 나라의 맑은 공기와 티없이 정갈한 강하천들은 그 어떤 경제적타산도 앞세우지 않으시고 인간존중의 새 력사를 이 땅우에 수놓아오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존중의 사랑과 령도에 의해 마련된 세계 제일의 귀중한 재부이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매 순간 무심히 호흡하는 공기에서도, 범상히 마셔버리는 한모금의 물에서도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두분의 위인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느낄수 있나니.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우리 인민들에게 보

다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시려고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견고결으신 로고의 자욱자욱을.

어느해 봄날 이른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송림시를 찾으시였다.

쌀쌀한 강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대동강반에 나오신 수령님께서서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시 황해제철소)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이윽도록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살림집구역을 번갈아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낮으나 엄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송림시 신흥동과 대흥동 일대 주민들을 이미 지정해준 새살림동지부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신흥동과 대흥동 일대에 황해제철소에서 나오는 연기가 날아가는데 제철소로동자들이 공기가 나쁜 곳에서 살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흥동과 대흥동 일대의 살림집들을 옮기라고 하신적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그것을 단번에 수천세대나 헐어버린다는것이 너무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 차일피일 미루어왔던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곳 살림집구역을 옮기는것을 더는 미룰수 없다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시였다.

《신흥동과 대흥동 일대에 있는 살림집들을 다 헐고 거기에 나무와 잔디를 심어 유원지를 꾸리는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해서라면, 황철로동계급이 맑은 공기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수천세대의 살림집도 공기좋은 곳으로 옮기도록 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에 감복되어 일군들은 뜨거운 눈물을 삼키였다.

그 사랑, 그 은정에 의해 1천여세대의 고층살림집이 짧은 시일에 완공되어 새집들이를 하게 되였고 신흥동과 대흥동 일대에는 녹음이 우거져 황철로동자들을 위한 유원지로, 문화휴식터로 전변되였다.

사람들은 이 전변을 두고 말한다. 근로하는 인민, 우리의 로동계급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수령님께서 새벽잠도 잊으시고 견고결으신 그 사랑의 길이 있어 인

민의 행복을 위한 이룩한 훌륭한 보금자리가 마련된것이라고...

이 나라의 푸른 하늘과 맑은 강하천들에는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도 비껴있다.

인민을 위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 어린 **《이민위천》**을 그대로 자신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헤아리시며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억만금의 재부도 아낌없이 돌려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느날 서해기슭 은천군 제량리 주민들이 이제는 별로 부러운것이 없는데 산골사람들처럼 맛있는 샘물을 마시며 살아보았으면 한다는것을 아시게 되시였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즉시 의료일군들을 그곳으로 파견하시어 수질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도록 하시였다.

며칠이 지나 의료일군들은 그곳 제량리의 물은 맛은 없지만 사람들의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것을 보고드렸다.

하지만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고 인민의 불편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느끼시며 참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제량리의 수백세대 살림집들을 모두 경치좋은 산기슭으로 옮겨짓고 맛있는 샘물을 끌어다 집집마다에 넣어 줄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날 제량리사람들은 수도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샘물을 두고 너나없이 행복에 웃고 기쁨에 눈물흘렸다.

지금 그곳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시는 맑은 샘물을 두고 **《은덕수》**라고 부른다. **《은덕수》**, 그 부름에는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인민의 념원이라면 그 어떤 자그마한것이라도 빠짐없이 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가 깃들어있다.

어찌 그뿐이라.

인민의 세상에 공해현상이 있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수십년세월 **《여우꼬리》**라 불리우는 노란 연기를 내뿜던 홍남의 굴뚝을 연기없는 굴뚝으로 만들어주시는 세계공업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사랑의 전설을 창조해주신 아버지수령님.

로동자 한사람한사람은 천만재부보다 더 귀중한 나라의 보배라고 하시며 10기의 소결로들을 한순간에 하늘로 날려보내는 기적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한대의 자동차를 보시고

도 공기오염을 걱정하시고 강물에 떠가는 한척의 기계배를 보시고도 맑은 강물이 오염될가봐 마음쓰신분이 우리 아버지수령님이시였으며 공해 **《0》**이라는 세상에 없는 높은 목표를 제기하시고 때로는 새 기업소의 조업에 앞서 퇴수설비와 정화설비를 판정하도록 시공순서도 바꾸어주시고 때로는 용해공들의 일터에 먼지가 많다시며 용광로의 조업을 중지시킨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참으로 세계가 **《3대위기》**의 하나로 부르는 공해위기에 직면한 이때 우리 나라에서만은 사람들이 공해란 말조차 모르고 어디를 가나 맑은 물 넘쳐 흐르고 신선한 공기가 차넘치고있거니 이것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꽃피워준 인간사랑의 화원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끝없는 로고의 한평생, 인민의 소원을 필생의 혁명과업으로 가슴에 안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려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사랑의 고결한 생애였다.

오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아버지수령님 한평생 간직하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안으시고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로 오늘을 수놓으시고 래일을 안아오시며 미래를 펼쳐 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 그대로이신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 인간애의 화신이시다.

위대하신 장군님의 사상도 인민을 위한 사랑의 사상이고 령도도 인민의 념원을 꽃피워주는 사랑의 령도이며 품모도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랑의 품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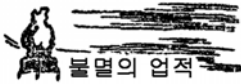
옥에도 티가 있다 하지만 인민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한점 티도 모르는 순결무구한것이며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것이다.

사람들이여, 무심히 대하지 마시라. 우리 매 순간 호흡하고 마시는 맑은 공기와 물에도 인민위해 바치시는 두분의 위인의 순결한 사랑이 깃들어있거늘.

아버지수령님 마련해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체도가 있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가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우리의 하늘은 저렇듯 언제나 가없이 푸르고 이 나라의 산과 들을 감돌아흐르는 강하천들은 그리도 티없이 정갈할것임을.

본사기자 최용호



혁명적인 소설들을 더 많이 읽도록 이끌어주시어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은 말없는 스승이며 친근한 길동무이다.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에서 문학작품이 노는 역할을 빛나는 예지로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청소년시절부터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왕성한 정력과 비상한 노력으로 동서고금의 문학작품들을 모두 탐독하시는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을 많이 읽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며 온갖 조건까지 다 보장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만나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혁명적인 소설을 많이 읽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어 조국광복의 험난한 길을 신심에 넘쳐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시였다고 감명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더 많은 소설책을 만들어내어 모두가 읽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1971년 2월중순 어느날이었다.

영화부문 창작가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작품형상문제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화제를 바꾸시어 지금 창작가들이 어떤 책을 읽고있는가고 물으시었다.

하지만 창작가들은 붉어진 얼굴을 숙이면서 누구도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방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작가들의 얼굴에서 모든것을 읽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잠시후 혼자 말씀처럼 조용히 이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책을 많이 볼데 대하여 늘 강조하시며 실천적모범으로 우리들을 교양하고계십니다.》

그러시고는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사색깊으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소설을 읽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최근에는 밤 10시부터 11시사이에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을 읽고계십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간부들이 소설을 감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으로 소설을 내보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이날 큰 자극을 받은 창작가들속에서는 그후부터 독서기풍이 서게 되었고 온 나라에 점차 책읽는 바람이 세차게 일었다.

그러나 아무리 독서애호가라고 하는 정열가들도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그렇듯 책이 출판되어 나오기 바쁘게 탐독하는 독서가는 없었다.

그이께서는 문학작품창작 전반을 지도하시면서 출판되는 모든 소설작품들을 제일먼저 읽으시고 누구나 다 읽도록 이끌어주시었다.

1978년 9월,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으며 우리 나라에는 류레없는 소설대풍이 들었다.

온 나라 책방마다 부피두터운 장중편소설들이 차고 넘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명절기분에 들떠 그 소설책들을 읽어보지 못하고있었다.

9.9절 명절이 지난지 10여일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한 일군을 만나시여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었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은 어쭙게 웃으며 아직 읽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며 최근에 출판된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인민군군인들이 다 읽도록 하여야겠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서는 이 소설이 실지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썼기때문에 내용이 좋다고 하시면서 교양적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교시하시였다고 말씀하시었다.

눈보라 사나운 밀림의 바다, 악착하게 달려드는 원쑵놈들을 무자비하게 죽치던 전투들, 마안산에서 험벗고 굶주리던 아동단원들에게 돌려주신 은혜로운 사랑, 《대통령감》에 대한 감명깊은 이야기...

그이께서는 소설의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장면장면을 실감있게 이야기하여주시었다.

일군은 그이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정겨운 눈길로 일군을 바라보시며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인민군대안의 당원들과 청년동맹원들, 특히 정치일군들이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다 읽도록 할데 대

하여 말씀하시었다.

일군은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그이께서 주신 가르치심을 빛나게 관철할 결의를 다지였다.

그후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인민군대에서 만이 아니라 온 나라 근로자들속에서 널리 읽히었으며 읽은책감상발표모임을 광범히 벌리였다.

이 과정에 사람들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국광복의 새 아침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지략과 령군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며 사회주의 건설의 초소마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나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적인 소설을 통한 근로자들의 교양에서 특히 청년학생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1978년도 저물어가던 12월하순 어느날이였다.

이슬해진 깊은 밤 청년동맹의 한 책임일군은 뜻밖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어오시는 전화를 받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요즘 청년들이 어떤 책을 읽고있는가, 청년동맹신문에는 어떤 소설을 련재하고있는가를 하나하나 물으시는것이였다.

청년동맹사업이나 청년돌격대사업같은것을 물으실줄 알았던 일군은 뜻밖의 물으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다정하신 음성으로 수령님께서 장편소설 《생명수》와 《새봄》이 청년들에 대한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좋은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장편소설 《생명수》는 전후시기 우리 인민들이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어지돈관개공사를 다그친데 대하여 형상한 아주 좋은 소설이라고 그 내용이 떠오르도록 말씀을 이으시는것이였다.

순간 일군의 눈앞에는 소설에서 본 장면들이 영화화면처럼 환히 안겨왔다.

물이 없어서 눈에 눈석임물과 비물을 받아넣고 농사를 지었으며 조금만 비가 와도 온 벌이 물에 잠겨 옆집에 가는것조차 함지를 타고 다녀야 했고 토질병에 걸려 병신이 되어 한많은 세상을 통탄하던 봉산사람들,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따라 생명수 철철 넘쳐흘러 해마다만 풍년의 노래 높이 울리는 살기 좋은 봉산벌!

어버이수령님의 치하의 말씀을 전달받으며 일군은 흥분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잠시후 동안을 두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에는 장편소설 《새봄》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장편소설 《새봄》은 해방직후 토지

개혁을 하던 시기 우리 당의 로선을 옳게 반영하였으며 극좌 극우 분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그때의 형편을 잘 그렸다고 하시면서 이주 좋은 소설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지금 청년들이 해방직후 토지개혁을 하던 때의 실정을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장편소설 《새봄》을 많이 읽고 토론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알려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청년들이 장편소설 《생명수》와 《새봄》을 다 보도록 하여야겠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청년들과 청년동맹원들이 소설을 볼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지금까지 청년들이 책을 읽는데서 무엇을 애로로 느끼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소설책의 부수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그대로 말씀올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낮으나 준절하신 어조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 길림에서 학교에 다니실 때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너무 돌려보았기때문에 헐어서 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시면서 책 한권을 가지고 몇백명이 돌려보는 버릇을 붙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청년들이 책을 잘 리용하지 않고있는데 적은 책을 가지고 수천명이 보는 버릇을 붙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참으로 심각한 자책을 받게 하는 말씀이였다.

지금까지 책부수만 타령하면서 있는 책들을 가지고 효과있게 돌려읽도록 조직사업 한번 똑똑히 해본적 없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화기를 놓으신후에도 그 일군은 뜨거운 격정과 자책으로 가슴 높뛰여 선뜻 자리를 뜰수 없었다.

그는 그자리에서 경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다.

장편소설 《생명수》와 《새봄》은 신문들에 련재되고 방송에서도 울려나왔다.

그로부터 얼마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소설책들의 부수를 더 늘여 재판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온 나라 청년들은 이 작품들을 모두 읽었으며 감상토론을 적극 벌려나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에도 혁명적인 내용의 현대문학작품들뿐만아니라 《온달전》, 《장화홍련전》, 《홍길동전》과 같은 고전소설들도

많이 출판하여 청년들과 근로자들이 읽게 하십시오. 그들이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게 하여주시었다.

그리고 세계고전문학작품도 출판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높여주고 시야를 넓히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주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간부들로부터 시작하여 청소년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온 나라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책들을 안겨주시고 혁명적인 독서기풍을 세워주기 위하여 기울으신 로고는 진정 그 무엇으로써도 헤아릴수 없다.

언젠가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아무리 종이사정이 긴장하다 하여도 소설책을 많이 찍어내어 근로자들에게 혁명적양식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이르고 어느 한 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는 일군들에게 책을 찍으면 도서관에만 넣지 말고 책방들에 내놓고 팔아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으며 날로 높아가는 독자들의 수요에 맞게 온 나라 집집마다 책이 팔고루 들어가도록 정연한 도서보급체계를 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오늘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책들이 근로자들에게 보급되고 있으며 독자들속에서 소설감상모임, 시랑송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문학작품감상발표모임들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출판물 하나에만 국한하지 않으시고 방송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소설낭독을 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하여 모든 문학예술보급수단들이 다 동원되어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복무하고있다.

현대문명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 문학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복된 삶과 다함없는 영광, 이것은 정녕 독창적인 문예리론을 내놓으시고 창작실천으로부터 시작하여 형상, 보급에 이르기까지 문학예술전반을 찬란히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사상리론의 거장이시고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은혜로운 빛발아래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앞으로도 계속 만발해갈 것이다.

사 랑

프란시스꼬 로빠르뜨

김정일,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인민을 키우시여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방위,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로 이끄시여라

김정일, 그이의 그 사랑 있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조국강산
그 어디서나
진보와 혁신 나래치고
문명과 복리 자랑하여라

김정일, 그이께서는 그 사랑 지니셨기에
모든 사색과 정열 다 바치시여
선렬들과 영웅들의 넋이 깃든 조국땅을
지상락원으로 전변시켜주시고
떠나간 전사들의 이름도
영원히 빛내여주시었어라

김정일, 그이께서는 그 사랑으로

위대한 주체사상 심화발전시키시여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에게
복잡다단한 현시대를
개척할수 있는 사상적무기를
안겨주시었어라

김정일, 그이의 위대한 사랑이 있어
가난과 천대 략탈과 침략으로 얼룩진
수난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존엄있는 부강한 나라
자유롭고 행복한 조국
통일조선 일떠서리라

김정일, 그이는 정녕 사랑의 화신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불면불휴의 로고와 친어버이사랑으로
만민을 이끌어주실
절세의 위인이시여라

(필자는 꾸바작가임)

땅속에서 나온 붉은 옥돌

우리 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하늘이 낸 위인이시기때문에 하늘도 땅도 그의 뜻대로 움직이며 그의 지엄하신 령을 받든다고 한다.

천기술법을 쓰시고 행운조화를 일으키신다는것은 하늘이 그의 뜻대로 움직인다는것이요, 천지확장술을 쓰시여 바다도 옥토벌로 만들고 땅속에서 금은보화가 분수처럼 솟구치게 하신다는것은 땅이 그의 뜻을 받든다는것이다.

주체사상탑을 건립할 때, 바로 탑신을 세울 그 밑, 땅속에서 집채만한 붉은 옥돌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으니 그것 또한 땅이 그의 령을 받든것이 아닐가?

때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몇해 앞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평양에 주체사상탑을 세울 발기를 하시고 한 일군에게 그 부지를 잡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과업을 받은 일군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상을 칭송하는 기념비인 주체사상탑을 어디에 세울것인가 하고 평양의 여러곳을 다니며 안성맞춤한 자리를 잡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평양엔 명승지도 많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도 곳곳마다에 깃들어있어 처음에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자리를 잡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었는데 정작 택하자고 보니 어디에다 정할지 결심을 내릴수가 없었다.

지질전문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동평양쪽엔 지질층이 석회암이여서 동굴이 많고 큰 물주머니가 땅속에 있기때문에 주체사상탑과 같은 만년대계의 큰 기념비는 절대로 세울수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얼마전에도 동평양지구의 지질을 조사하였다는것이였다.

그 일군은 아예 동평양쪽에는 자리를 잡을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질층이 사암으로 되어있는 본평양쪽에 자리를 잡으려 하였으나 이렇다 할 명당자리를 잡을수가 없었다.

자리가 좋다고 생각되는곳엔 지질층이 나쁘고 또 지질층이 좋은곳은 자리가 시원치 않았다.

그는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그를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그의 보고를 자세히 들으시고나서 《그러니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단말이지요? 그럼 이제 나와 같이 가서 자리를 잡읍시다.》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언제 부르셨는지 미리 대기하고있던 해당부문 일군들과 함께 밖에 나와 차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승용차를 인민대학습당쪽으로 몰라고 하시였다. 승용차는 소리없이 수도의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잠시후 인민대학습당앞에 이르자 그이께서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정문우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미 결심하고계신듯 손을 드시여 대동강건너편 동평양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탑은 인민대학습당 전망대에서 곧바로 건너다보이는 저기 동평양쪽 대동강기슭에다 세웁시다.》

순간 일군은 그이께 무엇인가 말씀드리려 하다가 인차 자재하고말았다.

그이께 동평양지구의 지질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하였었다.

그러나 그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모르실리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인차 단념하고말았던것이다.

《어떻습니까?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모두 그자리가 좋을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다만 동평양지구지질상태를 잘 알고있는 그와 한 지질일군만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박동무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리를 잡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그 일군은 그이앞에서 외람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빙그레 웃으시였다.

《일없습니다. 래일 당장 저자리에 시추를 하여 지질을 조사해보시오. 아마 석회암이 아니라 사암이 아니면 화강암이 나질겁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고

나서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다음날 그자리에서는 시추작업이 진행되었다. 밤에 낮을 이어 단 한순간도 시추기소리가 멎을 때가 없었다.

그 일군은 잠시도 시추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 그는 물론 지질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 시추기에서 나오는 시료봉들은 석회암이 아니라 사암이었는데 그것도 청석이었었던것이다.

더욱 놀라운것은 가운데 시추기에서 나온 시료봉은 붉은 옥돌이었다.

《옥돌이다!》

시추공들은 옥돌을 들고 희한해하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였다.

일군은 빛을 뿌리는 붉은 옥돌시료봉을 들고 냇이 나간듯 그자리에 멎하니 서있었다.

그만이 아니었다. 지질일군들과 시추공들은 놀라운 사실앞에서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며칠전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곳에서 지질을 조사하였다.

그때 땅속에서는 석회암과 모래와 자갈이 나왔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는 물주머니까지 나타났던것이다.

그들은 바로 그런 지질층이 지금 조사하고있는 자리에 그대로 전개되어있을것이라고 단정하였었다.

그런데 이렇게도 천양지차인가!

그들은 다시 눈을 부비고 시료봉을 보았다. 분명히 그것은 옥돌이었고 사암인 청석이었다.

그들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이 소문은 삽시에 평양시에 찰떡 퍼져갔다.

《주체사상탑을 세울 자리에서 붉은 옥돌이 나왔다!-》

《석회암지대가 갑자기 사암지대로 변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또 이런 소문이 뒤퍼랐다.

어느날 모두가 깊이 잠든 야밤삼경에 갑자기 평양시에 지동이 울었다고 한다.

젊은이들은 잘 몰랐어도 잠귀가 밝은 늙은이들은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그날 땅속에서는 큰 변동이 있었는데 모란봉밑의 사암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리를 잡아 주신곳으로 이동하여갔고 저 멀리 룡강군과 온천군의 마영과 룡월리에서 굳고굳은 화강암이 그 자리로 밀려왔다는것이였다.

붉은 옥돌도 어디선가 여기로 흘러왔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때가 바로 경애하는 그이께서 주체사상탑자리를 잡아주신 그날밤이라는것이였다.

그후 주체사상탑건립을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건설자들은 기초를 파기 시작하였다. 땅속에서는 시추할 때 조사한대로 주체사상탑 탑신을 세우야 할 그밑에서 집채만한 붉은 옥돌이 나왔다.

그리고 청석인 사암과 화강암이 넓은 면적에 뿌리를 박고있어 기초는 더할나위없이 든든하였다.

그들은 옥돌을 캐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우에다 기초를 하였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고 땅의 뜻이라는것이였다.

그리하여 170미터높이의 세계최대결작인 주체사상탑이 대동강반에 거연히 솟아오르게 되었다.

이런 탑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잉글랜드의 런던탑이며 지중해연안의 베사의 사람, 델리시 남쪽의 쿠틀브 미나르의 탑... 그 어느 탑도 여기에는 대비도 되지 않는다.

주체사상탑은 높이와 웅장함과 그 모양에 있어서나 담고있는 뜻과 사상에 있어서나 가장 훌륭한 탑이다.

기념탑이 서면 거기에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여러가지 전설이 창조되어 전해지기마련이다. 그러나 주체사상탑은 일떠서기도전에 벌써 전설이 많이 창조되어 전해졌다.

그리고보면 주체사상탑은 전설의 측면에서 보아도 세계최고의 탑인것이다.

주체사상탑에는 여러가지 신기한 현상들이 많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광장 주석단에 오르시지만 하면 어느때없이 주체사상탑우에 반드시 쌍무지개가 걸리곤한다.

그런가 하면 밝은 빛을 뿌리는 주체사상탑의 봉화는 평양시는 물론 산이 가리워 보이지 않는 먼곳에서도 보인다고 한다.

이것은 신기루라고 하는 신비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생기는것인데 한 외국인은 주체사상탑의 이 현상을 두고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다 보이게 하는 《세계의 신기루》라고까지 하였다.

사람들은 이런 신기한 현상을 두고 땅속에 묻혀있는 붉은 옥돌이 조화를 부리기때문이라고 한다.

이 모든것은 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명당자리를 잡아주시고 거기에 가장 훌륭한 탑을 세우도록 하셨기때문이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과 지극한 효성에 감동되어 그이께서 의도하시는데로 땅속이 지질도 변화되는것이 아닐가?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혁명적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입니다.》

김정일

수기

붉은기정신이 나래치는 명작을!

송찬웅

저는 오래동안 작가생활을 해오면서도 명작에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데로부터 명작의 개념조차 똑똑히 인식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이런데로부터 명작이란 한 나라와 세계문학사에 오를수 있는것이여야 하며 이름있는 작가들이 써내어 인민들이 다 아는 작품 일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화론》을 접하고서야 현시기 당의 사상과 의도를 잘 반영하는것이 명작창작의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문화론》에서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문제는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바라는것이며 현실이 그 해결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문제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최근년간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명작들은 모두 빼외없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잘 반영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저자신을 비롯한 우리 작가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하지 못한채 창작의 붓을 든적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해방후부터 내려오는 수령복이 자신에게 웅당히 차려진것으로 여기면서 여기에 오래동안 습관된 나머지 수령의 귀중함을 심장깊이 체득하지 못하고 붓을 들다보니 객관적립장이 아니면 주로 시인의 시점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시가작품들을 적지 않게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에 어버이수령님을 잃고서야 수령의 귀중함을 절감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려왔는가를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생각할 때면 우리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에는 두분이 서로 의지하고 힘을 주고받으시며 혁명과 건설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셨는데 이제는 이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우리 장군님 한분밖에 안계시니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시기에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시고 심려가 많으시랴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고 어떻게하나 장군님께 힘을 드릴 작품을 써야겠다고 마음다지게 되었습니다. 하여 가사 《높이 들자 붉은기》를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사창작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작품에 담을 때만이 그것은 곧 명실공히 명작으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이 가사에 현시기 당이 바라는 문제, 시대와 혁명이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종자로 잡고 그에 일정한 해답을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첫 기슭에서 추켜드신 붉은기를 한평생 높이 드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오시다가 우리걸을 떠나셨고 오늘은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그 기발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휘날려가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을 이끌어가고계십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수령님 유산인 사회주의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으로부터 굳건히 지켜내야 할것입니다.

온 나라 인민들이 의연히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관철에 불같이 펼쳐나섰던 1995년 6월초.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력사의 준령을 넘어온 붉은기에 담겨진 심원한 사상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도 붉은기를 들고 승리했고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불구름도 붉은기를 들고 헤쳐왔으며 평화적건설시기에도 붉은기를 들고 승리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이의 말씀은 곧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해온 자랑스런 투쟁의 력사, 붉은기의 력사였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이 어려있는 붉은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머리속에는 붉은기는 혁명의 상징이고 희망의 표대라는 식의 일반적개념이 있었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순간 우리 수령님 추켜드신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임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가사에 붉은기에 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정서를 담으면서도 오늘의 시대적맥박을 어떻게 부여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

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해나갔습니다. 그러는 저의 눈시울을 적시며 선참으로 떠오른것은 아버지 수령님, 우리와 영결하던 그날 안고가신 한복의 붉은 기폭이었습니다. 수난많은 혁명의 길을 헤쳐오시며 인민에겐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 온갖 로고를 바치시고도 가실 때에는 붉은기발만을 안고가신 우리 수령님.

새기면 새겨갈수록 지금껏 우리가 알고있던 붉은기의 의미가 새로와지고 더 깊어지면서 색조 또한 더욱 붉게 어러왔으며 우리 장군님 이 기발을 드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여 걸음마다 승리를 새겨온 빛나는 력사가 가슴뜨겁게 안겨왔습니다.

드디어 저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이 담긴 붉은기철학이 있고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담긴 종자를 쥐고 한자한자 가사를 써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민의 심장에서 불타오르는 맹세를 담아 매 절마다 수령님 유훈대로 장군님을 따라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반복해줌으로써 우리 인민의 꺾을수 없는 신념을 강조해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래가 나오자 그리도 만족하시여 작가와 작품을 최상의 경지에 세워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의 가사는 명가사라고 하시면서 특히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어있다》와 《승리만을 기폭에 새기여왔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든다고 거듭 치하해주시며 붉은기에 어리어있는 력사에 대하여 아주 뜻깊고 고상하게 표현하였다고 그것을 작가의 재능으로 일러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뚜렷이 밝혀져있으며 결의내용이 대단히 좋다고, 이 노래는 자신의 리상을 담고있으며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힘과 신심을

을 안겨준다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었습니다.

이 가사가 세상에 명작으로 태여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붉은기에 어린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이 위대하고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이룩해오신 업적이 위대하며 장군님께서 이 가사를 쓸수 있도록 구체적인 종자를 주신 가르치심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저는 노래가 나오자마자 삼시에 온 나라에 과급되어 90년대의 《적기가》로 세계를 뒤흔들며 울려퍼지는 《높이 들자 붉은기》노래를 들을 때마다 명작은 그 어떤 개별적창작가에 의해서라기보다 시대를 향도하는 위대한 령도자의 손길아래서만 빛나게 태어나 시대의 메아리로 힘있게 울려퍼지게 된다는것을 심장으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이 가사창작과정을 통하여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얼마나 민감하게 포착하고 반영하는가 하는데 명작창작의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였습니다.

우리 시인들은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심장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에 대한 정서적체험이 깊어지고 사색의 세계가 높아져 명작이 태여날수 있는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 4월 26일 지금이야말로 작가, 예술인들이 피끓는 심장으로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락관을 안겨주는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시인의 사명과 량심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 인민에게 붉은기정신이 더욱 나래치게 하고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 모든 창작적열정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가사

장군님의 사랑은 인민의 행복

박두천

새벽길 걸으시며 안겨준 사랑은
이 땅우에 꽃피는 행복의 웃음
우리에게 좋은 길만 밟게 하시려
웃자락에 찬이슬도 맞으십니다
아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
장군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

눈비를 맞으시며 안겨준 사랑은
새봄을 안아오는 기쁨의 노래
우리에게 맑은 날만 펼쳐주시려

바람찬 언덕길도 걸으십니다
아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
장군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

깊은 밤 지새시며 안겨준 사랑은
새 아침을 불러오는 뜨거운 축복
우리에게 밝은 미래 열어주시려
로고와 한생을 바치십니다
아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
장군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

고향집

오대석

장수별 빛나는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삼천리 조국땅을
뜨락으로 펼치고
성스러이 솟은 집

백두산이여
너는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향집이여라

아늑한 온돌방 하나
여기 없었어도
있었더라
흰눈도 따스한 요람이 되어
그이를 품어드리고
천지의 우뢰도
은은한 축포의 울림이 되어
그이를 축복해드린
위대한 태양의 품이

처마인듯
높이 추켜든
천지의 기슭에
세월의 장설은 쌓였어도
묻히지 않았어라

여기서
조국광복의 봄을 꽃피우신
아버이수령님 따라
그이께서 걸음마를 익히신
력사의 자욱자욱은...

풀물을 들인
유격대의 군복천으로
첫 옷을 입으시고
수령님 계시는 사령부
꺼질줄 모르는 불빛을
솟는 해로 맞으시고

너전사가 피우시는
충성의 밝은 미소를
봄빛으로 안으시며
그이께서 성장하신곳

백두산이여
너는
넋이 살아 혈맥이 뛰는
내 나라 강토였고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성스러운 조선의 집

아, 그 강토
그 집이여라
오늘의 나의 조국은

그날의 사령부불빛
오늘의 당중앙에서 비치고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 모습으로
혁명의 진군길을 여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여기서 솟는 해로
누리를 밝히시고
여기서 시작되는 봄계절로
만물을 꽃피우시나니

그이를 우러르는
인민의 마음도
백두의 눈갈고
이 땅에 뿌리내린
인민의 삶도
백두의 수림처럼 무성한

아, 내 나라는
백두의 나라
우리 혁명의 영원한 고향집도
여기 백두산이여라

넋

김영선

1

읍에서 버스를 놓친 나는 30리길을 내쳐 걸었다.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간다는 기쁨도 있고 소꿉시절 동무인 옥채반장을 만나게 된다는 기대도 있어 발걸음은 가벼웠다. 더우기 고향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두무봉에 구호나무가 있다는 옥채의 편지를 품에 간수하고 가는 나의 발걸음은 날개가 돋힌듯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서자란 고향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평별에 잔등을 까맣게 태우며 런닝그를 그물삼아 고기잡이에 여념이 없던 내가와 밤청대 해먹던 뒤동산 탐스런 열매 주렁진 과수원에 뛰어들었다가 혼썰나던 일까지도 기쁘게 추억되는 것이다.

령마루에 올라서니 샘골 고향마을이 한눈에 안겨왔다. 하얀 회벽칠을 한 문화주택들이 사열받는 병사들마냥 너죽로 나란히 서있고 마을앞의 아름다리 느리나무도 옛모습 그대로 풍만한 가지를 한껏 펼치였다. 마을과 잇닿은 과수원에서는 바람을 타고 과일향기가 물씬 풍겨오는듯하였다.

두무봉골짜기에서 누런 벼바다가 금물결치고 등성이발에는 팔뚝같은 이삭을 안은 강냉이들이 가을을 재촉하고있었다.

앞자락을 활 열어젖히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니 땀이 순간에 잦아들었다. 모든것이 정답게 어서 오라 손저어 반기는것 같았다.

나는 길옆에 내려놓았던 가방을 메고 걸음을 떼었다. 긴 렬차행군의 렬독도 풀새없이 내쳐 걸었으나 고향의 정취에 피곤은 가신듯 사라지였다.

한동안 걷던 나는 길가 발에 무득히 쌓인 강냉이이삭들이 눈에 띄여 걸음을 멈추었다. 강냉이발 저쪽에서는 농장원들이 가을걷이를 하고있었다. 발에 들어선 나는 이삭을 하나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총알같은 강냉이알들이 이삭끝에까지 촘촘히 박히였다. 알찬 열매라더니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악쟁이 옥채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기 농장 기사장을 하다가 소환된 나의 아버지를 만나러 도에 올라왔던 길에 우리 집에 들린 옥채를 몇번 만나본적이 있었다. 늘 바쁘게 통통 뛰던 모습만 선하였다. 내가 구호나무 현출작업을 하러 왔다는것을 알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할것이다.

《저 누구세요?》

야무진 처녀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나는 엉거주춤 돌아보았다. 잠자리날개같은 빨간 수건으로 단발을 제비꼬리같이 꼭 졸라맨 애어린 처녀가 다가왔다.

《저...》

나는 무엇이랴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뭇거리었다.

《어마나, 사적연구소... 진호선생님이시지요?》

처녀는 두손을 짝 소리가 나게 마주쥐며 활짝 웃었다. 나는 어리둥절해지였다. 초면인 이 처녀가 어떻게 나를 안단말인가.

《우리 옥채반장이 말했어요. 오늘 꼭 오실거라고요.》

아하, 그래서 깜찍한 이 처녀가 나를 제격 알아맞춘 모양이구나.

《강냉이가 대단히 잘 됐군요.》

나는 즐거움을 느끼며 사과갈같이 동그란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 군적으로 우리 작업반이 일등이에요. 반장언니가 지난해 농사를 총화하면서 올해엔 꼭 일등을 해야 한다구 했었으니까요. 우리 반장언니는 한다면 하는거예요.》

《그렇소? 허허...》

자기 반장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처녀가 사랑스럽게 느껴지였다.

《연구사선생님이 오셔요.》

처녀는 손나팔을 하고 소리쳤다. 농장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모두 이쪽을 바라보았다.

《우리 반장이 이제 여기로 와요. 지금 리당비서동지가 찾아서 갔으니까요.》

그러니 구태여 마을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처녀는 나의 어깨에서 가방을 뺏어메고 춤추듯 앞서 걸었다. 나는 처녀의 뒤를 따랐다. 농장원들이 모두 떨쳐나 마중해주었다. 고향을 떠난지 10여년이 지나서인지 낯모를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모두가 친지들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넋이 깃든 구호나무현출작업을 하러 왔다는것으로 하여 귀빈이 되었던것이다.

농장원들이 만류하였으나 나는 웃옷을 벗어놓고 일손을 잡았다. 듻직듻직 무게가 느껴지는 이삭을 따내는 재미에 힘든줄을 몰랐다. 가을하늘처럼 마음은 마냥 상쾌하였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졌을 때 하늘색 작업복을 입고 농립모를 쓴 옥채가 강냉이발 저쪽 최뚝길

에 나타났다. 나는 그를 인차 알아보았다. 통통 튀는 걸음씨는 어린 시절과 다름이 없었다.

옥채는 곧장 내앞으로 다가왔다.

《진호동무, 오셨군요!》

《옥채, 그새 잘 있었소?》

나는 끌리듯 성큼 다가섰다. 옥채는 정찬 웃음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난 진호동무가 꼭 올것이라고 믿고있었어요.》

《고맙소.》

사적연구소 소장은 나의 고향에 구호문헌출작업이 제기되자 멀리 자강도에 출장나가있는 나를 불러들이었다. 나는 옥채의 편지를 보며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던 구호나무인가! 왜놈들의 포위에 들었던 조선인민혁명군 국내공작원들이 **김일성**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구름마차를 타고 백두산으로 날아갔다고 하던 옥채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밝힐수 있는것이다. 옥채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으며 자랑으로 여기었다.

탁아소에서 우리 말을 배운 때부터 옥채는 구름마차이야기를 곧잘 했다. 사람들은 또박또박 말을 씹어가며 이야기하는 옥채가 기특해서 방금 듣고도 또 해달라고 졸랐다. 옥채는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어렸을 땐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자랑으로 여기었고 철이 들면서부터는 고향의 자랑으로 생각했다. 나는 고등중학교 졸업반때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것이 옥채와 구름마차이야기였다. 인민학교때 옥채한테 비틀어진 소리를 한마디 했다가 혼쌀이 난적이 있어 더더욱 잊혀지지 않는것이었다.

다는 어렸을 때 내 또래 아이들속에서 늘 대장노릇을 했었다.

어느날이었다. 마을아이들과 군사놀이를 하하고 약속했는데 옥채가 구름마차이야기를 꺼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어찌나 열정적으로 재미나게 말을 하는지 아이들은 종일이라도 옥채옆에 붙어앉아있을 잡도리였다. 구름마차이야기때문에 몇번이나 꿀탕을 먹은 나는 심술이 돌아나 옥채가 잠간 숨을 돌리는 사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쳤다. 모두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옥채가 발딱 일어났다.

《진짜야.》

옥채는 땀짜게 소리쳤다.

《그건 너의 할아버지가 꾸며낸 이야기야.》

나는 한수 더 뺐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옥채는 얼굴이 새파래지였다. 이쯤 성이 나면 누구도 당하지 못한다.

내가 달아나려고 하자 옥채는 두발을 딱 버티

고서서 길을 내주지 않았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주시했다. 나는 지고싶지 않았다. 제집애한테 진다는것은 《대장》으로서 있을수 없는 노릇이었다.

《저리 비켜.》

옥채를 밀어던지려고 했으나 어찌나 독이 올랐던지 쇠막대기같았다. 옥채는 내 얼굴에 구멍이라도 뚫을듯 쏘아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증오의 불길이 활활 타번지였다. 나는 놀랐다. 늘 웃음이 비껴있던 옥채의 눈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좀 있으면 옥채 할아버지가 염소를 끌고 돌아올것이다. 벌써 매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세는 대단히 불리했다. 나는 돌파서 집으로 달아뺐다.

집에 들어선 내가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전에 방문이 발각 열리였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옥채가 문앞에 버티고 서있었다.

《무슨 일이나?》

어머니가 나와 옥채를 번갈아보며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옥채도 말이 없었다. 옥채는 나를 쏘아보기만 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다치면 왁작 넘어날것 같았다. 옥문 입술에서 피가 푹푹 떨어지는것 같았다.

나는 더럭 겁이 났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옥채는 까딱하지 않았다. 나는 당황했다.

그렇게도 매서운 눈을 나는 보지 못했었다.

잠시 갑자르던 나는 이렇게 말했다.

《구름마차이야긴 죄다 사실이야.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그때에야 옥채는 뺨 돌아서 나갔다. 뒤를 한번도 돌아보지 않고 막대기처럼 꺾어져서 사립문밖으로 사라지던 옥채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다.

그다음부터 옥채는 나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5점을 한번 맞으면 그는 두번을 맞았고 내가 좋은 일을 한가지 하면 그는 열가지를 해내었다.

고등중학교에 올라가 송도원야영소에 함께 갔다운 다음부터야 우리는 유년시절의 뉴대를 다시 이을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일손을 잡았다. 옥채는 앞서나가며 이삭을 따고 나는 뒤따라가며 대를 베여놓히였다.

《...리당비서동지가 경험토론을 하라는데 야단났어요. 강냉이 정보당 열세톤, 벼는 열한톤을 내게 된 비결을 농구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구 해야 할지 생각이 나야지요.》

옥채는 난감한듯 한숨까지 호- 내쉬였다.

《정보당 열세톤이요? 벼는 열한톤?》

나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옥채가 열정가이고 이악쟁이라는것을 알고있지만 자기 작업반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사실말이지 우리 아버지가 여기 협동농장 기사장을 할 때에는 땅이 척박하여 정보당 네댓톤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강냉이는 열세톤, 벼는 열한톤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왔단말인가.

나는 옥채를 바라보았다. 호수같이 그윽한 정서를 담은 맑은 눈동자, 해별에 감실감실 탄 부드러운 볼, 선이 또렷하면서도 약간 부어오른듯 도톰한 입술... 곱다기보다 아담한 형인 이 처녀의 그 무엇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낳게 했는지?

우리는 사래긴 밭의 강냉이수확을 다 끝내고 저녁노을이 붉게 탈 때 마을로 돌아왔다.

2

옥채와 나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바위를 씻으며 흘러내리는 내가를 옆에 끼고 나란히 걸었다. 어린 시절 밤따러 다닐 때에는 달구지나 겨우 지나다닐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무봉기슭까지 자동차가 어길수 있는 큰 길이 끝게 뻗어있었다. 우리는 저수지옆에서 큰길을 버리고 오솔길에 들어섰다.

울창한 수림이 하늘을 가리워 숲속은 침침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았던것이다.

《아, 보라버섯!》

나는 락엽이 두툼하게 깔린곳에 탐스럽게 피어난 버섯송이를 보고 소리쳤다. 두무봉기슭에는 보라버섯이 유명했다. 나는 버섯밭으로 뛰어들었다. 앞서걸던 옥채가 다가왔다.

《버섯이 대단한데.》

나는 잠간사이 버섯을 한아름 따들고 일어섰다. 옥채가 보자기를 펼치었다.

《올해엔 버섯도 풍년이에요.》

《난알풍년, 과일풍년에 산열매와 버섯까지 풍년이라!》

기분이 흥뜬 나는 시를 읊듯했다. 옥채는 그러는 나를 보며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웃었다. 학생때부터 예능에 무재였던 내가 몰라보게 달라진 고향산촌에 취하여 읊조리는것이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내가 다시 버섯을 따려고 하자 옥채는 돌아오는 길에 따자고 했다. 하긴 잠간사이에 한보따리 꼴짝 차겠는데 그걸 어떻게 건사한단말인가.

우리는 다시 산길을 뚫었다. 해가 떠오르자 금빛 해살이 소나무들사이로 명주필처럼 드리웠다.

《호리호리 호리록-》

《구리구리 국국-》

온갖 새들이 우리를 축복하듯 노래를 불렀다. 가슴은 마냥 부풀었다. 상쾌한 이 아침에 고향과 더불어 조국력사에 길이 전할 구호문헌발굴사업차로 걷는 이 길이 나의 생활에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깊이 새겨질것이다.

나의 발걸음은 날개가 돋힌듯 가벼웠다.

우리는 잡관목이 뒤엉키고 다래넝쿨이 앞을 막아서는 골짜기를 에돌아 가파로운 바위벼랑을 뚫아올랐다. 두무봉의 첫 봉우리에 올라선 우리들은 엇비슷히 누워있는 넓은 너럭바위에 앉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다. 방금 우리가 지나온 수림이 발아래에서 설렘이었다. 높낮은 산밭이 잇닿은 사이로 고향산천이 산관처럼 한눈에 안겨왔다.

《저쪽이 자라등이지요?》

나는 어린 시절 자라등처럼 평평한 등판에 올라 가시에 찢리면서 산딸기를 따먹던 생각이 나 이렇게 물었다.

《예.》

《지금도 산딸기가 많소?》

산딸기가 어찌나 많은지 딸기철에는 온 마을 아이들이 자라등판에 붙어살지만 미처 따먹지 못해 무르녹아 떨어지는것도 많았다. 지금도 달콤하고 새크무레한 산딸기생각에 입안에서 군침이 돌았다.

《이제는 씬산이 됐어요. 해마다 씬을 수십톤씩 수확하는데요 뭐.》

《그렇소?!》

결국 자라등이 사료전으로 변모된것이였다. 닭만 가지고도 집집승적이문제는 다 풀릴것이다.

《자라등 뒤골짜기엔 작업반 양사가 있어요. 씬산에서 방목을 하는데... 저기 양떼가 보이지요?》

나는 옥채가 가리키는쪽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양떼가 흐르는것이 보이였다. 자라등등판에 흰 구름이 내려앉은것 같았다.

《그때 가져온 그 종자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배치지로 떠나며 집에 들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줄라 우량종자 양새끼를 구해가지고 백오십리길을 밤으로 떠나던 생각이 나 이렇게 물었다.

《예. 그때 그 한쌍의 양이 이젠 대부대가 됐어요. 래년엔 양마리수가 곱으로 늘어날거예요. 새끼낳이하는 어미양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작업반은 물론 우리 농장 전체 농장원들에게 겨울내의를 한벌씩 떠입히고도 남을거예요. 양무리속에는 염소도 서른여섯마리나 있어요. 염소젖은 락아소와 유치원에 공급해요. 자라등앞 골짜기 저수지옆에는 계사니목장이 있는데 울농사나 끝내고는 대담하게 확장하자고 계획했어요. 계사니목장설계도면을 가지고 관리위원장동지를

찾아갔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음 욕심쟁이, 그러다 너의 작업반이 우리 농장축사보다 더 커지겠구나. 좋다! 일욕심이 많은거야 좋은 일이지. 농장축산반이 납작해지게 해보아라.> 그 바람에 농장축산반에서는 우리한테 지지 않겠다고 확장공사를 벌였습니다.》

옥채는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옥채말은 들을수록 귀맛이 당기었다.

《저수지에 물고기가 몇마리 있는지 아세요?》

나는 어제 저녁 잉어회를 먹던 생각이 나 (아하, 저수지는 양어장인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2만 5천마리예요.》

내가 인차 대답을 못하자 옥채가 대주었다.

《2만 5천마리? 그걸 어떻게 아오?》

양이나 계사나 같은것은 세여볼수 있지만 물속에 있는 고기야 무슨 수로 마리수를 알아낸단말인가.

《우리 작업반 로병본조 분조장아바이는 해마다 정확한 실사를 하군한답니다. 분조장아바이의 실사수자가 작업반재산으로 등록되거든요.》

《그렇소? 허허...》

나는 때묻지 않은 천진한 옥채를 보게 된것이 재미나 호탕하게 웃었다.

《저쪽 곱산은 그냥 놓고있소?》

나는 저수지 안쪽 곱이 웅크리고 앉아있는것같이 생긴 산을 가리키며 물었다.

《곱이 왜 놓고있겠어요. 왕밤나무를 수백그루 지고있는데요. 다음주 일요일에는 온 학교가 펼쳐나 밤수확을 하기로 했어요. 곱산너머에는 잣나무숲이구 그 옆에는 분지골이예요. 분지골에는 약초가 무진장해요.》

나는 변모된 고향산천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옥채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실현해나갔다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는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고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작업반 청년들과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고 제먼저 앞장서 뛰어다닌 보람이 있어 오늘은 이 땅에 천지개벽이 이루어진것이다.

나는 옥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농촌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수수한 처녀인 옥채의 가슴속에 이리도 크나큰 포부가 자리잡고 있었던말인가.

《옥채, 정말 큰 일을 해놓았구만! 부끄럽소. 고향이 이렇게 변모될 때까지 나무 한그루 거름 한줌 보태지 못해서말이요.》

이것은 나의 진정이었다. 이제라도 옥채를 도와 땀을 한껏 흘리고싶었다.

《어마나, 별말씀을 다 하시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이 있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진호동무는 우리 고향을 더욱더 궁지높은

고장으로 만들려고 오셨구요.》

옥채의 말이 옳을수도 있다. 그러나 구호문헌 현출은 다른 연구사가 와서도 할수 있지만 자기 고향을 꾸리는 사업은 그 누구에게 부탁할수 없는것이다.

나는 옥채앞에 머리가 숙어지었다.

《전 아직도 한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구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아 속상해요.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 고향의 래일을 어떻게 그려보았을가요. 무릉도원, 지상천국?... 그것이 얼마만한 높이일가요. 우리 샘골이 언제면 투사들이 그려보던 그런 높이에 올라서겠는지 아득하게만 느껴져요.》

옥채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고향산천을 바라보았다. 나는 옥채의 마음이 리해되었다. 그는 이 너럭바위에 올라와 투사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것이다. 정보당 강냉이와 벼를 열톤이상 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라등판에 흙산을 조성하고 곱산에 밤동산을 꾸리면 어떻겠는지...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다. 두무봉마루에 거의 다달았을 때 앞서 걷던 옥채가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나는 락엽이 발목까지 빠지는 골짜기를 에돌아 옥채앞으로 다가갔다.

《이 나무, 그리구 저 나무들이예요. 두무봉너머편에도 또 있어요.》

옥채가 가리키는 꺾질벗긴 나무들을 살피던 나는 구호나무라는 확신을 명백히 가질수 있었다. 떠나기전에 이미 연구를 했지만 덕천, 양덕지구에서 파괴되었던 조선인민혁명군 소조가 두무봉방향에서 활동했다는 자료도 있거니와 꺾질벗긴 나무의 위치나 꺾질벗긴 상태를 보아도 틀림이 없었다. 얼마나 절절히 기대하는 구호문헌인가. 어제저녁에 내가 들어있는 유가족할머니네 집에 마을사람들이 다 모여왔었다. 늙은이들은 자기가 직접 겪은것처럼 유격대원들과 옥채 할아버지 이야기를 신명이 나서 하였고 젊은이들은 옥채가 직접 작사작곡했다는 구름마차노래를 부르며 시간가는줄 몰랐었다. 나는 고향사람들이 우리 고향에 찍힌 투사들의 발자취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를 심장으로 느끼었다. 구호문헌만 현출해내면 고향사람들의 자랑은 더욱더 커질것이다.

나는 옥채와 같이 두무봉너머편 범굴앞에도 가보았다. 모두 합쳐 다섯그루였다.

나는 가방에서 시약들을 꺼내놓고 현출작업에 착수했다. 옥채는 내옆에서 일손을 거들었다. 긴장하고 침착해야 하며 정밀하고 세심한 작업이었다. 구호문헌현출을 여러번 해보았으나 매번 새로운 흥분과 긴장이 온몸을 휩싸는것이였다. 그럴수록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하나 빈틈없이 진행했다. 마지막 시약처리를 한 뒤에야 나는

이마에 내뺨 땀을 씻었다. 옥채의 얼굴도 빨갛게 익었다. 그는 웃고있었다.

나는 시약처리한 나무들을 찬찬히 살피었다. 글자들이 나타나야 할 시간이 다 된 것이었다. 이 나무 저 나무 살피다가던 나의 가슴에는 불안과 초조가 숨배여들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수십년 세월 묵묵히 간직해온 력사의 자취를 확인해주어야 할 이 시각 어째서 침묵으로 대답하는 것인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는 두무봉 동쪽에서 서쪽으로 몇번이나 되짚어 뛰어다니며 살피었다. 옥채는 내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동작 하나와 미세한 얼굴표정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마음이 불안해지고 진땀이 났다.

글자들이 나타나야 할 시간이 켜 지났으나 야속하게도 꺾질벚긴 나무는 무표정한 자세였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용솟음치던 기운이 연기처럼 사라져 그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옥채의 얼굴이 새까맣아졌다.

《옥채, 내려잡시다.》

나는 오래동안 갑자르다 힘겹게 이 말을 했다.

《그럼...》

옥채의 두눈에는 물기가 핑- 고여올랐다.

《다시. 해보지요. 예?》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절절했던지 나는 두말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했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려올 때에는 내가 앞서고 옥채가 뒤따랐다. 그는 자주 발을 헛디디었다. 순간에 로파가 된듯 제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고 허청거려었다. 쓰러질것 같았다. 내가 부축하려고 하자 내 손을 조용히 물리치었다.

한동안 걷던 나는 뒤에서 기척이 없어 돌아보았다. 옥채가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섬찝했다. 아무리 살피도 어디있는지 알수 없었다. 나는 오던 길로 되돌아섰다. 잡관목을 헤치며 달려가던 나는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옥채는 너럭바위에 주저앉아 울고있었다. 동실한 어깨가 세차게 물결쳤다. 온몸이 눈물로 다 녹아내리며 바위로 굳어져버릴것만 같았다. 허나 나는 다가가지 못했다. 무엇으로 슬픔을 가서낸단말인가. 나는 오늘에야 나의 무능과 무책성을 통절히 느끼었다.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가슴이 미어지는듯 했다.

나의 귀가에는 어린 시절 옥채가 포박포박 말그루를 박으며 이야기하던 그 목소리가 쟁쟁히 울리었다!

그날도 종일 두무봉산속을 헤매던 순돌(옥채할아버지)은 초기를 만나 그자리에 쓰러지였다.

팍지주늬이 두무봉 깊은 골짜기에 있다는 고본을 캐오라고 내몰았던것이다. 지주너편네가 요즘 신경쇠약에 걸려 미친놈처럼 악다구니를 부리며 날치는바람에 골머리를 썩이던 팍가는 누구한테서 주어들었는지 고본이 특효라며 무조건 제앞에 가져다놓으라고 울러메었다.

초겨울 첫눈이 푸실푸실 내리는 때에 산세 험한 두무봉 어디에서 고본을 캐온단말인가. 머슴군 신세라 어쩔수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닷새동안이나 산골짜기를 헤매었지만 고본은 한뿌리도 캐지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순들은 목으로 파근한것이 흘러드는 느낌을 받으며 점차 정신을 차리었다.

《아, 이제야 피어나누만.》

누군가의 석침한 목소리가 들리었다. 순들은 눈을 뜨고 돌아보았다. 이마가 흰칠한 사람이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순돌이가 일어나려고 하자 그 사람은 솔뚜정갈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눌러 눌히었다.

《가만 누워있게. 초기를 만났었으니까 요기를 좀 하면 일없을거네.》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따뜻한 죽물을 떠넣어주었다. 달콤한 난알향기에 허까지 말려넘어갈것 같았다. 몇순갈 받아먹던 순돌은 미안한 생각이 들어 일어나 앉았다. 머리가 어질어질하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였다.

《원 사람두... 좀 더 누워있으라는데.》

근심어린 목소리에 순돌은 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솔진 눈섭아래 웃음이 비긴 서글서글한 눈이 펍 친숙해보이였다. 수수한 작업복차림에 각반을 치고 로동화를 신은걸 보면 사냥군 같았다.

순돌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무봉 범굴이 분명했다. 대낮에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곳이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어 여기에 와있단말인가.

순돌은 시꺼먼 굴속에서 호랑이가 금시 따웅-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올것 같아 소름이 끼치였다.

《난 범을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이네. 그래서 이렇게 범굴을 빼앗았지. 허허허...》

그 사람은 순돌의 속생각을 읽었는지 이렇게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범사냥군답게 탁 트이였다. 순돌은 마음이 한결 진정되였다.

밖에서 딱딱 돌마주치는 소리가 났다.

《이걸 천천히 들라구.》

범사냥군은 죽이 담긴 범랑그릇을 순돌이 앞에

밀어놓아주고 밖으로 나갔다. 굴입구 한옆에는 돌가마가 걸려있고 돌가마옆 넓적돌우에는 간단한 부엌살림도구들이 규모있게 놓여있었다. 돌가마에서는 죽이 끓고있었다.

죽그릇을 움켜쥔 순돌은 숨돌릴 틈도 없이 먹어치웠다. 이제야 살것 같았다. 그릇을 밀어놓던 그는 자기가 폭신한 담요우에 앉아있었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슬그머니 일어났다. 구겨진곳을 꼭게 펴놓은 그는 바닥에 내려앉았다.

잠시후 범사냥군이 젊은 사람과 같이 들어왔다.

《거긴 찰텐데 왜 내려앉았나?》

범사냥군은 순돌을 담요우에 앉히려고 했다. 순돌은 어린 아이처럼 발버둥쳤다. 가랭이가 너덜너덜 하고 흙이 게발린 잠뱅이가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었다.

《너무 용해빠지면 사람들이 속본다네.》

범사냥군은 순돌을 기어이 담요우에 앉히었다. 순돌은 범사냥군의 따뜻한 인정에 코허리가 시큰했다. 어린 시절에 부모를 다 잃고 지주집 외양간 복데기속에서 자란 순돌은 인간의 따뜻한 정을 모르고 살아왔던것이다.

《혼자 이 산속에서 무얼 하다가 그런 변을 당했나?》

범사냥군이 순돌이 옆에 앉으며 친절히 물었다. 정말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순돌은 두무봉귀신이 되고말았을것이었다.

《저... 지주어른이 고본을 캐오라구 해서...》

《고본? 약초말이지?》

《예.》

《지금이 어느 때라구 약초를 캔단말인가?》

《지주어른이 그걸 못캐면 집문턱을 넘어서지 말라구...》

순돌은 어물어물 말꼬리를 삼키었다.

《젊은 혈기에 지주집 아니면 살데 없어서 그 풀인가? 원 참.》

범사냥군은 채사 속이 답답한듯 한숨까지 내쉬었다.

《지주놈보구 어른이 뭐예요. 지주는 원쑤놈이예요. 우리와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원쑤란 말입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이가 한마디했다.

순돌은 경찰서장과 면장은 물론 군수하고까지 너나들이 하는 지주를 망탕 욕하는 소리에 겁을 먹고 눈만 더부럭거리었다. 이 말이 팍가의 귀에 들어가면 감옥신세지기 십상이었다.

《지주가 대단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잘것 없는 놈이라네. 생각해보라구. 마을에 지주는 한 놈이고 머슴군과 소작인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힘을 합치면 그까짓 지주놈하나 해치우지 못하겠나. 이 주먹 하나로도 지주놈의 면상을 박

살낼수 있겠는데.》

범사냥군은 북두갈구리같은 순돌의 손을 흔들여보이었다.

《...지금은 지주놈이 일제를 등에 업고 못하는 것이 없지만 그놈들의 세상도 이제 멀지 않아 끝장이 나고말것이니네. 불세출의 항일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의 녀장수와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시고 백두산에서 일제놈들을 삼대베여눕히듯 하고계시는데 그놈들이 배겨낼상심은가.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축지법을 쓰시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시기때문에 왜놈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단말이니네. 이제 나라가 광복이 되면 장군님께서 지주놈들의 땅을 다 빼앗아 순돌이와 같은 농민들에게 팔고루 나누어주실거네. 그때이 썸골을 지상락원으로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수 있다네.》

순돌은 자기한테 이런 행운이 차례지리라고는 믿지 않았으나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의 녀장수와 함께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시고 일본놈들을 삼대썰어눕히듯 하고계신다는 이야기만은 머리속에 깊이 새겨지었다.

그날 범사냥군과 젊은이는 두무봉골짜기들을 다 뒤져 몇뿌리의 고본까지 캐주었다.

다음날 일제경찰놈들의 무리가 두무봉에서 꼬리를 물고 내려오는것을 본 순돌은 깜짝 놀랐다. 저놈들이 혹시 범사냥군을 해치려고 왔던 놈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손발이 떨려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그놈들은 팍지주네 집으로 몰려들었다. 팍지주는 그놈들을 시종하느라 분주스레 돌아치며 안머슴 바깥머슴 모두 들볶아대었다.

그놈들이 돌아간뒤 마을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았다.

경찰놈들은 두무봉에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이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첫새벽 날도 밝기전에 두무봉을 포위하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놈들이 산을 절반쯤 올랐을 때 갑자기 백두산쪽에서 회오리바람이 구름을 몰아오더니 두무봉을 확 덮어버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구름은 점차 커다란 마차로 변하여 하늘높이 떠올라 백두산쪽으로 날아갔는데 두무봉에는 사람은커녕 그림자도 없더라는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구름마차를 타고 날아가버렸던것이다.

다음날 순돌은 두무봉 범굴에 가보았다. 범굴은 텅 비어있었다.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조차도 찾아볼수 없었다....

두무봉에 채빛장막이 뒤덮이었다. 내지는 무거운 중압에 눌러 숨을 죽이었다. 금시 비가 쏟아질것 같았다.

나는 오늘 떠나려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망설이었다. 이대로 떠나기가 죄스러웠다. 모 든 것이 나의 불찰로 생각되었다. 어린 시절에 심술이 돌아나 한마디 비틀어진 소리를 했던것까지도 후회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는 구름마차이야기를 진실로 믿고있었다. 옥채에 대한 심술로 본의아닌 소리를 했을뿐이었다. 지금도 그때처럼 내가 거짓을 꾸민것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허나 현실은 냉정한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구호문헌들을 현출해낸 내가 어떤 실수나 오차를 범할수는 없었다.

나는 옥채가 이 땅 그 어디에든 투사들의 자취가 남아있을것이니 찾아보자고 조르는 바람에 닷새동안이나 산속을 헤매었다. 우리는 범굴을 살살이 훑었고 그 주변을 열번 스무번 되짚어 더듬었으며 두무봉과 잇닿은 설레봉, 추락봉 그리고 높낮은 봉우리들을 모조리 뒤져나갔다. 그러나 허사였다, 옥채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당시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듣고 그 자료만이라도 고증해볼수 있겠지만 옥채 할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 어디가서 해볼데가 없었다.

어제오늘 옥채를 기다렸지만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도 이제는 단념해버리고만 모양이었다. 그러려니 얼마나 괴롭겠는가. 옥채는 무엇을 하고 있을가. 앓아눕지나 않았는지. 20여년 세월 철석같이 믿고 살아온 구름마차가 일순간에 령으로 되어버렸으니 그의 가슴에 한생 아물지 않을 상처가 생기었을것이다. 차라리 현출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게 아닌가. 마음속에 간직된 구름마차이야기만으로도 옥채에게는 힘이 되고 자량이 되고 긍지가 되지 않았던가.

나는 옥채를 만날 일이 난치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한단말인가. 위로나 해주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타격이었고 앞으로의 어떤 희망을 안겨주기에는 현실이 허용하지 않았다.

나는 숨막힐듯 답답하여 밖으로 나왔다. 검은 구름이 낮게 드리워서인지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로 나갔다. 두무봉에서 흘러내리는 내물만은 예이제 변함없이 맑았다. 나는 내물에 손을 잠갔다. 상쾌한 령기가 온몸에 스며들며 무겁게 처지던 가슴이 한결 거뜬해지였다.

비방울이 후드두 물우에 떨어지였다. 나는 비라도 흠뻑 맞고싶었다.

《비가 온다, 서두르라-》,

누군가의 웨침소리가 날아왔다. 비거둠을 하느라 탈곡장에서 사람들이 벽작 꿇고있었다. 두개의 련결차에 강녕이이삭을 넘쳐나게 쳐실은 프락

프르가 탈곡장으로 들이닥쳤다. 농장원들이 와 달려들어 부리우기 시작했다. 모두가 뛰고 달리며 떠들어대였다. 손과 입이 동시에 일을 하는것 같았다. 나는 탈곡장으로 달려갔다.

《노루골포전에건 이제 몇탕을 해야했던가?》

덥석부리 분조장이 발동소리를 짓누르며 운전수에게 물었다.

《곡상으로 여섯탕은 잘 될것 같아요.》

《아직두?》

《무슨 놈의 판인지 실어나를수록 땅속에서 자꾸 솟아나는데요뎁.》

《강녕이이삭이 땅속에서 솟아난다. 허허...》

《썸썸는 독이라더니 썸썸는 땅이구만.》

《그러기에 썸굴이 아니예요.》

《하 허긴 그래. 좋구나!》.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부러지겠수다. 어서 팔다리를 재게 놀려요.》

너인의 쟁쟁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나는 옆에 있는 삼태기를 집어들었다. 서로 나누는 말들이 프락프르소리를 짓누르느라 싸우듯 웨쳐냈으나 그 웨침속에 후더운 인정과 흐뭇한 자량이 질게 어려있어 마음은 저절로 흥겨워지였다.

《비닐박막을 싣고나가 덮어놓구말아야지. 안되겠어.》

프락프르가 자리를 프러하자 분조장이 소리쳤다.

《빨리 실으랴요.》

운전수는 찌프린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막대기를 삼켰나? 뽕치구 서있지만 말구 어서 박막을 날라와.》

분조장이 프락프르옆에서 머물거리는 나에게 소리쳤다. 농장원으로 안 모양이었다. 나는 박막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였다. 그러는사이 분조장 자신이 박막을 한아름 안고왔다.

탈곡장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강녕이이삭들을 창자에 넣느라 모두 분주히 뛰었다. 나도 그들속에 끼여 강녕이이삭을 날랐다. 땀이 났다. 그러나 마음만은 하늘을 날듯 거뜬해지였다.

《이젠 모아쌓고 박막으로 덮자.》

비발이 점차 세차지였다. 버기둠질을 끝낸 농장원들은 풍겨난 참새떼처럼 와- 휴계실 처마밑으로 뛰어들었다. 나도 그들속에 끼여 목을 움추리고 뛰어갔다. 분조장은 마지막까지 박막귀통이들을 꼭꼭 여미여놓고 천천히 걸어왔다. 농립모채양으로 비물이 줄줄 흘렀다.

《봄비는 악비요 가을비는 떡비라는데 오늘은 선비아주머니가 찰떡을 치슈.》

분조장이 처마밑으로 들어서며 한마디 했다.

《내가 왜 떡을 쳐요?》

수건을 쥐어짜던 너인이 덥석부리 분조장을 돌

아보았다.

《삼태자 손주를 보았는데 입을 내려쫄구말겠소?》

《평양머느리가 삼태자를 낳았는데 시골 시에미가 찰떡을 친단말이요?》

《그랬던가. 허허...》

분조장은 수염이 꺼실한 턱을 쳐들고 사람 좋게 웃었다.

《분조장이 후퇴를 하나? 말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받아먹어야지.》

휴게실 안에서 누군가가 깨끼였다.

《너자하구 말씨름해야 필요없어. 이길수 없으니까.》

분조장의 말에 와하 웃음이 터졌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귀통이가 허전했다. 옥채가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어디 갔을가, 알아누워서 못나온것이나 아닌지. 누구한테 물어보기조차 두려웠다.

《어마나, 연구사선생님이... 다 져으셨네요.》

나를 제일 먼저 맞아준 단발머리 처녀였다. 그는 자기 져은것은 생각지 않고 나를 걱정했다.

《일없소.》

나는 이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으로 웃어보이였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처녀가 나를 끌었다. 하지만 나는 함숙으로 향하였다.

나는 마을사람들앞에서 죄의식을 삭일수가 없었다. 고향의 공지와 자랑, 행복과 영예로 간직해오던 투사들의 자취를 내가 부정해버린것만 같았기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마을사람들은 비판하지 않았다. 비록 구호문헌은 발굴되지 않았어도 구름마차이야기가 허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현출작업의 실패로 하여 그들의 가슴속에 흐르는 허전한 공기는 무엇으로 가셔준단 말인가.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었다. 바람질까지 하여 날씨는 더 스산했다.

기쁨과 슬픔의 간격이 종이한장두께라더니 오늘들의 현실을 두고 한 말인것 같았다. 너무나도 급변하는 감정의 굴절로 하여 피로움은 더 큰것이다.

나는 창가에서 물러나 책상에 마주 앉았다. 무엇이든 해야 마음이 진정될것 같았다.

《연구사선생님 제서요?》

다급한 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출입문이 벌럭 열리며 비에 함뼉 젖은 단발머리 처녀가 문가에 나타났다.

《선생님, 옥채반장이... 큰 일 났어요.》

처녀는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 앞뒤가 없는 소리를 했다.

《옥채가 어떻게 되었단말이요?》

나는 다급히 물었다.

《병원에...》

《뭘요?》

《빨리요.》

처녀는 옥채의 운명이 나한테 달려있기라도 한듯 발을 동동 굴렀다. 나는 비웃 입을 생각도 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바람이 대번에 우리를 휩쌌다. 리병원에 다달은 우리는 어느한 방에 뛰어들었다. 정숙한 방안공기에 짓눌린 나는 문가에 주춤 섰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눈같이 흰 백포를 씌운 침대에 누군가가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간호원이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다. 흐느낌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같이 온 처녀가 침대옆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있었다.

나는 마음을 한껏 진정하며 옥채를 굽어보았다. 칭칭 감은 붕대, 백포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 까맣게 타들고 보풀이 인 입술... 순간 나는 심장이 뚝 멎는듯 했다.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누가 옥채를 이 모양 만들었는가.

의사인듯 나이 지숙한 녀인이 들어오더니 엄한 눈길로 우리를 꾸짖었다. 처녀와 나는 밖으로 쫓겨났다. 대기실 긴의자에 앉은 다음에야 나는 처녀한테서 옥채가 병원에 실려가게 된 사연을 듣게 되었다.

나를 찾아오지 않은 이틀동안 옥채는 누워 앓은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투사들의 자취를 찾아 산속을 헤매었다. 나에게 더는 기대를 걸수 없다는것을 느낀 그는 자기 혼자서라도 기어이 찾아낼 결심을 하였던것이다. 열번 스무번 높낮은 산봉우리들을 뚫던 그는 벼랑턱에 누워있는 진대통에 껌질벗기었던 자리가 있는것 같아 억수로 퍼붓는 비도 아랑곳없이 한치한치 다가갔다. 진대통을 끌어내오려던 그는 벼랑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던것이다.

나는 처녀의 말을 들으며 두손으로 머리를 짜 쥐었다. 내가 어떻게 되어 이런 인간이 되었단말인가. 홀로 산속을 헤매일 때 옥채는 나를 얼마나 원망하였겠는가. 고향의 넋을 기어이 찾아 이 땅을 금지높은 고장으로 올려세우려는 옥채의 그 열정과 신념의 거울앞에 나라는 인간의 진상이 날날이 드러나고만것이다.

평범할 때는 누구나 혁명적인 구호를 곧잘 웨친다. 그렇지만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으면 인간의 진가가 드러나는것이다. 결국 오늘에 와서 옥채와 나의 정신세계가 판가름되고만것이 아닌가. 내가 옥채앞에서 고향사람들 앞에서 떳떳할수 있는 길은 투사들의 자취를 찾아 그들의 심장속에 영생의 넋을 심어주는것이다.

나는 분연히 일어났다. 병원을 나선 나는 속소로 돌아와 준비를 갖추어가지고 두무봉으로 향했

다. 비는 멎었으나 이끼와 락엽이 두텁게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구질었다.

나는 옥채가 굴러떨어진 벼랑에 가보았다. 목숨을 내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억수로 쏟아지는 비발을 헤치며 아찔한 벼랑끝에 나설수 있는가. 나는 옥채의 희생성앞에 다시금 머리가 숙여지었다.

나는 옥채가 떨어진 진대통을 살펴보았다. 세월의 흐름에 고삭아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껍질을 벗기었던 흔적같은것이 약간 남아있어 현출작업에 착수했다. 기대하기 힘든것이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빌고 또 빌며 정성껏 시약처리를 하였다. 시간이 되자 고삭은 진대통 한끝에 희미한 룬짝이 나타났다. 아무리 살피고 또 살피어도 그것이 구호문헌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이 진대통에서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진대통이 굴러내렸을 방향을 살피었다. 두무봉방향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그곳에서 껍질벗긴 나무를 더 발견하지 못했단말인가. 분명 무엇인가 놓친것이 있는것 같았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구름마차이야기와 진대통은 이곳에 투사들의 자취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암시해주지 않는가.

벼랑을 에돌아오는 나는 가파로운 산릉선을 타고오르며 소소리 높은 아릅드리 나무들을 하나하나 살피었다. 어느덧 옥채와 함께 현출작업을 하던곳에 다달았다. 두번째번 반복해도 함구무언이던 껍질벗긴 나무를 살피던 나는 놀라 그자리에 굳어지었다. 희미한 글자들이 눈에 안겨든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천지조화라더니 이런 현상도 있단말인가. 이것이 환각이 아닌지.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살피었다. 분명 글자들의 룬짝이 해빛을 받아 선명하게 나타났다. 글자들은 검은색이 아니라 뜻밖에도 흰색이었다. 해빛이 뜨겁게 내려쬰일수록 글자들은 더욱 뚜렷하게 두드러지었다.

《불세출의 항일영웅 김일성대장 만세!》

나는 더 찾지 못하고 구호나무를 와락 끌어안으며 《찾았다!》 하고 목청껏 웨치었다. 얼마나 간절히 바라던 글발인가. 얼마나 애타게 찾던 투사들의 자취인가.

나는 덤불을 헤치며 다음 나무를 찾아갔다. 그 나무에도 꼭같이 흰색글자들이 또렷이 나타나 해빛에 반짝이며 투사들의 숨결인양 살아숨쉬고 있었다.

《백두산에 애기장군별 용출》

《2천만 별무리 3태성 바다본다》

.....

나는 미끄러지고 텅굴며 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옥채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한다. 이 기쁨, 이

행복을 제일 먼저 맞아야 할 사람은 옥채인것이다. 그의 뜨거운 열정과 굴할줄 모르는 완강성,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 희생정신이 결국 이런 천지조화를 안아온것이 아닌가.

병원까지 단숨에 달려온 나는 손기척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었다. 간호원이 놀라 비명을 지르건 청진기를 목에 걸던 녀의사가 뒤걸음질 치건 관제치 않고 옥채 앞으로 다가갔다.

옥채는 여전히 누워있었다. 흰 붕대에 내뻗 피자욱, 백랍같은 얼굴, 터갈린 입술... 나는 백포속에서 옥채의 손을 더듬어쥐었다. 찢기고 할퀴고 터갈린 손이 그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며 포근하다는것을 처음으로 느끼었다.

뜻밖에도 옥채의 검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었다. 《음-》 하고 신음소리를 내더니 힘겹게 눈을 떴다. 그는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옥채, 찾았소. 구호문헌을 찾았단말이요.》

옥채의 눈에 기쁨의 섬광이 반짝이더니 백랍같은 얼굴에 홍조가 어리며 선이 또렷한 입술에 웃음이 피어났다.

옥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간호원이 부축했다.

《가자요.》

옥채가 재촉했다. 우리는 두무봉으로 향했다. 옥채는 숨이 턱에 닿아 허우적이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내 팔에 의지해 걸었다. 그러면서도 빨리 가자고 계속 재촉했다.

두무봉마루에 올라선 옥채는 구호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귀여운 아기의 모습을 더듬듯 글자들을 한자한자 새겨가던 옥채는 구호문헌을 쓸어안으며 오열을 터뜨리었다. 설음이 아니라 반가움과 기쁨, 긍지와 자랑의 몸부림이었다.

해빛에 구호문헌들이 은빛으로 찬연히 빛났다.

함초롬히 젖은 옥채의 머리칼이 구슬같이 반짝이였다. 옥채의 절절한 소망이 마술을 부리며 깨긋한 글자로 나타난것이 아닌지, 옥채의 불같은 열정과 지킬줄 모르는 투지가 투사들의 넋을 이 땅위에 새겨놓은것이 아닌지...

나는 구호문헌의 글자들이 옥채의 심장속에서 맥박치는 소리를 푹푹히 듣고있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서였다. 나는 집을 꾸러가지고 고향으로 탄원해왔다. 옥채를 도와 고향을 더 잘 꾸림으로써 투사들의 넋이 깃든 이 땅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구상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였다. 나만큼 옥채를 잘 아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니고서 그 누가 옥채의 깊은 세계를 다 리해하고 그를 진심으로 도와줄수 있겠는가. 다른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긍지를 가지고 말할수 있다.

앞으로 우리 고향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오늘보다 더 훌륭한 꼭 화려해진 풍요한 공산주의문화농촌, 살기 좋은 지상락원을 보게 될것이다.

명언해설

《창조가 발견이라면 모방은 반복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은 무엇을 만들든지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지 말고 제머리로 생각하여 새것을 만들어내야 값있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창조는 독창적이고 새것을 만들어내는것이며 모방은 남이 해놓은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창조가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물질문화적재보를 만들어 사회의 진보에 적극 이바지하는 발견이라면 모방은 기성의것의 반복으로서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사람들이 무엇을 만드는데서 제머리로 생각하여 새것을 만드는데가 어렵고 힘겹다고 하여 새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남의것을 본따기만 한다면 사회의 물질정신적재부를 빨리 늘어나갈수 없으며 행복한 생활도 창조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만들든지 남의것을 본따서 손쉽게 만들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지한 사색과 정력적인 탐구로 새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가사

우리는 약속했다네 외 1 편

유국진

우리는 제대명령 받은 병사들
갈길은 많았어도 여기로 왔네
안변청년 발전소를 건설하고서
고향으로 가자고 약속했다네
아, 우리는 약속했다네

백리굴 뚫고가던 전투의 나날
서해로 가던 물길 돌려세웠네
내 조국 번영위해 제 한몸 바쳐

병사시절 용맹을 떨쳐가리라
아 우리는 약속했다네

장군님 높이 모신 영광의 그날
우리는 충성으로 맹세다졌네
안변청년발전소를 다 세우기전엔
위훈 깃든 군복을 벗지 않으리
아 우리는 약속했다네

산에도 들에도 풀판을 늘이세

내 고향 산과 들에 풀판을 늘여가니
웃음속에 노래속에 일손도 흥이로세
아 우리 당의 높은 뜻 받들어
산에도 들에도 풀판을 늘이세

풀판도 늘어나고 집집승 늘어나니
이 강산에 아름다운 새풍경 펼쳐졌소

아 우리 당의 높은 뜻 받들어
산에도 들에도 풀판을 늘이세

내 나라 산과 들에 푸른 옷 입혀주고
물과 고기 많이 바귀 행복을 꽃피우세
아 우리 당의 높은 뜻 받들어
산에도 들에도 풀판을 늘이세

밝은 앞길

김덕영

한생을 보람있게 살고 값높게 마치려는것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때문에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하였어도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 일손을 놓게 되면 아쉬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것이다.

나의 아버지가 바로 그랬다.

인상이 나무랄데 없이 만점이던 아버지의 얼굴에서 요즈음 웃음이 없어졌다. 년로보장을 눈앞에 두고 생각이 많아지는 모양이었다.

그러는 아버지를 위안이라도 하자고 우리 자식들이 모여앉아 60돛생일상을 차리자고 토론하였다. 그리고 의향을 비쳤더니 아버지는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석탄증산으로 받들자고 온 탄광이들뿔고있는 이때 무슨 정신빠진 소리냐고 큰소리쳤다.

우리들은 아버지를 위안한다는것이 심신을 더 괴롭힌듯싶어 모두가 풀이 죽었다. 그렇지만 60돛생일날만은 그저 보낼수 없어 간소하게나마 차려드리자고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있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이날이 우리 집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뜻깊은 날로 될줄을 그 누가 알았으랴.

저녁무렵 밖에서 승용차 밋는 소리가 나더니 책임비서동지와 점잖은 한 사람이 집으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어머니, 그새 무고하셨습니다까?》

80고령의 우리 할머니는 미처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있다가 책임비서라고 하니 어쩔줄 몰라하며 인사를 했다.

《아니 책임비서어른이 우리 집엘 다...》

《내가 뭐 못을 집엘 왔습니까. 그런데 갱장동문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요샌 좀.》

우리와도 인사를 나눈 책임비서동지는 우선 우선한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한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주자고 왔습니다.》

그러자 함께 온 일군이 할머니앞에 한발 나서며 정중히 말하는것이였다.

《할머니, 기뻐하십니까.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갱장동무에게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갱장동무의 사업을 료해해보시다가 60돛생일상까지 보내주시면서 일손을 놓기 저어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고문갱장으로 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아버지에게 60돛생일상을 보내주시다니, 게다가...)

몇년전엔 별로 크게 한 일도 없는 아버지에게 공훈광부의 높은 칭호를 안겨주시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마주보았다.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다가 올라온 어머니도 손끝으로 눈굽을 훔쳤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도 눈물이 그들먹했다.

이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버지가 방안으로 들어서는데것이였다. 우리는 마치 자석에라도 끌리듯 아버지에게 와락 달려들었다.

《아버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버지에게 60돛생일상을...》

《아버지.》

순간 돌처럼 굳어진듯 서있던 아버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장군님, 제가 무슨 큰 일을 했다고 이처럼...》

한없이 인자하신 친애하는 그이의 초상화를 우러르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품마냥 책임비서의 넓은 가슴에 눈물어린 얼굴을 와락 묻으며 흐느꼈다.

책임비서동지는 감격에 들먹이는 아버지의 어깨를 다정히 그러안으며 《갱장동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꼭 보답합시다.》 하고 뜨겁게 말하였다.

한참이나 어깨를 떨던 아버지가 당중앙위원회 일군의 두손을 부여잡고 자신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고문갱장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고 이렇게 60돛생일상까지 보내주시는가고 목메여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60나이가 되는 이날까지 아버지는 청춘의 활력으로 석탄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며 왜서인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우울했었다. 밤늦게 들어와서는 어두운 방안에 들어앉아 담배만 지긋게 피우며 도무지 말이 없던 아버지였다.

자기를 석탄공업대학에서 공부시켜주고 현장에 나와 몇해 안되는새에 한 갱의 책임일군으로 세워준 고마운 우리 당에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충성다하려는 불보다 뜨거운 마음이 이런 모태김을 낳게 했던것이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것이 나이라고 할수 없이 일손을 놓아야 했다. 이제 몇날만 있으면 집에

들어와 아침이면 창가에 서서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을 서운한 마음으로 바라보고있을 아버지, 일손을 놓고 남은 여생을 자식들의 뒤바라지나 하고 한적한 강가에서 낚시질이나 하며 보내야 하는 안타까움, 청춘시절에 더 많이 일을 못한 가책속에 제혼자 아쉬운 나이를 두고 긴긴밤을 지새워갔을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한없이 세심한 사랑을 받아안았으니 어찌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지 않으랴.

당중앙위원회일군의 손을 덧잡은 할머니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창밖은 하얀 벽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를 한참동안 우려했다. 그리고는 목메인 소리로 웨치는 것이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의 심정을 한생을 같이 살아온 이 에미도 몰랐수다. 오직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만이 아셨으니... 어흑. 어흑흑.》

정녕 그랬다. 우리 할머니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모르니 그저 아들의 얼굴이 축간다고 근심만 하였다. 왜 것처럼 잠을 못자고 안타까와 하는지?

또 60돛생일상을 못차리게 하는지도. 그런데 우리의 친애하는 그이께서만은 로깅장의 마음을 손금보듯 환히 꿰뚫어보신것이 아닌가.

훌륭한 자식뒤에는 참된 어머니가 있고 영웅뒤에는 진짜 영웅의 모습이 후광처럼 비껴있다는 말이 있듯이 언제나 아버지를 믿어주고 이끌어주시고 내세워주신분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이다.

우리는 모두 해빛밝은 벽에 모신 친애하는 그이의 초상화를 우려했다.

우리를수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랑과 믿음어린 빛나는 안광으로 아버지를 다정히 굽어보시며 우리 힘을 더 내어 혁명의 머나먼 길을 함께 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는데는 뜻깊다.

아, 한 인간의 말못하는 피로움도, 가슴속 숨긴 사연도 속속들이 헤아리고 보살펴주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우리의 **김정일** 동지.

아버이수령님께서 그로록 사랑하시던 인민이라고 그리고 뜨겁게 불러주시며 한평생 인민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친근한 그이께서 계시기에 인생의 황혼기에 든 우리 아버지도 청춘의 약동하는 삶을 되찾고 인생의 봄, 봄을 맞이하는것이 아닌가.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인간사랑의 천품을 지니고계서 인민들모두가 부르고 따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해가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전진하는 대오의 맨 앞장에 세워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손길.

하나를 주시고는 열을 주시며 열을 주시고는

그 무엇인가 못다주신듯 잠못이루시는 그 다심한 사랑을 어찌 하늘의 높이에, 바다의 깊이에 비기랴.

이 땅우에 지구가 생겨난 그때로부터 세월은 빨리도 흘러왔다. 그 수천수만년을 지나는 사이에 사회도 한고패씩 구르며 이렇게 저렇게도 변했다. 그때마다 생에 대한 리상은 이러저러한 생활에 부딪쳐 도저히 실현되지 못했다.

한때 광대한 대륙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지구상에서 첫 사회주의의 기치를 들었던 나라에서도 수령의 위업을 옹계 계승할 후계자를 바로 내세우지 못한탓에 이제는 생의 리상이란 낱말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뼈아픈 절망속에 누구나 어제날을 추억으로밖에 그려보지 못하고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때 진퇴량난속에 빠져 허덕이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

과연 그 세계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앞에 펼쳐진 밝은 앞길을 리해하며 상상이나 할수 있을것인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수령도 많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수령이 어느 시대에 친어머니보다 더 세심한 사랑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평범한 인간들에게 생의 활력을 다시 안겨준적 있으며 이런 뜨거운 이야기를 력사의 어느 갈피에서 찾아볼수 있었던가.

이것은 오직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시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시려고 불면불휴의 정력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만이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복종의 복이었다.

그것이 어찌 우리 아버지 한사람뿐이랴. 내가 사는 마을에만도 사람들이 존경하며 따르는 명예관리위원장도 고문지배인도 있다. 그리고 부모도 미처 알지 못하고있던 어린 아이의 재능의 싹을 키워 온 나라가 다 아는 꼬마시인으로 내세워준 사랑의 이야기도 있다. 정녕 위대한 령도자의 그 품은 우리모두가 안겨사는 하늘땅보다 더 넓고 깊은 사랑의 품이며 그 따사로운 손길은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이며 삶의 리정표이다.

아버지가 받아안은 끝없는 영광과 행복은 **김일성** 민족만이 누릴수 있는 행운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다.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이 너무도 놀랍고 감격해 눈물짓는 아버지의 앞길 그러고 혁명의 3세대인 나의 앞길, 내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는 딸애의 앞길에 사랑의 서사시로 수놓아질 전설같은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을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조국의 앞길은 날이 감에 따라 보다 휘황찬란할 것이다.

문득 철없는 딸애가 《찰칵》 하고 록음기의 스위치를 눌렀다.

록음기에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의 행복》이 밝은 서정속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은 격정의 메아리였다.

보람찬 삶의 길 걸으며
너와 나 진리로 새겼네
향도의 해발을 따라야
참다운 인생이 꽃필을
한없이 친근한 **김정일** 동지
영원히 보시고 따름은
아 크나큰 우리의 행복
...

나는 우리 당을 잘 안다

차영도

나의 어머니를
내가 알듯
내 자신을 내가 알듯
나는 우리 당을 잘 안다

없이는
내 못살고
있어야만 실수 있는
우리 생활의 해빛이고
내 삶의 모두인 당!

요람이더라
집이더라
내 어린것에게도
밝은 웃음이고
춤이고 노래인 우리 당!

돌아보면 내 생의 먼먼길에
그저 고마움만이
못견디게 가슴 사무쳐
자꾸만 수그러지는 머리
무겁도록 숙이는 머리-

어찌 잊으랴
내 어릴적 어머니의 손목잡고
9월의 푸른 하늘밑으로
작은 풍선마냥 내쳐 달음쳐가던
인민학교 입학의 못잊을 산촌길

철따라 입혀준 새 교복
다정하던 너교원, 야영지의 모닥불...
이 모든 삼삼한 추억들이
우리 당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나는 안다, 우리 당을

나를 위해선 내내 어머니마냥
한시도 결을 떠나주지 않은 당
그품 떠난 나의 추억, 나의 삶, 나의 인생이
그 어디에 깃들수 있으랴

나는 안다
당이 나에게 애써 마음 기울인
그 진정을 안다
그 자애를 안다

그것을 오늘날
내 다시금 조용히
마음속에 더듬으면
그지없이 따스한 품, 따스한 해빛.
아, 그것이 다름아닌
우리의 사회주의였으니

생활이여 투쟁이여 앞날이여
잃어서는 안될
우리의 사회주의 기치
이는 우리 당!
이는 우리의 **김정일** 동지!

나는 우리 당을 잘 안다
그때문에 목숨으로
우리 당을 사수해나선것이다
나의 삶 나의 운명
오,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 당을
나는 잘 안다

아는 심장이
억척같이 받들어 나선 우리 당
아는 신념이 지켜나선 사회주의
이를 빼앗을 힘 세상에 없다
나는 우리 당을 잘 안다

우리 시대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료리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형상

-텔레비죤련속극 《로병의 유산》에 대하여-

리성덕

세월은 어차피 흐르기 마련이고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기 마련이다.

세대교체가 불가피한 조건에서 혁명의 전세대들이 후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넘겨주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주체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회적문제, 절실하고도 절박한 인간학적문제라고 할수 있다.

텔레비죤련속극 《로병의 유산》(김관일 작)은 바로 이 절실하고도 절박한 인간문제에 대한 예술적해답을 준것으로 하여 텔레비죤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텔레비죤련속극 《로병의 유산》은 우리 시대 인간들이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유산은 수령과 령도자를 변함없이 충성으로 받드는 충신, 효자의 녀이라는 참으로 의의있는 종자를 심고 그것을 형상으로 꽃피운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의 요구와 리의를 먼저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며 당과 수령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살며 일하려는 혁명적량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과 수령의 사랑과 은덕에 대하여서도 혁명적량심을 지니고 진실하게 성심성의로 보답하여야 합니다.》

텔레비죤련속극 《로병의 유산》은 40여년동안 오직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지니고 군사복무를 한 조선인민군 장령 진성묵과 그 자식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이 후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넘겨주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예술적해답을 찾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진성묵은 1950년 여름부터 45년동안 군복을 입고 살아온 전쟁로병이며 공화국 로력영웅이며 조선인민군 어느 한 군부대의 정치위원이다.

작품은 이러한 주인공 진성묵이 년로보장을 받아야 할 나이에 이르고 또 신병으로 하여 더는 군사복무를 할수 없는 처지에서 제대되게 되는 생활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자기 자식들의 건전치 못한 생활기풍을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는 생활로정을 깊이있게 개방하면서 사회적문제성이 큰

주제를 해명하고있으며 작가의 창작적주장을 내세우고있다.

45년세월 군사복무에 헌신하면서 수많은 전사들을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참다운 혁명전사로 키워낸 진성묵이지만 제대를 하고 집에 들어왔게 된 새로운 시점에서 자식들의 생활을 일별한 그는 자식들을 잘 키우지 못하였다는 커다란 자책을 안고 모대기게 된다.

그는 자신이 충실히 복무하면 자식들이 응당 그뒤를 따르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군인들속에서 살면서 최고사령관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왔던것이

다.

군사복무에서의 그의 헌신성과 성실성은 마지막 군무생활을 처음 군복을 입었던 초소의 전사들속에서 보내는 감동깊은 생활묘사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그는 60이 훨씬 지난 사람이지만 자기가 첫 군복을 입고 전사생활을 하던 그 시절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군복을 전사생활로 끝맺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속깊은 생각을 안고 섬 초소로 가며 전사들과 의의있고 보람찬 생활을 보내면서 자기가 군사복무기간에 견지한 신념을 토로한다.

그가 군사복무의 전기간 가슴속깊이 간직한 신념은 인생이란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야 한다는것이며 지휘관으로서 조국에 바친 병사들의 위훈을 잊지 말아야 하며 돌격구령을 친 지휘관은 돌격전에 나선 전사들의 운명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것이다.

이러한 신념을 간직한 군인이기에 진성묵은 섬 초소의 전사생활을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하며 비록 포연탄우속을 헤쳐온 그 군복은 벗지만 마음속의 군복은 벗지 않고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전사로 살려고 맹세를 다지는것이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과 령도자를 영원히 변함없이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려는 투철한 자각과 전쟁로병으로서의 기본자세를 가진 진성묵이 우리 시대 충신, 효자의 품성을 갖추지 못한 자기 자식들을 원칙적으로 교양하는 한편 행방을 알수 없게 된 영예군인인 어제날의 사랑하는 전사 리성근을 기어이 찾아내어 막내딸과 짝을 무어주게

되는 생활발전로정을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주인공 진성묵의 자식들과 친지들속에서는 그가 이제는 제할일을 다했다고 치부하며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것을 바라며 원심을 쓴다.

하지만 진성묵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막다른 처지에서 자식들을 잘못 키운 뼈아픈 자책을 안고 모대기며 늦었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인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진심으로 받들고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인간으로서의 대를 세우게 하는것으로서 시대앞에 지닌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애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자기가 할일을 다한것처럼 여겨지는 인물, 전시에 세운 공로도 있고 혁명에 바친 고귀한 기여로 하여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의 높은 표창을 받은 인물,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군사복무로 충성다한 혁명의 지휘성원인 진성묵의 시점에서 우리 혁명의 후대들에게 똑똑한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한 여기에 바로 이 작품의 새로운 형상세계가 있고 작가가 사색하고 탐구한 뚜렷한 몫이 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조선인민군의 장령이면서도 언제나 전사들속에서 살며 자신을 철두철미 최고 사령관동지의 평범한 전사로 간주하고 그 어떤 특전도 특혜도 바라지 않는 량심이 대쪽같은 인물을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우리 혁명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가정의 혁명화, 후대들에 대한 혁명화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폭넓고 깊이있는 생활의 구체성속에서 예술적 일반화를 비교적 솜씨있게 실현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작품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주인공 진성묵을 시대의 전형적성격으로 잘 형상화하였으며 등장인물들을 개성화하는데서 혁신적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작가는 주인공 진성묵을 형상하는데 있어서 그를 리상화하지도 않았고 예술적으로 부각하느라고 고심하지도 않았다.

평범하고 진실한 생활그대로의 형상속에서 살아움직이는 소박한 성격, 그야말로 평범한 인간적품모를 전형화하였다.

작품의 첫머리에서 등장하는 그 품모만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친근감을 안겨주는 성격으로 형상되고있다.

자기의 군사적직무를 끝냈다는 의미에서 승용차운전수의 간절한 소청마저 말없이 거절하는 곧은 성미, 사복을 입은 사민의 집에 군용전화가 있을수 없다며 전화를 철수시키는 정직한 모습, 마지막 군무생활을 전사들속에서 보내는 생활의 여러 단면들은 어느 하나도 과장이 없는 진실하

고 소박한것으로 우리들의 시야에 안겨온다.

아버지를 위해 신성한 교단에서 물려날것을 안해에게 강요하는 맏아들 수일에게 못이겨 학교에서 나오려는 며느리를 놓고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다는것을 간파하는 생활을 비롯하여 허영에 뜬 둘째며느리 은옥의 그릇된 행동을 감수하게 되는 생활, 피와 땀을 기울이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맏딸 수미의 본질적결함을 발견하고 깨우쳐주는 생활, 생기발랄하면서도 번덕이 심한 막내딸 수옥과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생활과 사돈인 승학, 전우인 학만, 가장 사랑하는 전사인 앞못보는 영예군인 성근 등과의 관계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생활이 과장없이 소박하고 진실하여 숭고하고 아름다운 주인공의 료리세계를 훌륭히 부각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9부작으로 구성된 방대한 생활내용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펼쳐보이면서 주인공 진성묵의 성격을 과장과 분식이 없는 생활그대로의 모습으로 전형화한것은 이 작품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한 측면이다.

작품은 이와 함께 진성묵의 두 아들인 수일과 수호, 두 딸인 수미와 수옥, 두 며느리인 성혜와 은옥을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밀접한 호상관계속에서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훌륭히 형상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의리에 밝고 도덕으로 승화된 독특한 개성을 지닌 영예군인 리성근을 아주 매혹적인 인물로 형상하였고 안주인에게 품짝 못하면서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느라고 으시대는 성묵의 사돈 승학, 화선병사시절의 분위기를 돌구는 성묵의 전우 학만과, 옛간호장, 스스로 성근의 친어머니가 되여준 정임 등을 다 비반복적이고 개성이 뚜렷한 인물로 부각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작품의 제1부에서 등장하는 섬초소의 초소장을 비롯한 신입병사 등 잠깐 나오는 인물까지도 인상에 남게 형상되고있다.

수미의 애인으로 형상된 해군군관 서명찬은 불과 몇장면에서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뚜렷이 부각하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작가가 산 인간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기 위하여 생활하는 과정에 드러나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풍부하게 형상한데 있다.

해군군관인 서명찬을 형상하는데서 작가는 그를 생동하고 진실한 산 인간으로 부각하기 위하여 수미와의 호상관계속에서 그의 구체적인 사상감정을 재치있게 파헤치고있다.

서명찬은 물에 앉아서 강물이나 바다를 그릴것이 아니라 강물이나 바다물위에 떠서 료지를 그려보라고 권고함으로써 처녀의 창작적령감을 자극하여 수미로 하여금 뽀트를 타고 그림을 그리게 하며 우연히 보게 되는 처녀의 수첩에서 그의 생활세계를 느끼는 생활감정을 구체적으로 나타

냄으로써 다른 이의 인물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생동한 성격으로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이렇듯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전형화하고, 개성화함에 있어서 주체적문예리론의 진수를 체득하고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리는것과 함께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그림으로써 형상의 성과를 훌륭히 담보하였다.

이 작품의 성과는 또한 생활의 극을 탐구하고 진실하게 형상한데서와 생활을 깊이 파고드는데서 충분히 담보되고있다.

이 작품에는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고있는 긍정과 부정의 대립과 충돌이 주류를 이루면서 작품 전반에 관통되어있다.

주인공 진성묵의 맘머느리인 성혜와 그를 뒤에서 부추기는 맘아들 수일 그리고 성혜의 어머니인 복순은 성혜가 교단에서 물러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극적갈등을 이루고있으며 주인공과 둘째머느리 은옥의 사이에는 사치와 허영에 들뜬 부정적형상을 중심에 놓고 갈등이 조성되고있다.

그러나 이 갈등관계는 그 어떤 인위적이거나 도식적인 틀에 의하여 전개되는것이 아니라 생활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펼쳐지면서 긍정인물인 진성묵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윤리세계의 커다란 감화력에 의하여 점차 극복되는 과정으로 형상되고있다.

시아버지를 더 잘 모시고 가정일을 더 잘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전면에 내들었지만 학교사업에 열정을 다 바쳐온 신성한 교육자로서의 성혜에게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가정에 들어온다는것은 엄연한 현실도피이며 혁명의 리익을 떠난 개인적리해타산에 기초한 리기적인것이다.

그래서 성묵은 성혜의 제의를 일축해버리며 이 사건으로 사람들의 감정이 격화되는것으로 극은 심화되고있다.

그러나 그 해결은 생활그대로의 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시아버지의 격노한 감정과 단호한 조치가 정당하다는것을 심장으로 감수한 성혜가 본래의 모습대로 교육사업에 헌신하게 되기때문이다.

허례허식에 물젖어 성묵의 생일상을 요란하게 차리고 허영심과 사치를 탐내어 분수에 맞지 않게 집안을 꾸리려는 둘째머느리 은옥이의 개조과정도 격렬한 갈등전개의 격식화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성묵의 근엄하고 결백한 생활태도, 모든것을 화선병사사절의 방식으로 해나가려는 진지하고 허식을 모르는 참다운 생활의 본보기에 의하여 감화되고 생활을 언제나 아버지의 본새대로 해나가는 남편인 둘째 수호의 원칙적인 충고와 교양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해결되는것으로 형상하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작가가 생활의 극을 찾아쥐고 생활의 방식대로 전개되는 우리 식 극작법을 활용한데서 얻어진것이다.

성묵의 맘딸 수미가 해군소위 서명찬과 결혼하게 되는 생활묘사가 극성있게 흥미진진하게 전개된것은 그의 좋은 실례로 된다고 생각한다.

한번밖에 만난적없는 해군소위 서명찬을 마음속으로 애타게 기다리면서도 직장의 경비원아바이에게 찾아오면 혼쌀을 내주라고 모순되게 행동하는 수미의 형상, 수미를 성근이와 짝을 무어주려는 속심을 안고 바재이는 성묵의 내면심리세계, 방금 말쑥지를 떼려는 순간에 나타나는 서명찬, 사랑은 하면서도 평양을 떠나기가 아쉬워 탄전을 부리는 수미의 심리적굴곡, 수미의 애매한 태도에 단념을 하고 평양을 떠나게 되는 서명찬을 찾아 해군강습소와 역, 철차칸을 뒤흔들며 애타게 뛰어다니는 수호의 행동세계 등은 어느것이나 다 극성으로 충만되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있다.

이러한 생활의 극은 작품의 이르는곳마다에 심어져 형상의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이러한 생활의 극을 형상함에 있어서 극적전제를 충분히 깔아주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를 리성근이와의 극적인 상봉을 전제한 생활에서 찾아볼수 있다.

작품은 제1부에서 주인공 진성묵과 리성근의 관계를 매우 인상깊게 감동적인것으로 맺어주고있다. 노래로서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리성근의 주장을 들뜬것으로 간주하였던 성묵은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것이 진심으로 된 전사의 신념이라는것을 확인하였으며 군무수행도중 두눈을 잃고 제대된 다음에는 소식을 몰라 안타까와하며 그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한 자책을 안고 모대기는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전제를 충분히 깔아준 조건에서 수호네집과 마주선 살림집에서 울리는 성근의 기타소리를 여러 계기에서 거듭 강조하면서 극적기대를 모으게 하고있다.

둘째오빠네 집을 찾았다가 마주선 살림집의 밝은 창가에 비친 기타수의 그림자와 기타에서 울리는 명상적인 선율은 수옥을 깊은 감동에 잠기게 하며 그의 마음을 끌어당기고있다. 제4부에서 수옥은 인상깊게 간직하였던 그 노래를 채보하며 그 노래가 어느 집에서 울려나오는가를 확인하고있다. 그 노래는 수옥의 손뽕금소리로 옮겨지고 수옥은 그 악상에 심취되어 그 상대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작품은 이런 극적전제를 심화시킨 조건에서 성근과의 상봉장면을 참으로 극성있는 격동적인 화폭으로 승화시키고있다.

작품은 성근과 성묵과의 상봉을 계기로 하여 조국에 위훈을 세운 전사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

지려는 의무감을 더욱 가다듬으며 두 딸중의 하나를 성근의 배우자로 정하려는 진성목의 내면심리 세계를 깊이있게 추구하면서 수옥이가 성근이가 울리는 기타소리에 끌리어 점차 관심이 깊어지고 그것을 매개물로 하여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불타오르며 마침내 끝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라 일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때까지의 생활이 변증법적으로 파헤쳐지고있다.

작품은 이렇듯 정서적감화력이 큰 생활의 극을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전개하고있을뿐아니라 인물들의 성격적특질을 부각하는 정서로 충만된 생활들을 다양하게 펼쳐놓고있다.

작품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요구를 비롯하여 전형적인 생활을 그릴데 대한 요구, 생활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릴데 대한 요구, 생활을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세부화하여 그릴데 대한 요구들을 잘 실현함으로써 생활묘사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훌륭히 담보하고있다.

정서적감화력이 있는 생활화폭들은 필요에 따라 반복하기도 하고 인물들의 내면심리세계를 깊이있게 개방하기 위하여 회상속의 생활을 적절하게 배합하기도 하면서 전형적인 생활들을 구체화하고 세부화하여 그린 작가의 진지한 생활묘사는 9부에 달하는 방대한 생활내용을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고 정서적인 감동을 가지고 받아안을수 있게 하고있다.

수옥과 수미 두자매의 호상관계속에서 두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수영장 장면만 보아도 풍부한 정서로 하여 인물에 대한 애착을 더해주고있다.

이러한 실례는 얼마든지 들수 있다.

작품이 다양하고도 풍부한 생활로 충만된 정서적인 화폭으로 이어지고있는것은 이 작품의 작가가 선택하고 전개한 생활전형의 구체적인 단면들을 파고들어 깊이있고 섬세하게 그리는 생활묘사의 진지한 립장과 태도를 견지한데서 얻어진것이라고 보아진다.

이 작품의 뚜렷한 성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려는 작가의 관점과 립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공산주의적미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휘되는것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

텔레비죤연속극 《로병의 유산》은 바로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휘되는 공산주의적미풍의 하나인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하게 되는 한 처녀의 아름다운 소행을 개성적인 특색있는 예술적 화폭으로 형상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예군인과 결합되는 아름다운 청춘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출판물

을 통하여 보았고 예술작품을 통해서도 감상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속에서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감동없이 볼수 없는 특색있는 형상으로 새롭게 감수할수 있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작가와 창조자들이 비반복적이고 특색있는 예술적형상으로 시대의 미담을 극성있게 심화시켜 펼쳐보이려는 진지한 탐구와 노력에 의하여 담보된 훌륭한 결실이다.

작품의 작가와 창조자들은 영예군인 성근과 주인공 진성목의 막내딸 수옥이가 결합되는 아름다운 공산주의적미풍을 종자와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특색있는 형상으로 꽃피우려고 작품의 첫 부분에서부터 극적전제로 달아놓고 마지막에 가서 터뜨리는 방법으로 형상의 꽃을 소중히 가꾸고 활짝 꽃피워 예술적향기가 진하게 풍기도록 하였다.

조국에 바친 병사의 위훈을 우린 잊지 않는다는 말은 지휘관들이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리성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자책을 안고 모대기는 진성목, 그토록 애타게 찾던 성근을 찾았을 때엔 그를 장가보내는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간주하며 두 딸을 견주어보는 진성목, 첫번째 타산은 말도 비추어보지 못하고 빗나가고 두번째 타산으로 가슴을 바재이면서도 감히 말을 떼지 못하는 진성목.

작품은 이렇듯 영예군인과 자기 딸과의 결합이라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윤리문제를 놓고 고패치는 주인공의 내면심리세계를 감동깊게 펼쳐보이면서 아버지의 뜻을 짐작하고 성근히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은 그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해결될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성목의 만아들 수일, 수옥이가 이미 성근의 기타소리에 심취되고 채보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수일.

말못할 피로움을 안고 자기 생일날에 수옥이가 손품금으로 타던 성근이의 노래를 요청하며 막연한 기대를 가져보는 성목, 아버지의 고민을 예측하고 따지고드는 수옥이로 하여 더욱 착잡해지는 심정을 어찌지 못하는 성목, 아버지와 기타를 타는 사람을 련결시켜보는 수옥, 딸에게 모든 사연을 털어놓으면 자기 뜻을 따를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사랑으로 될수 없다고 부인해보는 성목.

작품은 이렇듯 세 인물의 심리변화를 깊이있게 교차시키면서 수옥이가 성근의 집을 찾게 되는 계기를 윤리적으로 귀결시키고 성근에게 접근하게 되는 수옥의 생활을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수옥이가 성근을 알게 되고 그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나 그것이 단순히 영예군인을 사회적으로 존경하여야 한다는 감정

에서 출발한것임을 알고 허전해하는 성목, 딸의 행동에서 너무나 단순하고 모든걸 너무 험하게 생각한다고 단정해버리는 성목, 성목으로부터 기어코 성근이가 어떤 사람이고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눈물을 흘리며 성근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자고 제기하는 수옥.

작품은 이러한 심리교차속에서 사건이 발전하여 성근이가 성목이네 집으로 옮겨오고 수옥과 성근의 두 가슴속에 진정한 사랑의 싹이 트고 결합되게 될 때까지의 생활내용이 참으로 깊이있게 해부되고있다.

아무런 조건부도 없이 발랄하고 생기있는 그 성미대로 그 어떤 마음의 그늘도 없이 성근의 가슴을 마구 휘저으며 진정한 사랑을 열정적으로 쏟아붓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수옥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고상하다.

물론 성근과 수옥의 사랑의 감정에는 굴곡도 있고 흔들림도 없는것은 아니지만 열렬하고 순결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우리 시대 인간들의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랑의 감정인것으로 하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딸을 믿는 아버지까지도 쉽게 불었다가 쉽게 떨어질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노래로서 장군님을 받드는 충직한 전사로 살려는 성근의 신념을 꺾어 주려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간직한 수옥은 로병의 딸답게 그 아버지가 바라는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그의 가슴에 안겨지게 하기 위하여 깨끗한 순정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다.

작품은 이렇듯 우리 시대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료리를 소리높이 구가하면서 후대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로 키우는것이 혁명의 2세대인 우리 로병들의 유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유산임을 형상적으로 밝혀내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들의 외부적행동보다 그 내면심리세계를 깊이있게 파헤치려는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하고 생활의 철학을 밝히려는 형상적의도도 뚜렷하여 형상적의미를 더해주는 명대사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주인공 진성목의 의미깊은 생활적인 대사들과 그가 쓰고있다는 로병실화에서 밝혀지는 주장토로에서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다.

우리는 이 작품의 전반적형상을 통하여 시대를 긍정하는 열정과 애착을 안고 생활을 깊이 파고들 때 우리 작가들은 얼마든지 극성으로 충만된 현실주체의 작품을 창작할수 있고 철학적의미가 부여된 참신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을수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생활의 극을 찾아쥐고 인간의 내면심리를 깊이 파헤치며 종자에 맞는 전형적인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구현하며 생활을 구체적이고도 섬세하게 세부화하여 그럴 때 품위있는 예술적형상으로 사람들을 공감시킬수 있다는것을 확신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 작품이 이룩한 성과에서 귀중한 경험을 찾고 새로운 예술적화폭을 창조하는 데서 밑거름으로 삼아 당이 요구하는 시대의 명작,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있는 붉은 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우리 당의 혁명적인생관이 철저히 구현된 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민중아 마중가자

김 호 (남조선)

달려온다 달려온다
백두백마 달려온다
높다란 안장우에
친지김동 모시고서
친지를 진감하며
백두백마 달려온다
너도나도 마중가자
친지김동 오신다

달려온다 달려온다
백두백마 달려온다
꿈에도 뵈고싶던
친지김동 모시고서

만민의 환호속에
백두백마 달려온다
너도나도 마중가자
친지김동 오신다

달려온다 달려온다
백두백마 달려온다
민족의 구성이신
친지김동 모시고서
통일의 광장으로
백두백마 달려온다
민중아 마중가자
장군님 마중가자

자원을 찾는 사람들속에서

-흑령탐사대 초급당비서 차룡순동무에 대한 이야기-

손광영

1. 덕산의 유래

립동이 갓 지난 어느날 저녁무렵이었다.

부실부실 내리는 마가울의 찬비를 맞으며 잔등에 배낭을 무겁게 진 한사람이 흑령탐사대 정문으로 들어서고있었다. 탐사대 당비서 차룡순이었다. 산발을 뚫은지 후령하니 젖은 바지가랑이에는 풀씨들이 잔뜩 매달려있었다.

후리후리한 키, 무척 부드러워보이는 사려깊은 눈빛... 준수하게 생긴 얼굴이 약간 창백해보이지만 앓는다면 너בות한 잔등에 배낭을 하나가 아니라 서너개라도 없어주고싶은 건장하여 보이는 체격이었다. 젊었을적엔 체육도 즐겼으리라는 짐작이 들었다.

그는 사무실쪽으로 걸음을 옮기기에 앞서 넓은 마당 한가운데 잠깐 섰다. 연구실청사앞 갖가지 떨기나무들이 운치를 돋구는 나직한 둔덕우에 높이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조용히 우러르는 그의 눈가에는 아직도 다 마르지 않은 이슬이 맺혀있는듯했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비애가 이 땅에 차넘치던 지난 애도의 나날, 초급당비서의 발기로 처음 시작한 일이 사람들이 늘 오르내리는 연구실앞 둔덕우에 햇빛처럼 밝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이었었다.

탐사대 대장 김종명은 비에 흠뻑 젖어 들어서는 당비서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앓는다더니 어찌된 일입니까? 혹시 그 배낭속에 무슨 진귀한 보물이라도 들어있는게 아닙니까.》

《옳게 맞았습니다. 이건 진짜 보물이지요. 태우면 빛과 열을 내는...》

차룡순은 들고온 배낭아구리를 헤치고 까만 탄덩어리를 꺼내어 두손으로 갈라쥐었다.

《자, 어떻습니까?》

순간 대장의 눈빛이 확-타올랐다.

《아니... 그건 석탄이군요. 어디서 그런...》

《밤나무골 늦점터 근방에서 로두탄을 발견했습니다.》

《비서동무가 저녁마다 산발을 탄다기에 설마했더니...》

《그저 산보삼아 두루 좀 다녀보았지요. 나두 당위원회 결정을 관철해야 할 당원이니까요.》

김종명은 눈곱이 따끔거렸다. 말은 대수롭지 않게 하지만 불편한 몸으로 산발을 오르내리자니

얼마나 힘들었으랴. 석탄자원을 찾는 지질조사가 산보처럼 결코 수월하지 않다는것을 다년간의 체험을 통하여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였다.

며칠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탄갱을 박을수 있는 석탄 매장지를 찾아내어 기업소 자체의 힘으로 세대탄과 난방용 탄을 해결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었다. 그리하여 종업원들은 물론 탐사대 마을의 남녀로소들까지 모두 떨쳐나서서 탄줄기를 찾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신병이 도지어 자리에 누운줄 알았던 당비서가 뜻밖에도 《보물배낭》을 지고 나타날줄이야...

지체없이 조사중대 실험실로 보내어 발열량을 분석해보았다. 놀랍게도 4천 5백칼로리라는 수자가 나왔다. 이글거리는 탄덩이들에서 뿜어져나온 황백색 불길이 시험로벽을 핏으며 솟구쳐올라 열전대를 그러안고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됐습니다. 이만하면 얼마든지 탄갱을 박을수 있겠습니다.》

차룡순비서는 시험로 주위에 둘러선 일군들을 바라보며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비서가 전망성있는 탄발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밤나무골로 밀려갔던 사람들은 지표면에 드러난 로두탄을 보고 환성을 올렸으나 운반조건을 따져보고는 어깨들이 축 처져 돌아섰다.

탐사대 측량조가 초보적으로 작성한 설계에 의하더라도 여기에 갱을 뚫고 캐낸 석탄을 차도까지 끌어내자면 자그만치 천오백여메터의 도로를 닦고 경사 급한 산비탈을 가로지르며 광차가 오갈수 있게 백메터가 되는 로반도 쌓아올려야 하였다.

너무도 방대한 공사였다. 혹시 참새를 잡자고 대포를 끌어들이는 격이 아닐가? 당장 겨울이 닥쳐오겠는데 기기에 기대를 걸고 기다리다가는 꿈뽕 열게 될거라는 말도 나돌았다. 더우기 크지도 않은 기업소가 이처럼 엄청난 공사가지 벌려놓았다가는 연간계획을 마무리짓는데 큰 지장을 받을수 있었다.

《비서동무, 다 먹어놓은 떡인데 이번까지는 덕산탄광에서 석탄을 받기로 하고 매년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것이 어떻가요?》

어느날 오후, 도로공사가 벌어지게 될 현지를 원답하고나서 대장이 난색을 지으며 조심히 건의는 말이었다.

차룡순은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벌리게 될 어려운 공사를 단순히

기업소 자체의 힘으로 석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는 일부 일군들의 견해를 당장 바로 잡아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구태여 힘겨운 부담을 걸머지고 나서지 않아도 탐사대에는 국가적으로 석탄을 우선 보장해주게 되어있었다.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찾는 지질탐사대원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군대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

차룡순의 눈앞에는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던 7월의 가슴저민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바로 그랬다. 힘겨워도 제 힘으로 공사를 하려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첫눈이 내리기전에 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고 석탄문제를 기업소 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합니다.》

《무슨 신통한 방도라도 있습니까?》

《있지요. 대장동무, 전 탐사대적인 기술혁신 현상응모를 조직합시다. 참가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공사를 단축할수 있는 한가지 방안은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우수한 안을 낸 사람한테는 특별히 시상한다고 공개하십시오.》

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는 참으로 무궁무진하다. 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수많은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도로공사에서 제일 어려운 구간에 산룡선을 가로지르는 단식삭도를 농계곰 설계도면을 수정함으로써 천메터나 되는 구간이 몽청 떨어져나갔으며 로반공사도 박토를 쌓아올릴것이 아니라 산경사지에 말뚝을 박고 그우에 광차레루를 허공 띄워 직선으로 늘어자는 실로 기발하고 영동한 안도 제기되었다. 여기서도 많은 로력이 절약되는것은 물론 선로길이가 대폭 줄어들었다.

기업소적인 기술혁신 현상응모를 통하여 얻게되는 소득은 대단했다. 그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성과는 이번 공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의가 부쩍 높아진것이였다.

석탄문제를 자체로 풀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산밭을 뒤흔들며 메아리치는 발파소리... 산중의 어둠을 태우며 활활 솟구치는 우등불...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도로... 밤나무골에 쌓이는 흐뭇한 석탄무지는 그 도로를 따라 빠져나갈 그날이 어서 오기를 고대하고있는 듯싶었다.

덕산마루에 붉은 노을이 기폭처럼 드리운 저녁의 한때...

탐사대마을의 안해며 어머니, 누이들이 정성껏 지어가지고 온 기름진 음식들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신들메를 조이는데 문득 당비서의 목소리가 누긋한 대기를 흔들며 젊은이들의 머리로 울

려갔다.

《동무들은 해방전에 저 산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고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싱글벙글 웃었다. 너무도 뻔한 물음이어서 대답할 여지조차 없지 않는가... 그래도 그냥 말해보란다. 아니, 그야 뭐 어려울게 있나, 옛날에도 여전히 덕산이었겠지요.

《틀렸습니다.》

아따! 참지 못하고 나섰던 시추중대의 젊은이는 주먹으로 뒤통수를 치며 동무들속에 뛰어들었다. 그 바람에 와- 폭소가 터져올랐다.

《대견아바이가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당비서는 웃음어린 눈길로 젊은이들속에 끼여 앉은 아바이를 부추긴다. 기업소에서 제일 년한이 많은데다가 요즘은 탐사대연혁사를 훌륭하게 집필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60이 지난 늙은이였다.

김대권로인은 주먹을 입가에 대고 두어번 기침을 하고 일어섰다. 자기를 젊은이들앞에 내세워주는 당비서의 곡진한 마음을 깨달은것이였다.

사실이니 말이지 연혁사초고를 집필할 때만해도 덕산의 유래나 전설같은것은 수집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당비서가 깨우쳐주어서야 알았다.

《아바이가 아니면 누가 정리하겠습니까. 자신을 작가로, 력사학자로 생각하고 나서보십시오. 그러면 후대교양에도 도움이 될 덕산의 유래나 전설을 꼭 찾게 될겁니다.》

그리하여 대견아비이는 덕산의 하많은 골짜기 어딘가에 묻혀있을 지명의 유래를 찾아 육신이 지치도록 산밭을 오르내렸고 옛 문헌의 두터운 갈피들을 다 번지였으며 오늘은 이렇게 당비서의 권고로 젊은이들앞에 나서게 된것이였다.

《해방전에는 저 산을 덕산이라 부르지 않고 묘주산이라고 했대네.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겠나?》

로인은 젊은이들의 흥미를 슬쩍 돌고어주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주머니를 풀기 시작하였다.

《먼 옛날, 이 땅에는 산들이 처음 생겨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네. 아니, 웃지 말게. 이젠 어디까지나 사실이니까. 그때 어떤 산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되려구 하늘 높은줄도 모르고 자꾸만 우줄우줄 솟구쳐오르는가 하면 또 어떤 산은 가장 아름다운 산이 되려려고 기묘한 바위와 폭포를 떠이고 솟아오르기도 하구... 하여튼 천태만상이었지. 그런데 저 산만은 이 세상에 사는 불우한 인생들에 덕을 주고싶어 그랬는지 지하에 널린 석탄을 그러모아가지고 땅우에 솟아올랐다네. 그 석탄을 처음으로 발견한것이 밤나무골의 저 돛점터에서 솟불에 돛그릇을 주조하던 장공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고장의 첫 시조란부들이라고 할수 있었지. 그런데 이 땅을 강점한 왜

놈들이 덕산골에까지 기여들어 그 장공인들을 내 쫓고 석탄자원을 약탈하기 시작하였거든. 조선사람의 생명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던 왜놈들이라 아무런 로동보호시설도 없는 오소리굴에 탄부들을 채찍으로 몰아넣었다네. 날마다 굴이 무너지고 폐죽음이 나군했지. 불쌍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저승길로 보내주는 상여소리가 이 골짜기에 그친 날이 없었다네. 그렇게 할아버지를 장사지내고 아버지를 묻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들이 또 그 탄갱속으로 들어가지 않을수 없었네. 그런데 날마다 일어나는 로동재해는 어린 아들의 목숨까지도 무참하게 빼앗아간단 말일세. 그래서 저 산에는 한가위날 벌초조 변변히 하지 못한 묘지들이 나날이 늘어만 갔다네. 고역에 시달리다가 굴이 무너져 죽은것만해도 역울한 일인데 죽어서도 지켜줄이가 없으니 얼마나 기막힌 노릇인가. 하여 사람들은 저 산을 가리켜 묘주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묻힌 산이라고 해서 묘주산이라고 불렀다네. 혹은 불우한 인생들이 저승에서나마 안식할수 있게 지켜주는 묘주가 되여달라고 산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두 모르지.》

아바이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전설로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였다. 늘 보아오던 제고장의 평범한 산봉우리에도 수만했던 이 나라의 피눈물나는 력사가 깃들어있었던것이다.

《묘주산이라고 불리우던 저 산이 다시 자기 이름을 찾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신 해방의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날부터 묘주산은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이 비친 덕산으로, 행복의 산으로 되었지요.》

계속하여 차룡순비서는 더욱 분발하여 우리에게 오늘의 이 행복을 주시려고 생전에 그리도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을 잊지 말고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진 탐사대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자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격식없이 벌어진 정치사업이었다.

그날부터 공사속도는 부쩍 높아졌다. 날이 새면 전날 저녁에 닦았던 도로가 밤새 달음박질이 라도 친듯 멀리에서 손저음하고있었다.

드디어 석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벌려놓았던 모든 공사들이 기한전에 완공되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밤나무골에서 캐낸 석탄이 삭도를 타고 내려 완공된 도로를 따라 빠져나갈 때 차룡순비서는 푸른 하늘아래 우뚝 솟은 산정을 감개어린 눈길로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이 비친 덕산이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충성과 의리의 봉우리, 보답의 피부리로 이 땅위에 높이 솟아오르게 되었던것이 다.

2. 당일군의 인간미

차룡순비서는 자기의 후반생이 탐사대에 머물게 될줄은 정녕 생각지 못했었다. 30년동안이나 당일군으로 사업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그에게 있어서 지질탐사부문은 전혀 생소한곳이 있다.

흑령탄광 당비서로 있을 때 그는 자주 기술일군들과 이마를 맞대고 탐사대에서 작성한 지질도를 들여다보곤했었다. 새로운 갱구를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때로는 앞장을 시원스레 열어주지 못하는 탐사대를 노엽게 생각한적도 있었으나 탄광이 맡은 시설물건설공사장을 돌아보느라고 송가리쪽으로 나갔다가 정작 둘러보면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며 탄줄기를 찾는 그들의 수고가 가슴에 마쳐와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탐사대를 도와주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서둘러 포치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래왕은 당비서에게 그전에는 몰랐던것을 새롭게 알도록 해주었다. 덕산기슭에 자리잡은 탐사대는 크지 않아도 그의 연혁은 실로 자랑스러운것이였다. 지난 30여년동안 흑령탄사대가 작성한 지질도에 의하여 덕산탄광과 령남탄광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여러 탄광들이 일떠섰으며 중소규모 탄광들이 개발되었던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석탄생산에서 지질탐사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문화회관을 뒤흔드는 박수갈채속에 혁신자 탄부들이 무대위에 올라 꽃다발을 받고있을 때 별빛을 머리위에 이고 이슬내린 산길을 뚫는 탐사대원- 그대들은 탄광의 래일에 사는 사람들이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욱 부강해질 내 조국의 먼 앞날에서 위훈의 찬연한 빛발에 휩싸인 그대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빛나고있었다.

남은 여생을 그들과 함께 살고싶은 촉박감, 래일을 위한 오늘의 투쟁을 더 보람차고 긍지높게 해주고싶은 절박성이 그를 탐사대로 이끌어주었는지도 모른다.

위대한 장군님의 배려로 사회보장혜택까지 받으며 중앙병원과 료양소들에서 병을 깨끗이 털고 일어났을 때 그는 담화하기 위해 내려온 일군에게 탐사대로 보내달라고 선뜻 제기하였던것이다.

그가 탐사대로 갓 부임되어왔을 때의 일이다.

당비서는 일군들을 거느리고 먼저 합숙부터 돌아보았다. 병사생활을 거친 제대군인들이라 호실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이 정돈되어있었다. 하지만 사려깊은 비서의 눈길은 방안의 구석구석에서 녀성의 세심한 손길이 가닿은 흔적도 놓치지 않았다. 대부분이 약혼녀들이 있는 총각들이였던 것이다.

경리지도원은 당비서의 불간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고급벽지를 내어 호실들을 더 멋있게 꾸리며 장기관과 오락기구들을 마련하여 합숙생활

을 《홍계》 해줄 경리과의 희한한 계획을 방불하게 펼쳐보였다.

《그렇게 하면 합숙생들의 마음속 그늘을 없애줄수 있다고 봄니까?》

경리지도원의 입은 대번에 얼어붙었다.

차룡순비서는 일군들을 둘러보며 절절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호실들을 더 잘 꾸리는데 신경을 쓸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락을 지어 하루라도 빨리 가정의 단란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장가를 들면 세간을 내주는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미풍양속이기도 하지요.》

하여 제대군인 합숙생들을 세간내기 위한 주택건설이 시작되었다. 당비서 자신이 직접 림지로 받은 독쟁이골에 가서 건설에 필요한 통나무들을 베어넘기느라고 일군들과 함께 맞퓽질을 하였으며 남강에 띄운 폐목우에 올라 폐밥죽을 저었다. 순조로이 내리던 폐목이 여울타에 걸리면 차디찬 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어깨에 피멍이 지도록 끝바줄을 힘껏 당기었다.

살림집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어느날 아침, 추가로 제기되는 기와를 실어오기 위해 김송명대장이 스텐트광산으로 떠났다. 걱정하며 따라나서는 당비서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녁중에 돌아온다고 장담하였지만 광산에서 계약된 전량을 싣고 오던중 화친고개에서 부러진 곡축을 수리하다나니 다음날 새벽녘에야 겨우 탐사대정문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당비서의 사무실창가로는 아직도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하얗게 서리가 내린 마당을 거닐던 차룡순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압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내놓곤 내내 후회하였지요.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김종명은 그만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는 김종명을 식당으로 이끌었는데 식탁우에는 색다른 음식들이 차려져있었던것이다. 당비서는 아직도 뭔가 좀 미흡한듯 민망스러운 눈길로 식탁우를 일별하고나서 사유를 밝혔다.

《알고보니 오늘이 대장동무의 생일날이더란말입니다. 하마트면 생일을 로상에서 설반했습니까.》

김종명은 코언저리가 시큰해졌다. 그는 생일을 음력으로 쇠곤했다.

대장의 잔에 술을 따라주며 차룡순비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서창탄광 당비서를 할 때 있는 일인데 제가 데리고있는 사람의 생일날을 똑똑히 모르다나니 그만 실수한적이 있었지요. 수첩을 보니까 그날이 전쟁로병인 운홍갱 교관아바이의 생일날이더란 말입니다. 뭘 좀 꾸려들고 아바이가 사는 상덕마을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요. <아니, 초급당비서동무가 어떻게...> 교관아바이는 반갑게

집안으로 이끌면서도 고개를 기웃거립디다. 나는 들고온것을 안사람한테 주고나서 격식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아바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하다니?! ... 무슨 생일말인가?> 허- 명색이 당비서라는 사람이 이런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동과 종업원명단에서 생년월일을 적다나니 그렇게 된것이지요. 알고보니 교관아바이는 생일을 음력으로 쇠더란말입니다.》

차룡순은 대장을 마주보며 즐겁게 미소했다.

탐사대마을에 새집들이 경사가 났다. 아담하게 지은 문화주택으로는 못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새살림을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이 일시에 들었다.

차룡순비서는 인사하러 온 그들에게 말하였다.

《동무들이 오늘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할수 있게 된것은 나라의 자원을 찾는 지질탐사대원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은정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 인민모두에게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인 집을 주시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주신 아버지장군님께 삼가 머리숙여 큰절을 드립니다.》

초급당비서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저으기 갈리고있었다.

...유치원 조무래기들이 당비서의 집을 《습격》했다. 부서진 울타리를 타고 넘어와 뒤뜨락에 탐스럽게 열린 물앵두를 열손가락이 빨개지도록 따먹고 달아뻘다. 유치원이 가깝다나니 여름철이면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진다. 차룡순이 저녁에 들어오니 부서진 울타리를 손질하던 안해가 지청구를 해댄다. 언제부터 고삭은 울타리를 다시 세워달랬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니 조무래기들까지 쳐들어오지... 읍에 있는 외손주 철이에게 맞보이지 못한게 알알하여 저러는것이다. 차라리 저 울타리를 죄다 없애는게 어떨가?...

《아니, 그것두 말이라구 하우?》

마누라는 덴겁한듯 한손을 뻗- 내젓는다.

다음날 아침, 가시물을 터발에 버리려고 나왔던 차룡순의 안해 장봉선은 아연해졌다. 남편이 날이 새기 바쁘게 뒤뜨락으로 나가 구멍저리기에 울바자를 손질하는줄 알았더니 달구지 하나는 너근히 드나들수 있게 뺨뺨하니 젖혀놓지 않았는가. 남은 속상해죽겠다는데 남편이 던지시 던지는 말 또한 대범하기 이를데 없다.

《애녀석들이란 워낙 제 손으로 따먹는걸 좋아하거든. 여보, 철이녀석두 앵두를 먹구싶고들랑 제손으로 따먹으라고 하오.》

그날은 아침부터 모든 일이 잘되었다.

련합당에서 임명한 초급당비서가 송가역을 지나가는 렬차를 타고왔다. 만나보니 10년전에 흑령탄광에 진출했던 어제날의 굴진세포비서 로관호였다. 젊고 씩씩한 새 세대 당일군을 보내준 책임비서가 고마왔다. 사실 요즘은 나이를 먹다보니 힘에 부칠 때가 많았던것이다.

오후에는 석탄공업부에서 열린 지질탐사부문 일군경험토론회에 참가하였던 대장 김종명이 돌아왔다. 과학원 연구사로 립순재와 공동집필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한 책을 당비서에게 한권 주었는데 뚜껑에 씌여진 《지질과 지리》라는 표제를 보자 기쁘기는커녕 저러다가 혹시 과학연구기관으로 아주 가버리거나 앓을가 하는 공연한 걱정이 덜컥 갈마들었다. 즐거운 걱정이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서부터 골바람이 터지더니 재밌구름장들이 제령산너머에서 날아와 탐사대마울우에 겹겹이 드리우기 시작하였다. 아마 한바탕 비라도 퍼부으려는 모양이었다.

차룡순은 근심어린 눈길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금쯤은 교대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고있을 탐사대원들의 미끄러운 산길이 우려되었던것이다. 그는 온몸을 엄습하는 불안을 참지 못하고 창문을 활-열어젖혔다. 창앞, 복숭아나무의 그늘속에는 너인의 부축을 받으며 갓 마흔에 잡혀보이는 한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이쪽을 묵묵히 바라보고있었다. 당비서를 만나려고 왔지만 정작 문을 두드리기가 서슴어지는 모양이었다. 아니 저게 누군가? 뇌타박후유증으로 흑령탄광병원에 입원시켰던 시추소대장 조장환과 그의 안해 김춘옥이었다.

《원, 사람두... 왜 그렇게 서만 있소. 어서 들어오지 않구.》

조장환은 안해의 부축을 받으며 사무실안으로 들어섰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을 두드리는 지팡이소리가 못견디게 마음을 자극했다. 실망의 의기까지 닥쳐온것이였다.

《그래, 언제 퇴원했습니까?》

《이틀전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한데 아직도 차도가 없는 모양이구만.》

《수태 나왔습니다. 비서동지가 관심을 돌려주어서... 저를 위해주던 비서동지의 그 성의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립니까?》

조장환은 건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손으로 이마를 싸쥐었다. 차룡순비서는 아직도 남편을 부축하던 자세로 서있는 김춘옥을 여겨보았다. 그 녀자 역시 당비서의 눈길을 피하며 수긋이 고개를 떨군다. 한참만에 조장환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비서동지, 저를 봐주십시오. 고향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다.》

《고향으로 가다니 ... 그 몸으로 간단말입니까?》

차룡순은 그를 위해 기울였던 그 모든 노력이 무시당한듯 그만 마음이 격해졌다. 사실 조장환의 병은 현대의학과 립상검험이 도달한 성과로는 진단하기 어려운 특이한 증세를 나타내고있었다.

당비서는 그에 맞는 치료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때없이 《경생》을 내어 환자와 함께 적십자병원

이나 김만유병원으로 달리였으며 자기가 쓰려고 건사해두었던 귀한 약재들을 아낌없이 내주었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겠다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아직도 나의 지성이 모자랐단 말인가.

《고향으로 가겠으면 가시오. 하지만 이대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동무가 완쾌되면 그때 보내주겠습니다.》

《비서동지!》

조장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전... 더는 치료를 못받겠습니다. 남들은 일시적인 난관을 이겨내며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데 아무런 보탬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겠단말이지.)

차룡순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언제부터 내려기 시작하였는지 창밖에는 엇비스듬히 비발이 날리고있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자신이 나라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할 때는 순간도 참지 못하는 사람... 누구나 그래야 한다.

사람은 건강할 때, 바치는것이 그대로 기쁨으로 되고 보탬으로 될 때는 다 모른다. 어머니당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한량없는가를... 어머니는 남들처럼 성하지 못한 자식때문에 더 마음을 쓰고 사랑을 기울이는 법이다.

차룡순비서는 조장환의 몸을 기어이 완쾌시켜 줌으로써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도 마음쓰시며 자신의 한평생을 다 바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사람들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싶었다.

그들부부를 안심시켜 돌려보낸 차룡순은 흑령탄광병원에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치료정형과 차후대책을 알아보았다. 기술부원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환자의 병을 호전시키기 위해 적용한 치료정형과 소모된약품명세는 놀라울 정도로 기억하고있었지만 차후 대책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다만 기술부원장은 소문에 의하면 평양의학대학병원의 한 의료집단이 최근 그 분야의 연구사업을 한다던데... 하고 안타까운 소리만 남기고 송수화기를 놓았다.

그날밤, 차룡순은 의대병원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썼다. 푹 끊어져버릴지도 모를 실낱같이 가느다란 희망에 기대를 거는수밖에 없었던것이다.

열흘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보름이 되어도 회답이 없자 그는 밀쳐야 본전인셈치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어 평양으로 한번 가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시추 3중대가 있는 탑동지구를 돌아보느라고 다리가 휘청거리도록 산밭을 누비고 사무실에 들어서니 날인이 찍힌 한통의 편지가 책상우에 놓여있지 않는가. 의대병원에서 온 회답편지였다. 환자를 접수하기로 하였으니 후송해오라는 반가운 소식이였다.

차룡순비서는 곧 환자를 데리고 평양으로 떠났다.

아버 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꽃피워주시는 우리의 사회주의는 참으로 좋다! 조장환은 돈 한푼 안들이고 권위있는 병원의료집단의 치료를 받던 입원생활의 나날에 그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로부터 몇달후 그는 깨끗이 완쾌된 몸으로 병원문을 나설수 있었다.

안해가 집이 있는 대동로천부락이 아니라 탐사대쪽으로 이글 때 그는 자기를 위해 관심을 돌려준 기업소와 고마운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가자고 그러는줄로 알았었다. 그런데 집으로 간다지 않는가.

그동안 차룡순비서가 남편이 퇴원하면 출근길에 불편이 없게 직장가까이로 이사하도록 해주었다는것을 알게 된 조장환은 또 한번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차룡순비서는 그의 인사를 한 평범한 당원이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리는 뜨거운 감사로 받아들이었다.

3. 다 하지 못한 이야기

탐사절을 맞으며 곧 방영하게 될 소개영화를 찍으려고 텔레비존촬영가들이 왔다. 나라의 석탄자원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한 흑령탐사대를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널리 소개하려는것이였다. 사실 우에서 대주기를 바라지 않고 부족되는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해마다 계획을 넘쳐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일심단결이 낳은 기적이였다.

그 기적의 하나가 것처럼 어렵던 진산시추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화천탄광에 전망이 좋은 로천채굴장을 마련해준 사실이다.

촬영가들은 탐사대원들의 간고했던 나날에 대한 궁지높은 추억으로 되는 진산을 렌즈에 담을수 없다는것을 저으기 아쉬워했다. 그들의 발자취는 진산의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으니 시추기소리만이 외로이 울려가던 산정에는 로천채굴을 위한 층층계단이 뻗어가고 중기계들의 동음이 낮이나 밤이나 메아리치고있는것이다. 더우기 청년들을 진산으로 부르던 당일군의 모습을 예술영화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화면에 담을수 있으랴.

나 역시 이 제한된 지면에 취재과정에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다 담을수 없다. 하여 차룡순비서의 뒹뒹을 보여주는 하나의 짧은 이야기로 이 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차룡순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앞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버지, 지어 불우한 아버지이기도 했다. 지난봄, 대학을 졸업하고 교통안전원을 하던

아들이 임무수행중 뜻하지 않은 일로 중태에 빠졌을 때 그는 이것을 더욱 똑똑히 느꼈었다.

그런데 단념했던 아들이 중앙병원에서 파견된 강력한 의료진과 온 군의 관심속에 기적적으로 소생했다는 전화를 시추현장에서 돌아온 그 저녁, 사무실에서 받았을 때 그는 사람들앞에서 보일수 없었던 후더운 눈물을 끝내 쏟고야말았다. 설사 아들이 잘못된다 해도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바쳐진 삶이기에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였다. 그런데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은 천금을 들여서라도 다 죽었던 아들을 기어이 살려내어 아버지앞에 세워준것이였다.

아들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완쾌되어갔다. 안해는 아들의 몸을 추켜세우는데 쓰려고 찹쌀을 구해왔다. 그런데 차룡순에게는 그게 마음에 걸리었다.

그무렵, 탐사대 로동정량원 오염관이 위출혈을 하고 병원침대우에 누워있었던것이다. 안해가 구해온 그 찹쌀을 쓰면 속히 회복될것만 같았다.

일단 감정이 인정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견잡지 못하는 차룡순은 어느 일요일 아침, 아들면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 안해에게 끝내 자신의 심정을 내비쳤다. 그러지 않아도 아들한테 너무도 관심이 적은 남편을 속으로 원망하던 장봉선은 그 만에야 눈가에 눈물이 그들먹해졌다.

차룡순은 안해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나라구 왜 신남이 생각을 안하겠소. 하지만 그 애가 중태에 빠졌을 때 당신이나 나나 걱정만 했지 부모로서 한 일이 뭘요. 우리 신남이가 다시 소생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마운 품이 있었기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그애의 천아버지가 되기전에 먼저 사람들앞에 어머니당의 참된 일군이 되여야 하는거요.》

그는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이 없었더라면 할아버지처럼 파도사나운 서해기슭에 영영 쓰러질 운명을 타고났던 চে염공의 아들인 자기를 품안아 키워주고 당일군으로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고마운 은덕을... 자기의 걸어온 인생길우에 아낌없이 뿌려지던 태양의 그 빛발이 되여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받들어갈 변함없는 신념이 그의 심장을 언제나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부닥치는 난관을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헤치며 래일을 위한 오늘의 투쟁을 위훈으로 빛내여가는 길에 자기 운명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여주고 인생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여주는 참된 당일군들이 있기에 언제나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는것이다.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어머니의 마음

강 수

나는 요즘 기분이 언짢았다. 저녁밥도 몇 술 뜨는척하다 말고 홀 옷방으로 올라가 편수책상앞에 마주앉고말았다.

그러자 책상우에 놓인 액틀속의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는것이였다.

나는 벽쪽으로 눈길을 돌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력속의 아름다운 무용수처녀가 해사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있는것이였다.

에익, 모든것이 귀찮았다. 의자에 앉은채로 엉치를 뻗 올려 몸을 반대방향으로 뒤틀고말았다.

나는 며칠전에 관리위원회에 불리워갔다. 방에 들어서기 바쁘게 나를 각성시키려는듯 고문관리위원장의 은근한 추궁이 시작되였다.

《동무네 작업반은 지금껏 뭘하고있소? 예... 정당 자급비료 열일곱톤이 뭐요. 열일곱톤?!... 그래 여태 작업반장을 해온 자네가 지금 논밭에 두엄 한줌 내면 가을에 가서 쌀 한줌된다는걸 몰라서 그 모양이요. 다른 작업반들에선 기준량대로 거의다 냈는데 동무네 작업반만 앓아몽개니 농사를 짓자는게요 말자는게요. 그래가지고서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어떻게 관철해내겠소?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소. 정신을...》

나는 얼굴이 뜨거웠다. 그러나 할 말이 없는게 아니였다. 억울했다.

《넌들 어쩔니까? 우린 뭐 속이 편해있는줄 아십니까? 우리두 뛰엿단말입니다. 다른 작업반들에서야 교회석을 캐서 논밭에 내니 실적이 올라갔지만 우리 작업반이야 어데... 교회석이 나올데가 있습니까?... 맨 등판뿐이니...》

그것은 사실이였다. 산을 깎 작업반들에서는 올해에 들어서면서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일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질소함량이 높고 여러가지 미량성분이 들어있는 교회석을 자체로 채취하여 논밭에 냈다. 그 덕에 실적이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 작업반은 논과 밭에 널 자급비료가 문제였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집집의 퇴비는 물론 그것도 모자라 30 리나 되는 읍에까지 가서 진거름을 보충해왔다. 그런데 옆친데 덮친격으로 프락프르까지 교장이 나서 무던히도 교생을 했다. 그래도 실어오느라고 애를 썼지만 그 적은것을 가지고는 코끼리에게 비스케트를 하나 먹이는격이 되고 말았다. 나는 기차가 코앞에서 기적을 울리며 달려오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침묵함에 끼운 발목을 뽑지 못해 안달이나 눈물만 떨구는 황소같이 속이 심지처럼 타들어갔다.

그래서 결국 정당 자급비료를 열일곱톤밖에 내지 못하였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우에서는 책임한계나 따지고 은근히 추궁만 해대니...

교회석, 교회석!! 그것은 우리 작업반의 생명과도 같은것이였다. 그렇다. 이삭은 자기를 살찌울 기름진 영양소를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그래 우리 작업반의 땅밑에는 없단말인가. 차라리 교회석이 나오는 작업반에 가서 작업반장노릇을 했더라면...

까짓거.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뜻밖에도 어머니가 옷방문결에 비껴서서 이러한 나를 쏘아보고있었다.

어머니는 올해 일흔다섯살이다. 나이는 많지만 아직 기력에서나 정신력에서 젊은이들 못지 않게 왕성하고 결매가 있는 드살이 센 늙은이였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은 나의 어머니를 가리켜 《범로친》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부르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가렬처절하던 전쟁시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구월산에 들어가 유격투쟁을 하던 나의 아버지는 겨울 어느날 몇몇 대원들을 이끌고 마을에 내려와 식량공작을 하고 돌아가던중 놈들과 조우하여 치렬한 격전끝에 대원들을 엄호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놈들은 악에 받쳐 체놈들의 시체만 다 끌어가고 누구도 유격대원의 시신을 못끌어간다고 엄포를 놓고 보초까지 세워 감시하였다.

이틀동안 창문결에 붙어앉아 바깥동정을 살피던 나의 어머니는 자정이 넘은 깊은 밤 빨래방치를 치마폭에 감추어 들고 별판으로 나갔다. 그때 어머니는 안전상 필요해서인지 나를 등에 업고 나갔다.

무시무시한 밤이였다. 이따금 밤새가 처량하게 울며 날아지나고 논보라가 사납게 울부짖었다.

나는 몸을 웅송그리며 어머니의 등에 더 납작하게 늘어붙었다. 심장의 박동소리가 쿵쿵 내 귀를 간지럽혔다. 어느새 어머니의 잔등은 땀으로 축축히 젖어들어 맞대인 나의 볼을 선뜩선뜩 닦아살처럼 되게 만들었다.

《명국아, 울지 말구 숨도 크게 쉬지 말구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시신을 찾을게 아니냐!》

어머니가 격전장에 은밀히 다가갔는데도 언제 발견했는지 악질보초놈이 기어코 단속하러들며 얼굴을 확인하려 하였다. 어머니는 이때라는듯 날새게 치마폭에 감추어 들고있던 빨래방치로 그

놈의 골통을 힘껏 내리쳤다. 놈은 찌소리도 못내고 빠드러졌다. 이마박이 깨어졌던가 뇌진탕이 일어났을것이다. 어머니는 어느새 나를 내려 놓고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포단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싸서 등에 업고 일어난 어머니는 내앞으로 다가와 《명국아, 내인차 갔다올테니 여기 있거라. 울지 말구!》 하고는 곧장 《꽃벌등판》으로 올리뛰었다.

놈들이 쫓겨간 이후 어머니는 관을 짜서 아버지의 시신을 다시 안장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네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우리 어머니를 범보다 무서운 로친이라고 했다.

그때로부터 어머니는 판사람이 된듯싶었다. 밀림속의 호랑이가 짐짐승들을 움작 못하게 하듯이 언제나 나를 틀어잡고 일언반구도 못하게 꼭 눌러놓고 쇠고개를 넘긴 오늘까지도 이 아들을 어린애취급하듯 닥달질하곤했다.

이렇게 되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엄한 표상을 가지고 자라지 못한 나에게는 어머니의 저 눈빛이 매를 드는 아버지의 드센 주먹보다 더 아프게 자극을 주는 보이지 않는 《채찍》처럼 생각되었다.

언젠가 어머니의 그 《채찍》에 사정없이 두드려 맞던 지난날의 일이 눈앞에 선히 안겨왔다.

…그때 나는 분조장일을 맡아보고있었다. 온종일 들판에서 뛰어다니며 고생한 보람이 있어 모내기전에 강녕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도 거의 끝나가고있었다. 이제 술풀 이백평 되나마나한 때기발 강녕이영양단지모만 옮기면 된다. 그런데 뽕기발에 널 영양단지가 모자랐다. 작업반에는 벌써 오늘 하루면 강녕이영양단지 옮겨심기가 전부 끝난다고 보고했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종단말인가. 부식토가 모자랐던것이다. 이제 어디 가서 부식토를 날라오며 어느 하가에 종자를 싹틔워 발에 심는단말인가. 그래도 어쨌든 농사는 짓고 봐야 했다. 나는 부라부라 적은 량의 부식토에 흙을 이겨 단지를 찍은 다음 물에 불쿠어놓았던 강녕이종자를 꼭꼭 눌러 그속에 박아넣어 발에 심었다.

그제 일을 쳤다. 보름후에 그 《흙단지》에서 싹이 터나왔는데 영양이 약한지라 심심 자라지 못했다. 또 그런걸 발에 옮겼더니 종자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찬바람에 누렇게 떡일져 죽어버리고말았다. 《흙단지》를 낸 발들에서 빈포기자리들이 눈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속이 상해 타드는 가슴을 부여안고 발머리끝을 떠나지 못했다.

그날밤, 어머니는 영악없이 나를 불러앉히었다. 《그래 네가 술풀뽕기발에 <흙단지>를 냈다는게 사실이야?》

《…》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눈만 껌벅거렸다.

어머니의 두눈은 차갑게 번뜩이었다. 꺾 움켜쥔 주먹… 그 주먹이 당장에 나의 정수리를 후려갈길것만 같았다.

《당장…빈포기들을 보식해놓겠어요.》

《그만뒀라. 발에 생긴 빈포기야 메우면 되지만 주체농법을 어긴 그 죄야 무엇으로 씻겠냐? 네가 감히 수령님의 뜻을 어기다니…》

《…》

가슴이 뜨끔했다. 어머니가 어쩌면 제아들에게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감투까지 씌워 나무람할 수 있겠는가. 나도 농사를 짓자고 한노릇인데…

나는 어머니가 너무도 뻥뻥한 찬기운을 풍기는 얼음덩이, 《눈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역시 할 말은 없었다.

《충신의 집안에서 역적이 난다더니 네가 바로 그런놈이로구나. 그 본새로 살라고 네 아버지가 유격대원들을 먹여살리려구 마을에 내려왔다가 이 땅에 묻힌줄 아니? 렬사인 아버지처럼 살라고 아버지의 유산인 이 집과 묘소를 지키며 너를 바라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네가 무슨 낫으로 분조사람들을 대하며 나는 무슨 체면으로 동네사람들을 마주보고 살겠냐? 당장 일어서거라.》

그날저녁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꽃벌등판》으로 끌고갔다.

《어서 끌어엎드려라. 그리구 빌어라. 이 땅을 위해 목숨을 바친 렬사의 렬전에…》

나는 어머니의 치마자락에 어린애처럼 매달렸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때리는 그 모진 《매》가 나의 가슴에 사정없이 쓰리고 아프게 파고들었다.

이날 나는 온밤 잠 못이루고 뒤척거렸다…

그런 어머니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있는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가 천천히 내 곁으로 다가왔다.

《게 앉거라. 그제 요즘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모든것이 시답지 않았다. 기분 나쁜 일을 두고 자초지종 어머니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작업반땅밑에 없는 교회석을 어머니가 무슨 수로 캐다주겠는가. 공원한것이였다.

어머니는 나를 한동안 말없이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그자리에 눌러앉았다.

《그제 <고문관리위원장>아주버니를 만났댔다. 그 어른이 하는 말이 네가 요즘 교회석인지 뭔지 하는것때문에 골치를 앓는다더구나. 그래 내 어제 교회석을 캐다는 3반에 건너갔다 왔다… 이제 그런 교회석이 옳으냐?》

어머니는 손에 들고있던 자그마한 교회석비닐봉지를 나의 앞으로 내밀었다.

순간 나는 어머니가 수그러들었던 나의 부아통

을 다시 들쑤셔놓는것만 같아 신경이 곤두섰다.

《어머닌 별걸 다 들고다니면서… 그림에 찍이예요. 그런걸 들고 다닌다고 해서 교회석이 하늘에서 절로 떨어지겠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너 무슨 말을…》

나는 벌떡 일어섰다.

《됐어요, 어머니. 이젠 가자요… 그렇지 않아도 고문관리위원장의 충고를 받고 며칠째 안타까이 뛰고있는데 어머니까지 또 이렇게 내 마음을 들쑤셔놓으니 이거야 오금이 저려서… 작업반장을 그만두고 말던가 해야지…》

《뭐라구?!》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얼굴빛이 순간에 검붉은빛으로 변했다. 주름 많은 입귀가 경련이 인듯 푸들푸들 떨렸다.

나는 그때야 비로소 어머니의 눈빛에서 방금 열결에 던진 말의 아차 실수를 깨달았다.

작업반장을 그만두다니… 그러나 이미 쓴 화살이니 돌려세울수는 없었다.

나는 당황했다. 나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꺼리낌없이 터져나왔는지 나 자신도 알수 없었다. 신살이 되어오도록 밖에 나가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도 어머니가 눈치채고 꾸중할가봐 그게 두려워 숨도 크게 못쉬던 내가 아닌가. 그런데 어디서 그런 대답성이… 그만큼 교회석은 나의 신경을 자극했다.

나는 다시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미구에 내려질 《채찍》의 아픔을 예감하며 나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과격하게 나오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평온하고 조용했다. 오히려 어머니는 허거프게 웃으며 말했다.

《허허, 이젠 내가 늙었나보다. 이 에미앞에서 네가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곡식이 자라자면 그 밀거름이 좋아야 하구 사람의 마음이 자라자면 제가 어떤 피줄을 이어야 하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더니… 내 미쳐 너에게 그걸 심어주지 못했으니…》

어머니는 더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 입귀를 싹룩거렸다. 그러나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어떤 아픈 마음의 가책이 어린 눈길로 나를 이윽도록 마주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만있었다.

어머니는 한참후에야 단호한 결심을 내린듯 입술을 옥물더니 두무릎을 꿇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왔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을가. 그리고 샅을 들고 또 어디로 허청허청 나가시는걸가… 또 《꽃벌등관》으로 올라갔을가…

나는 고개를 들어 방금 어머니가 나선 창밖에 눈길을 던졌다.

밖에서는 이해의 첫 비가 소리없이 부실부실 내리고있었다. 창유리에 맺혔던 작은 물방울들이 그만에야 밤알만큼 커진 자기의 존재를 가누지 못해 주르르 창력으로 미끄러져 흘러내리고있었다.

나의 눈에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비물이 어머니의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보이지 않는 눈물의 《바다》처럼 생각되었다. 내가 왜 어머니앞에 그런 말을 했던가. 오죽 가슴이 터져왔으면 그 《범로친》이 큰소리 한마디 없이 밖으로 나가고 말았겠는가. 나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을 어머니의 그 심정이 리해되는듯싶었다.

…나의 어머니는 본래 어려서부터 송림에서 살았다. 지지리 못살던 그 세월, 품팔이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던 집안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굶어 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아무리 몸쓸놈의 세상이기도서니 농사집이야 우리보다 낫겠지. 넌 이다음에 다른 생각 말고 무조건 농사군에게 시집을 가거라.》

죽기전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말이었다.

어머니는 불쌍한 어린 동생과 부모님들을 거적때기에 말아 초상을 치른후 초가마가리같은 집에서 나왔다. 그러나 갈곳이 없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에 어머니는 밭끝이 내짚어 지는대로 자꾸자꾸 걸어만 갔다. 논과 밭이 있는 곳으로… 할아버지의 말대로 거기 가야만 집도 있고 자기의 주린 창자를 채워줄 인정이 있을것만 같았다. 그래서 허기진 배를 달래자고 밭걸음 멈춘곳이 오늘의 토정마을이었다.

새벽닭이 세번째나 해를 쳤지만 마을은 숨을 죽이고 암흑속에 새날이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남의 집문을 두드려야 살겠으나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디선가 물소리가 돌돌 들려왔다. 풀덤불속에 자기의 새말간 몸을 감춘 내물이 졸졸 흘러내려 마을앞 늪가로 흘러들었다.

어머니는 내물을 따라 늪가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피기없이 새들새들 마른 하얀 손바닥에 물을 말라 손빛질을 하여 흩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올렸다.

아직 가녀에는 얇은 살얼음이 저 번들거렸다. 그런데 별로 흰것이 눈길을 끌었다. 누가 방금 파놓은, 아직 물기가 채 가셔지지 않은 개바닥흙 무지우에 삽자루를 꽂아놓고 그 자루우에 흰무명수건을 걸어놓은채 어디로 갔는지 사람은 보이지 않고 물새의 울음소리만 구슬프게 들려왔다.

이때 건듯 불어오는 새벽바람에 위태롭게 흔들거리던 삽자루우의 무명수건이 늪바닥에 날려 떨어졌다. 어머니는 허둥지둥 늪가로 뛰어들었다. 물먹은 수건을 삽자루우에 다시 걸쳐놓고 돌아나

오던 어머니는 마침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주인없는 빈집에 슬쩍 뛰어들듯 같은 불안이 없지 않았으나 그래도 새벽에 남의 집문을 두드리기보다 더 나은것 같았다. 어머니는 삽자루를 뽐아들었다. 그런데 마음뿐이지 온몸이 나른한게 맥이 없었다. 삽날이 두가락으로도 보였다. 철버덕 철버덕...

《게... 누구요?...》 등뒤에서 울려오는 목소리에 허리를 펴던 어머니는 그만 몸의 균형을 잃고 늑가에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무엇인가 뜨끈한것이 목으로 흘러들어왔다. 눈을 떠보니 낮모를 청년이 어머니의 입에 한술두술 미음을 떠넣어주고있었다.

《고마워요...》

어머니는 흐느껴 울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다.

어머니의 기구한 운명을 다 듣고난 청년과 그의 부모들은 함께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 일처럼 가슴아파했다.

《그러니 체넨 갈곳이 없겠구만. 참 세월두... 우리 함께 의지해서 살자구. 우리두 같은 처지지만...》

어머니는 이들의 인정에 목이 꼭 메였다. 그 청년이 바로 나의 아버지 김천복이었다.

다음날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는 땀과 굶주림속에서도 개바닥흙을 파고 또 팠다.

《이름이 뭐요?》 어리숙한 아버지의 물음에 어머니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다.

《저... 광옥이에요.》

《광옥이! 이름이 참 좋수다... 가만 내 지지요.》

아버지는 얼른 어머니가 지려던 지계에 자기의 넉적한 어깨를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에 자기를 어려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녹찾혀주려는듯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개바닥흙이 참 신기해요. 발에 내기만 하면 곡식이 잘되거든요. 허허...》

아버지는 지계를 지고 일어섰다. 그리고 등이 휘도록 저날랐다. 얼마 안되는 등판이라도 개간해서 입에 풀칠을 해보자고 이를 악물고 땅을 두졌다.

그 이듬해. 해방을 맞이했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동정은 해방과 함께 사랑으로 번져져 마침내 가정을 이루었다.

해방은 이들에게도 땅을 주었다. 아버지는 나라에서 준 땅 3천평에 제이름 석자가 적힌 표말을 박고 난생처음 제땅을 갈아엎었고 어머니는 그 땅에 행복의 씨를 뿌렸다. 그뿐이 아니었다.

땅밖엔 모르던 아버지는 불모의 망으로 버림받던 그 개바닥마저 흙을 저날라다 메우고 논으로 풀었다. 두손을 부지런히 놀리고 땀을 흘리는것만

큼 께작하나 성한것 없던 집에 살림살이가 몰라보게 늘어나고 행복의 날가리는 날로 높아만갔다.

그 나날속에 내가 태어나고...

그럴수록 어머니는 이 나라가 귀중했고 자기를 구원해준 남편이 《사랑의 단지》, 《행복의 단지》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 《단지》가 금이 갈세라 깨어질세라 마음을 써왔지만 전쟁의 포화속에 산산이 부서져나갈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다....

어머니는 청명경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다. 더이상 그자리에 앉아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어 나는 방문을 나섰다.

가뜩이나 흐린 날씨에 달까지 없고보니 주위는 동굴속처럼 어두웠다. 길바닥이 미끄러웠다. 아마 소리없이 내리는 보슬비가 어느새 마르고 튼 동구길을 축축히 적서놓은 모양이었다. 봄비가 내리는데도 날씨는 아직 쌀쌀하다고 할 정도가 아니었다. 차고 눅눅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가 내볼때마다 입김이 담배연기마냥 뿜어져나왔다.

불시에 나는 저멀리 마을을 지나 한눈에 바라보이는 《꽃벌등판》에서 무겁게 드리운 어둠을 밀어내려는데 세차게 타오르는 한점의 불꽃을 발견할수 있었다. 그 불꽃은 어머니의 모습같이 보였다. 분명 어머니가 저곳에 있을것이다.

나는 허겁지겁 《꽃벌등판》으로 내달렸다. 화불은 기폭처럼 타오르는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불빛에 주변의 모든것이 대낮처럼 환하게 내려다보였다.

그런데 이게 뭔가. 방금 파놓은 교회석, 교회석이 내 눈앞에 무드기 쌓여있지 않는가! 마치 요지경속을 헤매는것 같았다.

그러나 꿈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한응큼 움켜쥐었다. 이것때문에 내 마음속 고충이 얼마나 컸던가.

나는 한길이나 올리워였다. 목청껏 만세라도 부르고싶은 심정이였다. 이 귀한 나의 생명과도 같은것을 찾아놓고 어머니는 어데로 갔는가.

나는 주위를 살폈다. 내가 선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버지의 봉분이 찬비를 맞으며 고즈덕이 솟아있었다. 그 무덤앞에 어머니는 홀로 얼마나 사람마냥 앉아계셨다. 가볍게 오르내리는 좁은 어깨...

어머니는 울고있었다. 천만뜻밖의 일이었다. 어머니가 울다니... 교회석을 찾은 이 기쁜 때...아니 아버지의 묘가 있는 이 등판에서 교회석이 나오다니. 그렇다면 어차피 우린 아버지의 산소를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머니가 저렇게...

아, 나는 가슴을 쳤다.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도 모르고 나하나 생각만 하면서 만세를 불렀으니 내 얼마나 꿈처럼 미련한 놈인가.

나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눈이 강산처럼 쌓인 벌판, 어머니의 흩어진 검은 머리채, 정신없이 눈무지를 헤매며 남편의 시신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 시신을 업고 등판으로 오른 어머니를 찾아서럽게 울며 눈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린 나, 발자국에 휘뿌려지던 눈보라 눈보라...

《엄마야... 엄마...》

《명국아, 제발 소리를 내지 말아라.》

참고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들의 입을 막던 어머니, 그앞에 쌓여지는 아버지의 봉분, 피가 터져 흐르는 어머니의 손끝.

《엄마... 이거...》

어머니를 도와 고사리같이 만문하고 새빨강계 언 작은 두손으로 철없이 받쳐든 한줌의 눈썹인 흙, 다시 피와 눈물로 한치한치 쌓여지던 그날의 저 봉우리... 그해 겨울을 넘기지 않고 다시 완공한 저 묘소, 해마다 한가위가 오면 어린 내 손목을 잡고 이곳으로 찾아와 《명국이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해요. 반대없겠죠.》 하고 속생각을 터놓고 마음의 아픈 상처도 달려가며 홀로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어머니. 오늘은 또 내가 어머니의 본생대로 다 큰 자식들을 거느리고 이곳을 찾아오군했다. 지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것인가.

나는 어머니결으로 한결을 한결을 다가갔다.

어머니는 어느새 나를 알아보고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무덤곁에 이끌어 세워주었다.

《명국이가 왔어요. 여보... 절 용서하세요. 지난 날 제가 명국이를 잘 키우노라고 애써왔지만 당신의 뜻을 옳게 있도록 잘 이끌어주지 못했으니... 당신에게야 농사를 잘 지어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생각밖에 더 있었나요. 그런데 명국이는 당신의 뜻을 이을 생각을 못하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혼교시를 더 잘 관찰하기 위해 애쓸 대신 비료타발만 하면서 작업반장을 못해먹겠다고 하는게 안타까와 내 오늘 울었어요. 며칠전에 고문관리위원장이 명국이때문에 야단났다는 소리를 하길래 따져물으니 교회석때문에 그런다질 않겠어요. 그래 내 어제 그게 어떤 흙인가 해서 교회석을 캔다는 3반에 가보니 당신의 무덤을 파던 때 나오던 그 흙과 꼭 같더군요. 곡괭이로 언땅을 파제긴 뒤부터 너무 쉽게 파져 무덤자리를 잡 못잡았는가 해서 재빛흙을 한웅큼 움켜보던 생각이 들질 않겠어요. 그래서 삽과 곡괭이를 들고 아래쪽 등판을 파보니 정말 재빛흙이 나오질 않겠어요. 내 너무 기뻐서 명국이와 의논해보려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가서 내놓았다가 실망하고 나혼자 올라와 등판 여기저기를 파보니 글씨가 <꽃벌등판>에 교회석이 한벌 쪽 깔려있구려... 이젠 됐어요. 당신이 바란대로 명국이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의 유혼교시대로 비료를 듬뿍듬뿍 내어 해마다 만풍년을 가꿔가도록 내 이 사람의

등을 떠밀어주게 됐으니...

애아버지야, 우리 래일부터라도 <꽃벌등판>에 깔려있는 교회석을 캐내어 아버지처럼 농사를 더 잘 지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꾸나.》

어머니는 나의 등을 정답게 쓰다듬어주었다.

나는 어머니의 속깊은 마음이 뜨겁게 안겨와 대번에 두눈에 눈물이 펴 고이였다.

나는 지금껏 어머니의 마음속엔 돌아가신 아버지생각밖에 없는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즘도 부지런히 아버지산소에 오르는줄로만 알았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어버이수령님의 유혼교시를 어김없이 관찰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신줄도 몰랐으니 나야말로 눈뜬 소경이었구나. 이런 자책이 머리를 스치자 나는 한순간에 철이 번쩍 드는듯싶었다. 오늘 어머니가 어찌하여 아무말없이 삽을 들고 《꽃벌등판》으로 올랐는지, 어찌하여 교회석을 찾아놓고도 아버지묘앞에서 어깨를 가볍게 들먹이며 우셨는지 그 모든 사연이 다 헤아려져 속으로 조용히 뇌이였다.

(아버지, 보십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를... 열매의 밑거름만이 아닌 아버지의 넋이 스민 인생의 밑거름을 송두리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것을 밑거름으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오직 기쁨만을 드리는 실농군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눈빛만 보고도 내 속마음까지 다 헤아리신듯 여전히 잔등에서 손을 내리우지 못하며 말하였다.

《애아버지야, 네 결심이 옳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의 아버지 수령님께서 바라신대로 바로 오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이 땅에 묻혔구. 우린 그렇게 지켜낸 이 땅에서 세 세년년 만풍년을 가꾸기 위해 이 땅에 사는게 아니겠느냐? 저길 보아라. 저 벌판을 말이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피흘리며 쓰러진 렬사들이 우릴 지켜본다.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말이다. 그 눈길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것이 먼저 간 렬사들을 존대하구 그들의 넋을 지켜가는게 아니겠니.》

(어머니!)

나는 친근한 어머니의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다. 어머니는 뜨거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다. 어머니는 일생 그 눈빛으로 자식의 과거와 현재를 지켜보며 살아왔다.

그 눈길은 곧 렬사들의 눈길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앞에 펼쳐질 래일의 풍년든 가을을 그려보았다. 드넓은 대지에 뿌리를 깊이 박고 알알이 여문 이삭을 묵묵히 받들며 늣실 늣실 설레이는 황금의 벼바다를. 그 황금의 벼바다는 뿌리가 있어 그리도 알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들도 어버이수령님의 주체농법을 받들어 줄기차게, 성실하게 이어나갈 때 우리 조국의 휘황한 앞날이 기약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잊지 않도록 채찍같은 《눈길》로 매질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면서 마침내 이 아들을 옹운 길로 이끌어준 나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이런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며 저멀리 동터울 태양속에 약동할 마을의 새벽전경을 새로

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때로부터 몇시간후 눈부시게 밝아오는 새날을 맞으며 붉은기 필력이는속에 온 마을이 떨쳐나 《꽃벌등관》을 들었다놓으며 교회석채취전투가 벌어졌다. 그것은 이 땅을 기름지게 가꾸어 해마다 만풍년을 안아올 래일을 위해 렬사의 후손들, 어버이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실천해가는 또 하나의 새 모습이었다.

타오르는 노을속에 붉은 대지는 장엄하게 누워 그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오래도록...

다시 백두산정에 올라

(총련)맹복실

내 오늘 다시금 올랐다
백두대산줄기는 삼천리로 뻗어내리고
조선의 넓깊이 뿌리내린
여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백두의 딸로 한생 빛내갈
맹세다지며 떠나간 백두산에
가장 숭엄한 마음안고
내 오늘 다시금 서있다

오르면 오를수록
그 신비로움
그 아름다움에
눈굽이 젖어들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슬기로움
그 숭고함에
무심히 설수 없는
너 백두산이여

너의 산정에 오를수록
너는 더욱 높게만 느껴지고
천지의 푸른 물은
더욱 깊게만 느껴지니
내 언제면 네 지닌 뜻
다 새겨안을수 있으랴

만고풍상에 꺾이고 찢긴
바위돌이며
해묵은 키낮은 나무들이며

눈속에 피여웃는 두메꽃들은
날 반기며 조용히 속삭여주누나

천년세월 백두와 함께 산대도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 거룩한 자취
쉬이 지닐수 없고
백두의 혈전만리 헤쳐온
항일선렬들의 피어린 자욱
다 더듬지 못하리니

백두의 정신
백두의 넓을 알려거든
여기 오르고 또 오르라
조선의 높이
조선의 심장을 알려거든
백두산과 숨결을 같이하라

백두산의 높이는
조선의 높이
위대한 수령님 개척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 이끄시는
우리 혁명이 추켜든 승리의 높이

아 백두산의 높이는
장군님 받들어
내 한생 오르고 오를
충성의 높이
신념의 높이
백두의 딸 조국앞에 비쳐보는
변함없는 량심의 높이여라!

샘물집처녀

박원성

재령나무리벌에 취재를 나와있던 어느날 점심 시간에 농장 외래자합숙호실에서 오늘호 신문을 펼쳤던 나는 어느 한 기사내용에 눈길을 박았다.

나는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제도 오늘도 기세를 늦추지 없이 계속 전진하며 알곡생산을 높여가고있는 내 고향의 소식이다.

고향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나는 뿔어오르는 흥분을 누를길없어 밖으로 나왔다. 하늘과 잇닿은 저멀리 벌끝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결을 타고 한쌍의 백학이 나라를 너울거리며 이쪽으로 날아오고있다.

누렇게 익은 영근 벼이삭들이 나를 반겨맞듯 넘실넘실 굽닌다.

슬쩍 다치기만 하여도 와르르 떨어질것만 같은 두렁콩들이 가지마다 오종종 매달린 논두렁을 나는 걷고있다.

가을! 낱알향기가 온 들판에 나래치는 가을... 넓은 벌을 바라보느라니 고향마을의 가을풍경도 가슴흐뭇하게 안겨드느것만 같다.

이날을 맞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들길을 걸었으랴. 고향땅에 펼쳐진 흐뭇한 가을을 려상해보려니 한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밟혀온다.

벼이삭을 그러안고 불을 비비적이며 기쁨에 젖어 있는 그는 《샘물집 처녀》였다.

왜서인지 그에 대한 추억이 못견디게 가슴을 파고든다.

우리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물려오는 자그마한 샘터가 있다. 밀기둥이 활동처럼 휘우듬한 향나무 밑에 움푹하니 패여져있는 샘물터.

잔물결을 바글바글 끓이며 샘물기가 뽕뽕 솟구친다. 녀인들이 노란 바가지를 들고 마주설 때면 고을 얼굴을 거울처럼 비쳐주어 마음을 상쾌하게 휘젓던 정가로운 샘물. 샘터를 초록색으로 둘러감은 이끼는 또 얼마나 부드러웠던가.

샘터앞에 있는 남향반이집을 우리는 《샘물집》이라고 불렀다. 집집마다 수도물이 팔팔 쏟아져 물걱정을 몰랐지만 무슨 연고로 해서인지 나와 동갑또래의 조무래기들은 샘터주변에 오구구 모여앉아 샘물도 마시고 꼬니도 두면서 놀기를 좋아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을 어른들로부터 물려받은 풍습에서였던것 같다.

마을사람들은 여름이면 샘터근방에 명석을 깔고 하루동안에 있는 사밀사로부터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밤시간을 보내기를 즐겨했던것이

다.

이런 때면 샘터는 흥성이었고 고향의 정서는 더욱 이채롭게 펼쳐지곤했다. 그런 까닭에 양지마을의 샘터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 샘터를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다.

그 《샘물집》에 이쁘게 생긴 막내딸이 자라고 있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엔 다닐 때 그는 겨우 인민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연령차이는 심했지만 《샘물집》이라는 터세를 부리는 까닭에 우리는 종종 그를 데리고 놀곤하였다.

내가 그 《샘물집》을 떠나 도시로 온지도 십여년이 켜 지나갔다.

나는 올해 여름에 취재차로 고향에 갔던 기회에 그를 만나보았었다.

숙성한 처녀, 농장선동원으로까지 자라난 조금 일군이였다.

그때 나는 반가움과 함께 혁신자라는 깊은 인상으로 처녀를 여겨보았다.

도적으로 풀거름생산을 제일 많이 낸 류경숙...

나는 양지골등성에서 그를 만날수 있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삽으로 떠주는 폐장을 날라다가 무지를 만들고있었다. 온 식구가 하루일을 끝낸후에 짬짬이 달라붙어 무저놓은 폐장무지가 양지골등판에 커다란 누에막처럼 놓여있었다. 그런 폐장무지가 양지골말고도 마을앞벌 번두리를 따라 여러군데 만들어져있다고 한다.

나는 휴식시간에 그의 아버지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십니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면서도 정작 손을 대지 못하는 일을 <샘물집>에서 해내고있군요.》

《그런 말 말게, 우리만이 아닐세. 나도 처음엔 우리 애가 풀거름생산을 한다고 하면서 천톤소리를 할 때 엄하게 말했지. 사람은 말부터 앞세우는 버릇을 배울게 아니라 말없이 일하는 근로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네. 우리 농사군들에게서 근면성을 빼버리면 허울만 남을게 아닌가.》

대답없이 잠자코 있기에 이 애비의 혼시가 바로 들어박힌가 했는데 웬걸, 논판에서 들어오는 길로 곧장 양지골로 오르더군. 그 애가 하도 극성을 부리길래 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해서 뒤를 따랐네. 그랜 양지골로 가더군. 거기서 삽으로 폐장을 떠서는 날라다 무지를 만들고있는게 아니겠나. 그러면서 나더러 하는 말이 <아버지, 폐장 한

장에 쌀 한키로가 나온다는데 우리가 힘이 든다고 물려서면 나라의 쌀독은 누가 맡아 채워주겠나요.> 하면서 자기는 천돈이 아니라 삼천돈은 꼭 해내겠으니 딸을 믿으라고 말하더군.

나는 그 애의 오돌찬 소리에 내 자식이 결코 쪽정리로 자라지는 않았구나 하고 마음을 놓게 되더군.»

그의 가식이 없는 이 말에 나는 순간에 모든것을 이해할수가 있었다.

《샘물집처녀》의 소원. 고향의 딸이 되어 농사를 잘 짓는것으로 제 고향을 빛내이고 쌀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가며 그 길에서 삶과 행복을 찾는 기특한 처녀.

눈앞에 바라보이는 풀거름무지가 어찌 떼장으로 쌓이고 덮이운 무지라고만 하랴. 거기에는 온 농장벌을 기름지게 걸구어 풍년작황을 이룩하려는 그의 충효의 마음이 한층한층 쌓여진 탑이 아닌가.

보이는 풀거름보다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탑이 더 높은 《샘물집처녀》.

그에게는 잠시 지게다리에 기대이며 쪽잠을 잘 그런 시간조차 아까왔을것이다.

새벽이슬로 바지가랭이를 화락하니 적시며 풀밭을 헤칠 때 생각은 얼마나 많았으랴.

하지만 그는 자기가 걷는 한걸음 한걸음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해가는 걸음이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임을 너무도 깊이 새겨안았다. 그래서 그는 어제도 뛰고 오늘도 뛰며 래일을 더 빨리 달리려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언제나 농사문제로 걱정하며 사는 《샘물집처녀》.

가사

그도 마을 조무래기들처럼 빨간 멜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고 큰 아이들을 따라 팔기밭에 뛰어 들어서는 숨을 할딱거리며 종아라 떠들던 천진한 소녀였다.

그처럼 소박하고 평범했던 소녀가 오늘은 나라의 쌀독을 채우자고 마을사람들의 앞장에서 달려왔다. 그를 따라 청년들이 달리고 온 마을이 떨쳐났으니 고향땅은 그들의 땀방울을 머금어 그리도 흐뭇한 계절을 맞았던가.

어찌 내 고향뿐이라.

눈뿌리 아득히 설레이는 가없는 저 들판을 보라.

나는 고향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서있는 이 벌을 가꾼 사람들을 생각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정성이 어린 저 들판.

벼이삭들이 나의 온몸에 휘감길듯 바람타고 어리광부린다.

이 벌에도 수많은 《샘물집처녀》들과 《고향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지성이 숨배여있다.

그렇다. 땅의 주인들은 어디서나 그렇게 살아왔다.

그 어느 농장벌을 둘러보라!

그러면 《샘물집처녀》들이 들바람에 타고 비에 씻기어 한층 아름다와진 얼굴로 가을을 맞고있을것이다. 그들이 자기 고향, 자기의 농장벌을 그토록 사랑하고 진정을 바쳐가고있으니 내 조국의 가을은 해를 가며 더더욱 풍요해질것 아닌가.

나의 눈엔 부강하게 다져지는 내 나라의 기상이 어려온다.

나는 이곳에서도 만나게 될 《샘물집처녀》를 표상해보았다.

추억이 없다면

김선지

우리의 추억은 우리의 추억은
시련을 뚫고온 보람찬 낮과 밤
언제나 즐거움에 돌이켜보는
내 조국을 빛내온 나날이라네

아 추억이 없다면 추억이 없다면
우리 사는 보람 그 무엇이라

우리의 추억은 우리의 추억은
청춘의 심장을 불태운 날과 달
언제나 영광속에 돌이켜보는
값있는 삶 빛내온 긍지이라네

아 추억이 없다면 추억이 없다면
우리 사는 보람 그 무엇이라

우리의 추억은 우리의 추억은
우리 당 구상을 펼쳐온 나날들
세월이 흘렀다고 그 나날 잊으랴
생활이 풀렸다고 마음 늦추랴

아 추억이 없다면 추억이 없다면
우리 사는 보람 그 무엇이야

원형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집단경리의 위대한 생활력을 진실하게 형상한 예술적화폭

-중편소설 《프락포르운전수일가》를 읽고-

백영철

어떤 인간과 생활을 그리며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수법으로 그에 해답을 줄 것인가. 시대와 인간, 그들의 생활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긍정, 창작적사색과 새것의 탐구로 이어진 보람찬 창조의 나날에 작가들이 써낸 새롭고 특색있는 작품들을 대할 때면 독자들은 자기 성과처럼 기뻐하며, 긍정적주인공들처럼 일하며 생활하려는 충동에 휩싸이게 된다.

최근에 발표된 중편소설 《프락포르운전수일가》(김병익 작)가 우리 문단을 의의있게 장식하고 독자들을 기쁘게 한 것도 결국은 작가가 우리 시대의 참된 전형과 생활자료에 기초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새롭고 특색있는 형상으로 그것을 풀어나간 데 있다.

이 소설의 작가는 실재하는 원형과 생활자료에 기초하여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프락포르운전수일가의 형상을 통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집단경리가 농민들을 어떻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있으며 사회주의농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가를 감명있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힘있게 확증하고 있다.

중편소설 《프락포르운전수일가》는 평범하고 소박한 프락포르운전수 박성국일가가 어떻게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처럼 믿고 사랑하시는 시대의 참다운 영웅으로, 온 나라가 다 아는 사회주의농촌의 전형으로 자라나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주의만이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여주는 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의 리상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은 농민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고 농업이 공업화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풍요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는 농촌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 농민문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농업의 공업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농촌이 도시를 닮아가고 있으며 농민들이 자주적이며 창

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실로 우리 나라 농촌은 락후와 빈궁에서 허덕이던 그전날의 농촌이 아니며 농민들도 가대기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던 그전날의 농민이 아니다.

중편소설 《프락포르운전수일가》에서 온 가정 모두가 프락포르운전수로 일하는 박성국일가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전날 같으면 온 가정 모두가 프락포르운전수가 되리라고 꿈에서인들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지난날 박성국의 선조들인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술한 땅을 일구었으나 한뼘기의 땅이 없어 대대로 머슴을 살았고 소가 없어 가대기로 땅을 푸저야만 했었다. 이처럼 가난과 고역에 시달리던 성국의 가정에서 오늘은 14명의 농촌기계화초병들이 자라난 것이다.

박성국은 농업근로자들은 누구나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고 프락포르를 몰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새기고 가정 프락포르운전수대렬을 14명으로 늘이고 작업반원모두에게 운전기술을 배워주었으며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90프로이상으로 끌어올리었다. 그 과정에 첫 9명의 운전수들은 의젓한 조선로동당원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농기계기사로 자라났으며 박성국은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으로 되고 그의 안해는 공훈프락포르운전수의 영예를 지니었다. 그후에도 박성국가정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작업반을 하나씩 맡고나가 기계화작업반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이러한 나날에 박성국과 그의 안해 정신화는 아버지수령님을 몸가까이 뵈옵고 과분한 치하의 교시와 편지까지 받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듯하고 세심한 손길아래에서 농촌기계화본보기 가정, 《기계화가정운동》 선구자의 영예를 지니었다.

프락포르운전수가정의 이러한 성장과정은 우리 인민이 세기를 두고 념원하던 리상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이 로동당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성과적으로 실현되어가고 있으며 농촌체제를 관철하는 길만이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농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길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황해남도당의 책

임일군들과 군당책임비서들이 참가한 회의에서 군종합농장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그만 하면 공산주의시범농장으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었다고 만족하시면서 룡암분장의 박성국가정은 전수들의 그후 생활형편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물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던것이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농촌문제에 대한 테제를 내놓고 룡연군을 비롯한 일부 군들을 종합농장으로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하여온것은 군을 거점으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고 공산주의적으로 관리운영하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경험을 얻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시다. 우리가 농촌테제를 발표하고 30년 가까이 경험한데 의하면 당의 로선이 매우 정당하였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오늘 룡연군종합농장의 박성국, 정선화 동무의 가정에서 기계화운동의 불씨가 지펴지고 그 운동이 전국의 농촌부문들에서는 물론 공장과 광산 그 어디서나 불길로 타번지고있는것은 그 생활력의 단편적인 실례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박성국의 가정처럼 온 나라 농촌가정들이 로동계급화되고 기계화가정으로 된다면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의 중국적해결은 더욱 빨리 실현될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박성국가정이 이처럼 아버지수령님의 치하의 교시를 받는 농촌기계화의 선구자가정으로 자라나게 된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다.

정녕 돌이켜보면 아버지수령님께서 바다바람 세차고 사람 못살 불모의 땅이였던 룡연군에 찾아오시여 전민소유제의 군종합농장을 무어주시고 공산주의시범농장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그때로부터 그리고 수령님의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산천도 변하고 사람들도 정신생활과 일면새에서도 놀라운 변혁을 가져왔다. 이 놀라운 변혁의 나날에 박성국가정과 같은 기계화가정이 자라났으며 그러한 가정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평범하고 소박한 한 트랙토르운전수가정의 형상을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준 바로 여기에 중편소설 《트랙토르운전수일가》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가 있다.

이 작품이 독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며 그들속에서 널리 읽히우고있는것은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정리의 우월성을 체현한 실재하는 원형과 생활자료에 기초하여 주체형의 인간전형

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낸데도 그 비결이 있다.

실재한 원형에 기초하여 긍정적주인공들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것은 긍정적모범이 지배적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오늘의 우리 나라 현실의 절실한 요구이며 창작된 작품의 진실성과 생동성, 예술적감화력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공산주의적미풍을 적극 내세우고 널리 소개선전하며 그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전사회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작가들이 당의 이 요구를 빛나게 실현하자면 공산주의적미풍선구자들이 수많은 배출되고있는 오늘의 벽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원형으로 하여 긍정적주인공들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한생을 성실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시대 인간의 전형을 훌륭히 그려낸 무수한 작품들은 례외없이 독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널리 읽히우며 그들에게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을 안겨준다.

원형과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해야 하는것은 그것이 예술적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확고히 담보해준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원형과 사실자료는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가식이 없는 예술적형상창조의 현실적바탕, 창조적원천이다.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속에서 수많은 배출되고있는 긍정적모범에 의거하여 형상을 창조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꾸밈내기를 한다면 류행적이며 도식적인 형상밖에 나올것이 없으며 현실의 본심도 외곡하게 된다.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정치적식견이 높고 박식한 작가라 할지라도 도저히 따를수 없으리만큼 심오하고 폭이 넓으며 풍부하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원형과 생활자료에 대한 탐구와 사색을 끊임없이 깊이있게 하여야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집약적으로 체현한 전형적형상을 진실하게 강조해낼수 있다.

작가들은 또한 원형과 사실자료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그가 창조한 예술적형상이 생동한것으로 꽃피여날수 있다.

현실의 긍정을 원형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그의 구체성과 생동성, 비반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현실은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현실만큼 비반복적이고 개성적인것은 없다. 작가의 창작적환상과 허구가 아무리 풍부하다고 하여도 현실의 다양성과 구체성, 비반복성을 도저히 따를수도 대신할수도 없다.

실로 작가가 원형과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환상과 허구의 도움으로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것은 진실하고 생동한 예술적형상창조를 위한 원칙적 요구이다.

원형과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원형을 똑바로 잡고 그것을 일반화와 개성화의 요구에 맞게 전형화하는것이다.

중편소설 《프락포르운전수일가》의 작가는 원형을 똑바로 끌라잡고 그것을 비교적 진실하고 생동하게, 품위있게 형상하고있다.

작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원형을 똑바로 끌라잡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리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 소설의 작가가 창작적관심을 돌리고 묘사대상으로 잡은 룡연군종합농장으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의 거룩한 자욱이 력력히 찍혀있는 고장이며 룡연의 프락포르운전수가정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농촌기계화의 본보기가정일뿐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보살피심속에서 사는 《농촌기계화운동》의 선구자가정이다.

실로 룡연군종합농장과 이고장의 프락포르운전수가정은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의의깊은 고장이며 본보기가정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에 지리도 못살던 룡연사람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고 가난을 없애주시려고 땅도 개간해주시고 비료도 보내주시면서 친어버이심정으로 이고장의 농사형편을 보살펴주시었다.

그러시고도 부족하시여 1959년에는 룡연군에 국영종합농장을 무어주시고 나라에서 많은 돈을 들여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빠짐없이 보내주시면서 그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그리하여 어제날 피멍이 들도록 가대기를 끝던 룡연사람들은 부러운것 없이 다 잘살게 되었고 일손이 많이 드는 농사를 기계로 하기 시작하였다.

공훈프락포르운전수 정선화의 남편도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프락포르운전수가 되어 넓은 룡연벌을 기운차게 갈아엎게 되었다.

그러던 1960년 9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룡연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알아보시려고 멀리 서해기슭이 자리잡은 군종합농장에까지 몸소 찾아오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때에 벌써 농업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며 일을 험하게 하면서도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자면 프락포르운전수를 많이 양성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농업근로자들이 남자나 여자나 할것없이 누구나 다 프락포르를 몰줄 알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을 다녀가신 뜻깊은 그날밤, 정선화의 가족들도 한자리에 모여앉아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말씀을 되새기며 수령님의 교시를 드림없이 관철해갈 방도를 하나하나 의논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뵈옵던 감격을 이야기하며 눈굽을 훔치던 정선화의 시아버지는 그날밤 지난날의 가슴쓰라린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아들딸 모두가 프락포르를 배우며 앞으로 머느리들이 들어와도 프락포르운전수가 되어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는 기계농사를 보란듯이 지어보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가정에서는 모두가 프락포르운전법을 배우는 일에 앞을 다투어 나섰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프락포르를 원만하게 몰수 있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1974년에 열린 전국농업대회때에는 정선화를 참가시켜주시고 그 이듬해 전국농업대회에는 그의 남편을 불러주시여 대를 이어 길이 전할 귀중한 선물과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또한 1974년 3월 어느날 정선화의 가정 9명이 모두 프락포르운전수로 일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런 가정이 농촌의 본보기라는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까지 하여주시였으며 1978년 1월에 성대히 열린 전국농업대회에서는 또다시 그들 부부를 부르시여 남편은 영광의 주석단에 앉혀주시고 안해 정선화에게는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토론하는 영예까지 지니게 하여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대회에서 또다시 정선화의 가정은 농촌기술혁명의 앞장에 선 기계화본보기가정이라고 치하의 교시를 주시였으며 정선화와 그들 부부가 다루는 프락포르는 13년동안 한건의 고장도 없이 새차와 같이 달리고있으며 그의 시동생들이 다루는 4대의 프락포르들에 다 시동전동기를 달아 많은 연유를 절약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는 이런 영웅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강대한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다음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크나큰 사랑을 베푸시여 남편에게는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여주시였으며 정선화에게도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귀중한 선물과 공훈프락포르운전수의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대회참가자들의 축복속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남편과 공훈프락포르운전수칭호를 수여받은 정선화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또하나의 감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있었으니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들의 가정에 선물프락포르와 함께 《기계화가정운동》의 선구자로 내세우도록 해주신것이였다.

중편소설 《프락포르운전수일가》의 작가는 이처럼 아버지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프락포르운전수일가를 원형으로 하고 그들의 실생활자료에 기초하여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며 창조의 나날을 창작적열정속에서 보람있게 보냈기때문에 성과작을 내놓을수 있었다. 이런 인물, 이런 가정의 실생활에 기초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체현한 긍정적주인공들의 전형적성격을 빛나게 창조하지 못하는 작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작가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중편소설 《프락포르운전수일가》가 거둔 사상 예술적성과의 다른 하나는 작가가 박성국을 비롯한 주인공들의 성격을 전형화하는데서 일반화와 개성화의 요구를 옹계 해결한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의 성격을 전형화하는데서는 개성화와 일반화의 요구를 옹계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 작가는 실지 있는 인물의 자료에서 깎을것은 깎고 돌굴것은 돌구면서 성격의 본질적특성이 두드러지게 살아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일반화와 개성화의 요구를 해결하는것은 원형취급에서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형상원칙이다.

원형취급에서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는 전형을 일반화하는것이다.

원형에 대한 형상은 전기식으로가 아니라 일반화하여 예술적전형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에 의거하여 형상한다고 하여 전기식으로 쓰면 그것이 예술적전형을 창조하는 목적과

어긋날뿐아니라 작품이 기록주의에 떨어지고 예술적품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결국 예술적흥미도 잃고만다.

그러므로 작가는 전적으로 원형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예술적환상을 동원하여 형상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원형에 기초하여 형상을 일반화하자면 등장인물들의 성격에 어떤 계급, 또는 계층이 공통적으로 체현하고있는 본질적특징을 체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민들이 지니고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도덕적풍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여기는것이다. 수령, 당, 대중 앞에 지닌 사회적의무에 대한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에 우리 인민만이 지니고있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가 있으며 여기에 또한 90년대 인간들의 삶의 철학이 있고 주체의 미학관이 있다.

중편소설 《프락포르운전수일가》의 박성국가정

은 수령, 당, 대중 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혁명적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것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것으로 여기는 충신, 효자들의 가정이다.

박성국의 가정에서는 한피줄을 나눈 형제들도 있고 나서자란 고향이 서로 다른 매부며 안해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각기 자기나름의 삶과 행복, 안락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들이야말로 시대적량심의 거울앞에 몇몇이 설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박성국일가가 한생을 프락포르를 물며 자신을 비추어보는 량심의 거울은 어떤것인가?

박성국가정은 의심할바없이 한 농촌의 평범한 가정이지만 그들의 량심의 거울은 보통사람들의 것과 결코 같다고 말할수 없다.

그들이 지니고있는 시대적량심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박성국과 그의 안해 선화, 박성국의 형제들과 제수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위대한 농촌테제를 이 땅우에 꽃피우는것을 삶의 목표로 여기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다진 맹세를 기어이 실천에 옮기기 위한 충성의 한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있다.

박성국은 바로 이러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안해가 떡돌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기별을 받고도 얼씬하지 않고있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테제를 발표하신 그날에야 집으로 돌아오자바람으로 그날이 바로 수령님께서 농촌테제를 발표하시여 우리 농촌이 나아가야 할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날이라고 하면서 자기 애의 이름을 일봉이라 짓자고 하는것이다.

일봉이, 얼마나 뜻깊은 이름인가!

농촌문제해결에서 거대한 전환점이 될 그날을 잊지 말고 승리의 봉우리를 향하여 한마음 변함없이 일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인것이다.

박성국은 그날의 맹세를 지키여 헌신분투함으로써 로력영웅이 되고 남은 인생을 명예만을 소중히 지키면서 살아갈수 있는 오늘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겠는가 마음쓰며 스스로 일감을 찾아 제때에 해제긴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군당책임비서 지정남에게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하루빨리 실현하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뜻이자 당의 의도이므로 이제는 가정의 울타리, 작업반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기네 형제들이 다른 작업반을 하나씩 맡아 일한다면 분장을 기계화분장으로 만들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는것이다.

이것은 박성국이 삶의 의의와 가치, 기쁨도 행복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받드는 한길에

서 찾고 빛내어나가는 우리 시대의 참된 전형, 시대적량심과 의리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충신이라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실례에 불과하다.

매 인물의 성격적핵을 개성적으로 선정하고 깊이 파고드는것은 예술적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작품에 그려지는 인간형상은 개성적일수록 진실하고 생동해진다. 작가들은 인물의 성격을 전형화하는 과정에 그의 개성적특징들을 이모저모도 두리몽실하게 만들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모가 나게 둔구어야 한다. 등장인물의 개성적성격을 통하여 새롭고 의의깊은 인간문제를 밝혀내는 여기에 진정한 창조의 세계, 형상세계가 있는 것이다.

중편소설 《프락포르운전수일가》의 작가는 매 인물의 성격적핵을 개성적으로 파악하고 전형화함으로써 그들의 개성적특징들이 모가 나게 둔구어냈다.

소설의 주인공 박성국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박성국의 끝없는 충성심은 그가 프락포르라면 광적인 애착을 가지고 한생토록 녀을 바쳐 살아가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박성국은 우리 농민들을 하루빨리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키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프락포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노는가를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누구보다 더 잘 알고있기때문에 프락포르를 자기 육체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있다. 박성국부부가 다루는 프락포르가 13년동안 한건의 고장도 없이 새 차와 같이 달리고있다는것은 프락포르에 대한 성국의 애착이 어느정도인가를 짐작할수 있다. 바로 이런 애착으로 하여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허구한 그 나날에 박성국형제들은 혈육으로서만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동지로 맺어졌으며 일심동체로 되었다. 하여 그들은 인간으로서, 가정으로서 도달할수 있는 행복중의 커다란 행복의 상상봉에 오를수 있었다.

박성국은 또한 입이 무겁고 그만큼 속이 깊을 뿐아니라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으로서 한번 일에 접어들면 하늘이 무너진대도 끝장을 보는 성미이며 제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며 기계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농사일을 손이나 등짐으로 하는것을 제일 싫어한다.

땅크병출신이며 이전에 박성국의 책임운전수였던 군당책임비서 지정남 역시 개성적인 면모가 엿보이는 당일군의 한사람이다. 그는 성미가 호방하고 틀라리는것은 좋아하지 않을뿐아니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것을 좋아하며 그들과 인차 친숙해지군한다. 그의 이러한 사업작풍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에서 언제나 좋은 결실을 가져오군하였다.

그런가하면 차민호의 만팔 차단심과 우점심의 딸 영금이는 성격이 대조적인 인물들이다. 차단심이 성격이 쾌활하고 개방적이며 사내같이 속이 트인데다가 일욕심이 많은 인물이라면 영금은 내성적이어서 비교적 꿈하다고 할 정도로 속에 품은 생각을 함부로 내비치지 않는 성미이다.

이것은 이 소설의 작가가 매 인물의 성격적핵의 개성적표현과 그들의 기질상특성들을 비교적 생동하게 표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중편소설 《프락포르운전수일가》가 성과작의 하나로 될수 있는 그 비결의 다른 하나는 작가가 온 나라가 다 알며 따라배우는 프락포르운전수가 정을 원형으로 하여 문학적이야기를 꾸미면서도 긍정에 대한 열렬한 옹호정신과 함께 부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보여준데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긍정적인것만 있는것이 아니라 부정적인것도 아직 남아있다. 현실에 있는 부정적현상을 보고도 못본체하는것은 공산주의적태도가 아니며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작가의 량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 소설의작가는 정당하게도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곧 삶의 목표로 여기고 온 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히 이바지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라 혁명화되여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의 성격을 발전적견지에서 그렸다.

소설의 주인공 박성국은 철이 들어 일생에 잘못을 저지르고 비판을 받은적이 두번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에게서였고 두번째는 책임비서 지정남에게서였다.

성국은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고보니 그저 이 세상 논밭은 제 혼자서 갈아본대도 성차지 않을것 같아서 논두렁이 좁 마사지고 생땅이 좁 나오는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그때문에 그는 지정남에게서 호된 비판을 받았다. 프락포르운전수는 단순히 보탑대신 프락포르운전대를 잡은 농민이 아니라 농민들을 도우려고 농촌에 파견된 첫 로동계급이라는 견지에서 보아도 그렇고 상한 허리로 한치의 땅이라도 더 갈아보려다가 끝내 밧고랑에 쓰러져 일어서지 못한 성국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지정남의 이 비판은 박성국의 사상상병집을 고치는데 효능이 높은 보약이 되여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도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는것이다.

작가는 박성국의 매부이며 성옥의 남편인 차민호의 성격도 비판적견지에서 그리였다.

박성국이가 역척같이 믿고 가정의 기둥으로 여기는 차민호는 량심과 의리보다 한 가정의 명예를 더 귀중히 여기는 부족점을 가지고있었다. 이러한 병집이 차민호가 수리하는 프락포르에 올려놓을 머리부분을 되살려줄것인가 아니면 《꼭자반

장》이 구해온것을 쓸것인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차민호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가정의 《참모장》 답지 못한 립장과 태도를 취한다. 그는 자기 차에 쓰는것이므로 박성국의 낮이 깎이지 않으며 또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 하나 편안하자고 일해온것이 아니라 운전수가정의 명예를 생각하고 성국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애써왔는데 그것이 잘못인가고 하면서 성국의 제의를 고깝게 여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있어 자기 가정의 오늘의 명예가 있고 존재가 있다는 일념으로 한생을 변함없이 일해온 성국에게 있어서 차민호의 이러한 태도는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며 그저 스쳐보낼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차민호에 대한 박성국의 비판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부정적현상들에 대한 작가자신의 비판이기도 하다.

소설은 이밖에도 일봉이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이러저러한 부족점들을 두고 모대기며 바로 잡아주는 박성국의 형상을 통하여 프락또르가정의 고난과 시련에 찬 성장과정의 일단을 생동하고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중편소설 《프락또르운전수일가》의 작가는 소재의 특성과 창작적의도에 맞게 예술적허구를 옹계 받아들이었다.

작가는 환상과 허구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그 래야 이야기를 극적으로 흥미이게 꾸밀수 있고 실재한 사건이나 생활세부들을 형상과정의 필요한 대목에서 능숙하게 변형시켜 활용할수 있다.

이 소설의 작가는 실생활자료 가운데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변형시킨것도 있고 어떤것은 새롭게 받아들인것도 있다. 인물들의 경우도 사정은 매한가지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박성국과 그의 안해, 그의 형제들과 제수들, 누이동생과 매부 등은 다 원형에 의거한 인물들이다. 그리고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룡연군종합농장과 박성국가정에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과 배려, 믿음과 관련한 이야기, 인물들의 성격발전과 그 발전과정이 유기적으로 련관된 사건과 생활세부들도 실재한것들이거나 그와 류사한 것들이 적지 않다.

작가는 이와 같이 실재한 인물과 사건과 생활세부들에 기초하면서도 허구를 자신의 창작적의도에 맞게 능숙하게 활용하고있다.

이 소설에서 독자들의 매력을 끄는 우정심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우정심은 허구적인물이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작품이 제기한 인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담당한 몫으로서의 형상과제가 있으며 주인공의 성격적특징과 인간관계의 설정과 그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고향의 노래와 더불어 뜨겁게 맺어졌던 우정을 귀중히 여기는 박성국과 그의 가슴에 치욕과 멸시를 안기고 떠나가버린 우정심의 서로 상반되는

행동, 뜯어먹을것은 다 뜯어먹어 알몸뚱이 된 《09》호차를 되살려쓰겠다고 접어든 박성국과 그 결심을 철회해주기를 바라는 우정심의 각이한 립장과 태도는 그들의 성격적특징을 대조적으로 뚜렷이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차민호의 딸 차단심이기도 허구적인물이다. 단심은 박성국의 아들 일봉이와 함께 프락또르운전수가정의 두번째 세대로서 대를 이어 프락또르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어나가려는 그 가정의 확고한 신념과 의리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차단심은 프락또르를 타고 일하는 그 이상 마음에 들고 보람찬 직업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며 부부운전수로 일생을 살리라는 꿈을 키우며 언제인지 모를 그날을 향하여 한결 음한걸음 자욱을 옮겨가고있다.

박성국의 아들 일봉이와 우정심의 딸 영금이 사이의 애정선도 작가의 허구의 산물이다. 이 애정선을 박성국과 우정심의 성격적특징과 극적관계를 폭넓고 감명깊게 맺어주고 심화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독자들이 이 소설을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읽게 되는것은 작가가 실재하는 원형과 실생활자료에 기초하여 예술적환상과 허구의 도움을 받아 창조한 형상에 정서의 물결이 굽이치게 한데도 그 비결이 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서해기슭에 자리잡은 룡연군에까지 찾아오시여 박성국부부를 찾아주시던 그날의 전경묘사는 그 실례로 된다.

《저 멀리 불타산령봉들은 짙은 안개발을 가슴노리에 휘감고 아침해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리며 거연히 서있는데 아버지수령님을 그리고그리는 그들 부부의 마음은 그 령봉우에 나란히 간직되어있는듯싶었다.》

《시간은 바야흐로 흘러 아침의 붉은 해가 불타산마루우에 불끈 솟는데 마치 그 시각을 기다린듯 산허리에 휘감겼던 안개발이 서서히 피여오르며 봉이봉이 령봉우에 노을을 물들인다. 그 령봉들은 불길이 타고르는 봉화처럼 보이였다.》

《불타산령봉들은 짙은 안개발을 가슴노리에 휘감고 아침해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리며 서있는데》라는 표현이 꿈결에도 뵈고싶은 아버지수령님을 그리고그리는 박성국부부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깊은 정서속에 펼쳐보이고있다면 아침해가 불타산마루에 불끈 솟자 산허리에 휘감겼던 안개발이 서서히 피여오르며 령봉우에 노을을 물들인다는 표현은 기계화가정의 불씨를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과 더불어 수령님에 대한 박성국부부의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더더욱 깊은것이다.

그리고 이 소설의 갈피마다에서 울리는 프락또르의 발동소리, 눈부리 모자라게 펼쳐진 드넓은 벌을 한가득 메우며 울리고울리는 발동소리 역시

하많은 이 사연을 이야기해준다.

소설에는 이밖에도 작가가 천금같은 시간을 내
시여 한 프락포르운전수가정에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친히 전하시며 것처럼 기
뻐하시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거룩하신 영상
을 그려보는 지정남의 흠모의 정을 정서가 짙은
묘사로 펼쳐보인 대목들을 비롯하여 독자들을 깊은
사상정서적충격에 휩싸이게 하는 장면들이 적
지 않다.

실로 중편소설 《프락포르운전수일가》는 실재
하는 영웅일가와 그들의 영광에 찬 실생활자료에
산문시

칠보산에 올라

홍기품

굽이굽이 산발을 오르고 내리던 흰구름도
멈춰서고 날아가던 새들도 나래를 접고 여기에
내리는가
싱그런 숲향기 그윽한 꽃향기 바람결에 실려
가슴에 젖어드는 동해의 명승 칠보산아
산을 보면 산경치 물을 보면 물경치 숲을 보면
숲경치 천하절경을 이룬 일만경치 여기에 다
펼쳐져 보고 또 볼수록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으리니 황홀경의 극치로 솟아 빛나는
칠보산
이 땅에 살면서도 네 모습 아니 보면 그 얼마나
한생에 후회로 남으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명산중에 명산이라
동으로는 푸른 동해 북으로는 경성만에 흘러드는
어랑천 남으로는 화대천을 경계선으로 솟아있는
칠보산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과 함께 아름다움의 정화로
안겨와 그대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인민의
명승 칠보산
꽃을 따라 한 굽이 숲을 따라 한 굽이
기암바위따라 한 굽이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의
아흔아홉굽이 이 선상의 아름다움이 다 비껴있어
파연 천하의 절경이라 옥바위를 감돌아
흘러내리는 물소리는 그대로 노래요 바위에
부딪쳐 튀기는 물방울은 그대로 옥구슬이로다
손을 잡으면 연초록물이 들듯 파아란 명소를
들여다보면 마음도 생각도 티없이 맑아지거니
야! 오! 감탄을 자아내는 말로써야 네 모습 어이
다 노래하랴
걸음걸음 났을 잃고 바라보니 수수천만년
비바람에 씻기고 다스려진 봉우리들과 절벽들은
참으로 기묘해라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은듯한 로적봉,
일만장서를 쌓은듯한 서책봉, 그 옛날 이 나라
인민의 가난의 흔적을 잊지 말라고 새겨놓은듯한
웅기종기 초가마울처럼 한눈에 바라보인다

기초하여 새롭고 의의깊은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전형적성격을 통하여 밝힌 성과작의 하
나이다.

작가들은 체험의 문학, 원형의 문학을 창조하
고 건설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으로 받아들
이고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현실체험을
진지하게 한데 기초하여 주체혁명위업에 적극 이
바지할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
으로써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
행해야 할것이다.

해칠보경치에 났을 잃고 바다기슭에 드리웠던
무지개 그대로 돌바위로 굳어진 무지개바위
수백수천의 기암바위마다 신기한 조화를 다
안고있으니 칠보산은 절승의 명산뿐아니라
전설의 명산이기도 하여라
올려다보면 아아한 절벽우에 뿌리를 박고
하늘높이 아지를 펼친 백년자란 로송들은 이
나라의 푸른 기상인듯 산이 있어 물이 맑고 물이
있어 산이 아름다워 산과 물이 어울려 한쪽의
절경을 이루었으니 이 자연경치앞에서도
가를래야 가를수 없는 우리 인민의 참모습을
보는듯하여라
오랜 세월 주인을 못만나 아름다워도 빛을 잃고
돈과 권세있는자들의 유흥거리로 되어있던
칠보산 로동당시대의 찬연한 빛발아래 비로소
한껏 아름다움을 돋우고 인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인민이 향유하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 칠보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영광의 그날에는
산도 물도 숲도 바다도 온통 걱정애 설레이며
얼마나 눈부신 황홀경을 펼쳐드렸던가!
세월의 만고풍상을 겪어온 칠보산은 장군님의
품에 안기여 청춘기를 맞이하고 꽃시절을
맞은것이여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르신였던 승선대에 서니
칠보산의 일만경치가 천만가지 조화로 눈부시게
안겨온다
장군님께서 빛내주신 절승의 명산으로 온 겨레의
자랑이며 기쁨인 인민의 유원지로 동해의
하늘가에 솟아 빛나는 사랑의 명산 칠보산은
그이께서 다너지신 자옥을 따라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새 모습으로 단장할것이나
금수강산 내 나라의 명산 칠보산이여
너는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을 비껴안은
만년대계의 국보로 만천하에 길이길이 자랑
떨치리라

단풍계절

조정서

1

일요일이면 부지런한 주부들도 흔히 아침준비를 늦잡는것이 일쑤이다. 그러나 김선숙은 이른 아침부터 흥이 나서 기름내를 풍기며 부엌일을 서두르고있었다. 그것은 맏이의 내외가 귀여운 손주애까지 데리고와서 동물원구경을 기기로 약속하였기때문이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펼쳐나서게 될것을 머리속에 그려보느라니 벌써부터 웃음집이 흔들거렸다.

선숙은 닭알지집을 부쳐대면서 방안에 대고 소리쳤다.

《여보, 이제 철민이네랑 인차 오겠는데 준비를 좀 하구려.》

《...》

그러나 방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선숙은 힐끗 방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보!...》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선숙은 의아해서 방안쪽을 바라보다가 지집이 타는 냄새에 얼른 지침판으로 손을 가져갔다. 지집을 부쳐대면서도 마음속에 한가닥 그들이 지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워낙 말수가 적은 령감이지만 요즈음은 마치 병어리가 되듯 통 말이 없으니 어인 영문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어느때 같으면 벌써 일어나 세면장에 드나들며 로대에 줄느린히 놓은 화분들을 가꾸느라 부산을 피웠을 령감이었다.

선숙은 지집을 다 부쳐내자 밥상을 차려들고 옷방으로 올라갔다. 그러다가 그만 밥상을 든채 주춤 굳어지고말았다. 령감이 방바닥에 용용로의 도면을 펼쳐놓고 앉아 밥상이 들어오는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 도면은 이미 선숙이가 령감 몰래 감추어놓았던것인데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니, 그 도면을 또 꺼냈수? 그렇게 쓴맛을 보구서두 뭐가 부족해서... 령감두 참...》

선숙은 혀를 차며 밥상을 내려놓고 령감과 마주앉았다.

《자, 어서 밥이나 자시우. 올라가지두 못할 나무는 바라보지도 말렸다는데 자꾸 올려다봐야 목이나 아파요.》

그러나 령감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아닌것 같애. 이걸 좀 보우. 이걸 이렇게 마주 세워놓으면 열손실도 적어지고 단번에 녹여낼것 같은데 어쩡소. 말하자면 삼상으로가 아니라 단상법으로 말이요. 허-》

령감은 제홍에 떠서 주름살이 간 몽툰한 손가락으로 도면을 이리저리 가리켰다. 그러는 령감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선숙은 갑자기 코허리가 매워오는것을 느끼며 눈을 내리깔았다.

《령감두 참...그만큼 쓴맛을 봤으면 이젠 좀 그만하시구려. 이젠 60도 멀지 않았는데 지금껏 못올라간 나무 년로보장반구 올라가겠수? 난 지금 령감이 올라가있는 나무두 너무 아찔하워다. 자, 어서 식기전에 밥이나 잡수시라구요.》

선숙의 그말이 맞가지 않다는듯 령감은 눈을 찔 흘기더니 《음-》하고 헛기침을 하며 밥상을 쑥 밀어놓았다. 그리고는 뺨 돌아앉아 다시 도면만 들여다본다. 령감이 저쯤 되면 그 고집을 막지 못한다는것을 알고있는 선숙은 민망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내려갔다.

《에그, 올라갈 땐 올라가더라도 밥이나 식기전에 자시구보구려. 고집두 원.》

선숙은 혀를 쭉쭉 차며 손주녀석이 좋아하는 기름튀기를 하려고 가마에 기름을 쏟아넣었다. 했지만 어째서인지 좀처럼 흥이 되살아나지 않았다. 생각이 별로 번거로왔다. 바글바글 기름이 끓는 가마를 들여다보느라니 무수한 추억들이 삼거웃처럼 떠올랐다. 그 가운데서도 초고질 내화물을 자체로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가 실패하여 풀이 죽어 다니던 령감의 모습이 제일 가슴아프게 마쳐왔다. 그때 령감은 용용로의 탄소봉을 삼상으로 설치하고 용량이 큰 변압기 두대를 쓰도록 설계했는데 그만 한대가 타버리고말았던것이다. 일이 실패한것도 문제였지만 변압기를 태워버려 공장생산에 지장을 준것은 더욱 큰 문제였다. 퇴근길에 집에 들렸던 아들 철민은 무거운 어조로 이런 말을 했었다.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되지도 않을 일을 자진해 나서가지구 그렇게 했대구...》

그러나 철민의 말은 동강이 나고말았다. 어느 새 집에 들어온 령감이 철민의 말을 가로챘기때 문이었다.

《듣기 싫다. 그렇게 귀가 커가지구선 아무 일도 못한다. 문젠 내가 그 일을 실패했다구 너같이 젊은 사람들까지 신심은 잃고있는 그거야. 그제...그제 가슴아플뿐이지.》

조명기술에선 공장적으로 단연 첫손가락에 꼽히우는 장학섭이가 이렇게 쓴맛을 보는판이니 다른 사람들이야 더 말해 뵈하겠느냐고 수군수군 돌고있는 말이 제일 가슴아프게 들렸던 모양이었다.

《안되겠어. 그 귀신같은 부기사장령감두 그런 판인데...》

《그 령감두 풀이 죽었다더군. 이 며칠사이에 10년은 더 늙은것 같애.》

《참 안됐구만》 말년에...그런 엄청난 실수까지 저질렀으니...》

...

선숙은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기름칠을 한 모자를 벗을새 없이 뛰어다니던 령감이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모자를 벗을새없이 잠간사이에 밥사발만 비우고는 또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가던 령감이었다. 그 길에 기쁜 일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아버이수령님께서 새집들이를 시작하는 천리마거리의 대낮처럼 밝은 야경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령감도 선숙이도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그때 당제5차대회를 앞두고 석영수능등의 개발연구사업을 자진하여 말은 령감은 공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끝내 연구를 성공시키고 생산공정까지 새로 꾸려놓아 천리마거리를 그처럼 눈부시게 밝혀놓았던것이다.

정말 나라의 조명공업발전을 위하여 령감이 걸어온 한생의 그 자욱자욱마다에는 누구도 모르는 피라는 탐구와 노력이 보석처럼 빛나고있었다. 그래서 선숙은 불밝은 밤거리를 바라볼 때면 령감이 남모르게 바친 그 수고가 불빛마다에 어려와 가슴이 찡해지곤했었다.

바로 그랬던 령감이 말년에 와서 그런 말을 듣게 될줄이야...

선숙은 그만 화가 나서 령감이 아침저녁으로 들여다보곤하던 그 궁지로운 한생의 마무리를 《불명예》로 얼룩지운 용용로의 도면을 와락와락 걷어 령감 몰래 감추어두고말았었다. 정말 분하기 그지없었다. 어쩌면 일이 그렇게까지 번져졌단말인가. 령감도 실망을 했는지 그후부터는 도면을 찾지부터 앓았었다. 그저 일찍 일을 나가고

늦게 집으로 들어오는 일파에는 변동이 없었을 뿐이었다. 령감은 분명 그 불쾌한 일을 잊으려 하는것 같았었다...

이렇게 날이 흘러 이제 석달후이면 어느덧 령감의 60돛생일날이 된다. 그러면 령감도 어차피 앞길이 창창한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집에 들어오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그 석달을 앞두고 령감이 다시 도면을 꺼내놓은것이 아닌지. 그러니 지금껏 령감의 머리속에는 그 도면만이 들어있었다고 해야 할것이었다.

방안의 고요를 깨뜨리며 가벼운 초인종소리가 들렸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기름타는 가마만 들여다보던 선숙은 초인종이 다시 울려서야 허리를 폈다. 철민네가 온 모양이었다.

《예, 나갑니다, 나가요.》

선숙은 갈마드는 불안을 털어버리듯 머리를 한번 흔들고는 얼른 전실로 달려나왔다.

《해해, 할머니 안녕.》

《어이쿠, 우리 혼이가 왔구나. 어디 보자.》

손주녀석은 두팔을 벌린 선숙의 품에 담쑥 안겨들며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한다.

《어머니, 그동안 앓진 않으셨어요?》

곱고 큰눈을 살쾅이 내려깔며 머느리가 머리를 가볍게 숙여보였다.

《오냐, 어서 들어가자. 우리 혼이가 그새 또 큰것 같구나...응, 예-용타.》

선숙은 목에 매달린 혼이를 꼭 그러안고 엉덩이를 두드려주며 시름없이 웃었다. 혼이만 보면 그저 웃음이 나가는 선숙이었다. 두벌자식이 왜 그렇게 고운지 알수가 없었다.

《혼이야, 할머니가 힘드시겠다. 어서 내려라!》

《싫어. 나 할머니하구 있을래.》

선숙은 아들내외를 뒤에 남기고 혼이를 안은채로 부엌으로 나갔다. 사탕이 발린 기름튀기를 받아들자 혼이는 좋아서 할머니의 볼에 쪽-하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 할머니가 제일이야. 해해.》

《어머니, 무얼 그렇게 만드느라구 그러세요. 집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머느리가 부엌에 들어서며 하는 말이였다.

《그래도 너희들이 어찌다 우리 집에 왔는데... 어서 방안에 들어가있거라.》

선숙은 웃으며 머느리의 등을 밀었다.

선숙이가 부엌일을 서둘러 끝내고 방안에 들어가는데 옷방에 올라갔던 혼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났어.》 하며 달려와 안겼다.

《니 할아버진 요즘에 망녕이 들었나부다. 어쩌다가 너희들이 왔는데도 쫓쫓...》

선숙은 혀를 차며 옷방을 기웃거렸다.

령감은 한손에 손가락을 든채 여전히 도면만 들여다보고있었다. 선숙은 지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일이 난감했다.령감이 저쪼면 모든것이 뒤죽박죽이다.령감의 머리속엔 지금 오직 그 용용로의 개조안만이 짝 차있을것이다.그러니 동물원구경도 가족산보도 이제 다 틀려진 것이 아닌가.

《할머니, 빨리 동물원구경 가자. 흥-》

훈이가 선숙에게 다시 매달리며 청일거리기 시작하였다.

《훈이야, 그럼 못쓴다. 그렇게 할머니에게 생떼를 쓰는 애가 어데 있다더냐.》

철민이가 훈이에게 눈을 흘겼다.

《싫어싫어. 나 할아버지하구 동물원구경 갈래.》
그래도 손주애는 막무가내다. 선숙은 손주애를 꼭 그러안고 볼에 입을 맞추어주었다.

《훈인 착한 애지. 오늘은 할머니하구 집에서 텔레비존을 보구 이다음에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구나. 그렇게 하지?》

《싫어싫어. 으응- 오늘 할아버지랑 함께 갈래.》

《참 로친두 한심하구만. 이 좋은날 손주녀석 정을 거역했다가 원이 되려구 그러우. 허-》

뜻밖에도 옷방에서 령감이 웃음을 지으며 내려왔다.

선숙은 놀랐다. 대번에 웃음이 피어올랐다. 령감이 혹시 동물원에 가려는것이 아닐가.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인 선숙은 눈을 할깃하며 혀를 찼다.

《호, 당신두 참, 도면밖에 모르는 당신을 보고 어디 그런 만을 꺼내겠습디까.》

그러나 령감은 시무룩히 웃을뿐 선숙에게는 대답을 안하고 손주애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 오늘 훈이에게 한가지 청을 할가.》

《해해, 할아버지두 나같은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나?》

훈이는 재미있다는듯 해죽거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본다.

《오냐. 하구말구. 오늘 할아버진 공장에 나가봐야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힝, 그럼 할아버진 동물원에 가지 않겠다는거구나.》

훈이가 갑자기 뽀로통해졌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청을 드는게 아니니.》

《그럼 할아버지와 손가락결자. 이다음엔 동물원에 같이 가겠다는거.》

《그래그래. 결자구나 허-》

《해해, 나 할아버지와 손가락 결었다.》

훈이의 얼굴엔 밝은 웃음이 활짝 피어났다.

《여보, 난 훈이와 합의를 보았으니 당신이 애

들과 함께 좀 가보구려. 허허허...》

령감은 마치도 승리자가 된듯이 꺄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도면을 옆구리에 끼며 《그럼 훈이야, 잘 갔다오너라. 안녕.》 하고는 손까지 꺼떡했다. 훈이는 《안녕》 하고 꺄꺄 웃었지만 선숙은 철민이와 마주보며 한숨만 내쉴 뿐 더 말을 못했다.

2

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선숙의 마음은 납덩이가 들어앉은듯 무거웠다. 지금 김선숙은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전후에 령감은 채더미로 된 공장을 일떠세우느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그것이 이따금씩 도지군하더니 끝내 말썽을 일으킨것이다. 정말 나이는 어쩔수 없는듯싶다. 용용로옆에 쓰러져있는것을 당비서가 발견하고 제때에 입원시켰으니말이지 하마트면 큰일날번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령감은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저 용용로, 용용로이다. 오늘도 용용로의 개조안 도면을 가져오라고 너무도 불같이 다그어대서 선숙은 지금 이 길을 걷고있는것이다. 선숙은 호하고 긴숨을 내쉬며 터벌터벌 발을 옮겨놓았다. 지기가 이 길을 걷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던 선숙이었다.

한때는 용용로때문에 더 신경을 쓰지 말라고 도면을 감추기까지 하였던 자기였던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로 령감에게 그것도 알아누운 령감에게 그 도면을 가져다주려고 이 길을 걷게 될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또 하루가 저물어가는 거리의 창문들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하더니 미구에 온통 불빛의 바다를 이루어놓았다. 대낮처럼 밝게 비치는 가로등. 살림집창문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무수한 불빛들...여느때같으면 저 불빛을 보기만 하여도 저절로 마음이 흐뭇해지군하던 선숙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영원히 잊지 못할 피눈물의 그 7월을 보낸 선숙이었다.

공장의 넓은 구내에 규모있게 들어앉은 유리직장이며 전구직장의 덩지 큰 건물 창가마다에서 눈밝은 불빛과 함께 기대의 은은한 동음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선숙은 어둠이 깃든 낮익은 구내길을 천천히 걸었다. 눈부신 조명등의 각광속에 자태를 드러낸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사적비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사적비의 량옆에 키높이 자란 두그루의 단풍나무가 별로 눈곱이 찌릿하게 비쳐들었

다. 그 단풍나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선숙의 눈앞에는 잊을수 없는 일들이 한줄에 꿰여진 구슬알들처럼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공장을 현지도하신 그날 저녁에야 출장길에서 돌아온 령감은 아연해진 표정을 띠고 앉았다가 밥술도 들지 않은채 다시 자리를 일었다.

《아니 여보, 저녁도 들지 않고 어델 또 가시려우?》

《공장에 찾아오신 아버지수령님을 난 뵈지 못했으니 이거 가슴에서 불이 이는것 같아 견딜수가 없구려.》

선숙은 령감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공장을 돌아보실 때 선숙은 령감이 곁에 없는것을 얼마나 통탄하였는지 모른다. 령감이 골라골라 이런 날에 출장을 갔건 뭐람 하고...

《그래두 때식이야 건느지 말아야지 그러다 어찌자구.》

《밥같은 소릴 다 하누만. 그래 속에서 불이 있는데 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갈것 같소?》

령감은 출장기일이 늦어진 잘못이 마치도 선숙에게 있기라도 한듯 화를 내며 훌쩍 밖으로 나가버렸다.

《참 성미두, 젊었을 때 버릇 그대로라니까. 쫓쫓...》

그날밤 령감은 형광등직장에서 로련대를 쓸어만지며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눈부시게 번쩍이며 흘러나오는 형광등을 만족하신 눈빛으로 한참동안이나 바라보시었다는 로련대였다.

그후 아버지수령님의 현지도도 사적비를 세웠을 때였다.

그날 김선숙이 아침밥을 짓고있는데 령감이 부엌문가에 불쑥 나타났다.

《여보, 오늘 산놀이를 가지 않으려우?》

령감의 느닷없는 청에 선숙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니, 령감이 갑자기 뭔가 잘못되지 않았수?》

《허- 잘못되다니? 이 좋은 봄날 산놀이가 어째서. 게다가 오늘이야 쉬는날이 아니요.》

령감의 어조엔 어느때 없는 희색이 돌았다.

선숙은 어이가 없어 허구프게 웃었다.

《다 들어가지구 산보는 무슨...》

《로친두 참...늦었기때문에 가자는거요. 늦었기때문에...》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요. 그럼 당신 좋을대로 합시다그려.》

선숙은 처녀때도 령감과 같이 산책을 하여본적

이 거의 없었다. 신혼생활때도 그랬다. 전후의 어려운 시기였었다. 할일이 너무도 많았다. 그들은 그저 하루일을 끝내고 불빛이 밝은 밤거리를 나란히 걸어 돌아오는것이 산보였다. 그것으로 만족하였었다. 그런데 늘그막에 산놀이를 가자는것이다.

교외의 산기슭에 이른 그들은 산발을 타고 오르기 시작하였다. 삼을 한쪽 어깨에 메고 앞장선 령감을 따라 걷느라고 선숙은 줄땀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얼마후엔 다시 몇걸음씩 간격이 생기곤하였다.

《아니 이견 산놀이가 아니라 강행군을 하는게 아니우? 이거 숨차 죽겠수다.》

《바로 여기요, 여기. 저기 있지 않소. 저 단풍나무가...》

《단풍나무라니요?》

선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령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령감은 만족한듯 히죽이 웃고있었다.

《난 이 단풍나무를 현지교시사적비에 심자는거요.》

《예?!》

너무도 뜻밖이어서 선숙은 눈이 둥그래진채 령감이 가리키는곳을 바라보았다. 산비탈의 자그마한 바위옆에 단풍나무 몇그루가 서있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과 함께 새움이 트기 시작하는 단풍나무였다.

자기의 키만한 단풍나무가지를 어루만지며 령감이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일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붉게 타는 단풍이 얼마나 좋소... 사람의 말년도 단풍처럼 불타야 하는데...》

음성은 비록 낮았지만 그 말은 별로 마음의 금선을 울려주었다.

선숙은 그만 코마루가 시큰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수령님의 현지도사적비주변에 꽃나무를 심는데 어째서 령감만이 유독 단풍나무를 심으려하는지 그 마음이 이해되었던것이다. 그것은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단풍처럼 아버지수령님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려는 철석의 의지로 령감의 심장이 뛰고있다는것이 아닌가.

령감은 이윽도록 단풍나무를 바라보다가 설 생각도 않고 삼을 놀리기 시작하였다. 같은 크기의 단풍나무 두그루를 정히 떠서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게 보자기에 감싼후에야 그들은 점심을 들었다.

그들이 아버지수령님의 현지교시비 양옆에 두그루의 단풍나무를 심었을때는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할무렵이었다...

그때의 애어렸던 단풍나무가 지금은 몰라보게 자라올라 무성한 잎새를 흐느적이고있었다. 그런데 인생말년을 저 단풍잎처럼 불태우겠다던 령감이 지금은 불품없는 락엽으로 스러지고있는것만 같아 마음은 더없이 허전해졌다.

이제 용용로의 개조안이 다시 실패한다면 령감은 영영 떡잎처럼 돼버리고말것 같았다.

아니, 아니 그럴순 없다. 그래서서는 안된다.

선숙은 소스라치듯 몸을 떨며 주먹같은것을 꿀꺽 삼켰다. 잊지 못할 7월의 그날이 다시금 눈물겹게 안겨왔다.

...바로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것과도 같은 비보를 듣고 몸부림치던 선숙은 자기도 모르게 현지 교시사적비로 향했었다. 사적비가 있는곳에서는 령감이 단풍나무에 한손을 짚고 고개를 수그린채 어깨를 떨고있었다.

선숙은 멍하니 령감을 쳐다보았다. 것처럼 몸부림치는 령감을 바라보느라니 갑자기 목이 메어올랐다. 령감몰래 용용로의 도면을 감추었던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것이다. 내가 어찌자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가.

령감은 하루사이에 별로 초체해진것 같았다. 흰머리오리들도 더 많아진것처럼 보였다. 사실 령감이 말아나섰던 초고질내화물을 자체로 만들어쓰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공장결의목표중의 하나였다. 수령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 하실 때 공장이 제발로 걸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던것이다.

용용로에 쓰이는 초고질내화물은 유리공업에서 기초를 이룬다고 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후 장학섭은 내화물을 자체로 만들겠다고 자진하여 말아나섰다.

장학섭은 몇해동안 고심어린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며 밤과 낮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뛰어나다였다.

선숙은 전후시기에 다친 허리의 상처로 이따금씩 고통을 겪군하는 령감이 걱정되어 늘 마음을 놓지 못했었다. 그러나 령감은 휴식을 몰랐다. 그런데 이처럼 고심참담한 노력이 이렇게 쓰디쓴 실패로 끝날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사적비앞에서 온밤 땅을 치며 자기의 가슴을 쥐어뜯은 그후부터 령감은 집에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 몰랐다. 자다가도 깨어나보면 옷방의 서재에 앉아 책장을 번지군하였었다. ...

서늘러운 밤바람에 단풍나무 잎사귀들이 흐느적이고있었다. 정말 령감에게 도면을 가져가야 하는가.

왜 그런지 두려운 생각도 들었다.

일이란 주관적욕망만으로 되는것은 아닌것이다. 이제 령감이 또 실패하여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자고 것처럼 분발하여 나선 공장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다면 이 무슨 최악이겠는가. 그리고 이때까지 고스란히 쌓아온 사람들의 그 사랑과 존경의 탑도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될것이 아닌가.

선숙은 한순간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다가 또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것처럼 애타게 절절히 요구하던 령감의 모습이 자꾸만 밝혀와서 어찌할수가 없었다. 그 불같은 마음을 어찌 마다할수 있단말인가.

선숙은 더운것을 꿀꺽 삼키고는 용용로의 도면이 있다는 작업장으로 향했다.

작업장에엔 때아니게 불이 환히 켜져있었다. 그 불빛을 보자 선숙은 또다시 가슴이 찌르르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 령감은 쓰러졌지만 공장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전투를 계속 벌리고있는것이다.

누가 나와있을가. 이밤에...혹시 철민일가, 아니면?...

발뼉발뼉 작업장으로 들어서던 선숙은 갑자기 《아니, 아주머니가 이 밤중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는 우선우선한 목소리가 들려와 흠칫 굳어졌다. 작업장안에서는 뜻밖에도 당비서가 도면을 잔종그리다 말고 선숙을 바라보고있었다.

선숙은 한순간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젊었을때처럼 얼굴이 확 달아올라 무슨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머리속에 령감이 그토록 당부하였던 도면생각만이 가득차 있었던지라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저... 그 도면을-》

당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도면을 내려다보고 눈길을 쳐들었다.

《도면? 이 도면이 어쨌단 말입니까?》

선숙은 머리를 수그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런 선숙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당비서가 큰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됩니다. 아주머니 가서 치료나 잘해주시요.》

선숙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저두 한때는 령감이 도면을 끼고있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령감앞에 죄를 지은것만 같아서...》

선숙은 치밀어오르는 격정에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도면보다도 우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몸을 가지구서야 무슨 일을 할수 있겠소.》

낮에 현장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령감을

발견하고 승용차에 태워 병원에 갔다던 당비서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라서 선숙은 불시에 가슴이 찡해움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그렇게 넘려해주는 당비서가 정말 고마웠다. 선숙은 눈을 습벅이며 두손을 맞잡고 젖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저두 그러고싶지만…사실 령감은 오히려 이 도면이 있어야 일어날것 같아서…》

선숙은 벗어친 머리수건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소꿉한채 조용조용 말을 이었다.

…선숙은 음식물을 갖춰들고 병원을 찾아갔었다. 령감은 기척없이 누워있었다. 선숙은 하루사이 더 꺼칠해진것 같은 령감을 억이 막혀 멍하니 쳐다보았다.

물통기가 지고 터갈라진 입술에는 빨간 생살이 드러나보이였다. 가슴에 얹은 투박한 손가락 매듭도 터갈라져서 피딱지가 앉았고 손등에는 불에 덴 자리가 아물지 않은채 독을 쓰고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령감의 험상스러운 손으로 조심히 쓸어만지던 선숙은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아…이게,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은 어찌면, 어찌면 이렇게…

《음, 당신이였구려…》

꿈결에서처럼 들려오는 정다운 목소리…선숙은 고개를 들었다. 령감이 정겨운 눈매로 자기를 바라보고있었다.

선숙은 목이 콕 메여올라 급기야 고개를 외로 꺾었다.

《당신은 어찌면…이렇게, 이런 몸을 해가지고 도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두 참, 내 몸이 어쩔다고 그러오. 참, 그 도면이나 좀 가져다 주구려…》

《예?!》

《그걸 완성해야 할게 아니요. 그래야…》

선숙은 그만 억이 막혔다.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령감은 도면부터 찾는것이다.

선숙은 앵돌아졌다. 자기도 모르게 또 눈물이 쑥 나왔다.

《안돼요. 절대로 안된단 말이에요. 해도 그 몸이나 좀 추선 다음에…》

그러자 령감은 선숙의 손을 꼭 그러잡았다.

《여보.》

선숙은 그 손을 뿌리쳤다.

《글쎄 안돼요.》

그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아니 애원에 가까웠다. 령감은 그러는 선숙을 덤덤히 쳐다보더니 슬며시 고개를 외로 돌렸다. 단풍이 지기 시작한 병원 마당가의 나무를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갈린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여보, 난 요즘… 텔레비죤화면에서 우리 장군님의 얼굴이 추가신 모습을 대할 때마다 내 할일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도저히 잠을 이룰수가 없구려. 잠이 오지 않는단 말이요. 여보, 당신이 그래 이 령감의 심정을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요?!》

조용하면서도 갈린듯한 그 목소리에는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불같은것이 울려나오고있었다.

선숙은 그만 울먹울먹해졌다.

《그래두…그래두…》

령감은 큰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난. 그걸 완성하기전엔 죽을수도 없는 몸이야. 내 청을 들어달라구. 응?…난 도면을 안고 있어야 일어날것 같애.》

선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령감의 불같은 마음이 가슴을 찡하고 울리며 안겨왔던것이다. 선숙은 눈을 습벅거렸다.

령감의 간절한 청을 거역한다는것은 생각도 할수 없는 일로 느껴지면서 불시에 의무감으로 자각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당신은 어찌면 그렇게도…》

《어찌겠소. 이거야 우리 수령님의 유훈이 아니요.》

선숙은 울먹거리며 더 말을 못했다.…

당비서도 할 말이 없는듯 작업장을 거닐다가 슬며시 고개를 돌려 창밖 어딘가를 한동안 바라보고있었다.

《하긴…그래서 부기사장동무지요. 그래서…그런데…헛참…》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 당비서의 눈가에도 물기같은것이 빛나고있었다.

3

찌물कु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가을철도 마감고비에 들어서고있었다.

선숙은 저녁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오늘이 바로 령감의 나이 록십이 되는 날이었던것이다. 그리고 이때까지 때식도 잇다싶이하며 추진시켜오던 용용로의 시험을 하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정말 묘한 일치였다. 철민이는 이미 두달전부터 아버지의 60돐생일날자를 려서에 표시하여놓고 은근히 준비해오는 눈치였었다. 선숙은 말리지 않았다.

령감이 60돐생일상을 아무리 만류한다고 하더라도 저녁상이라도 성의있게 차려주고싶었다. 한

생을 아글타글하며 살아온 령감이였다.

부엌일을 끝내고 방안으로 들어온 선숙은 혼장함을 꺼내놓았다. 진한 밤색바탕에 여러가지 문양의 자개박이를 하고 칠까지 먹인 값진 함이였다.

선숙은 령감의 한생이 새겨진 혼장함을 자기 육신의 한 부분처럼 여기며 보관하여오고있었다.

령감의 새옷을 꺼내놓고 함의 뚜껑을 여니 혼장증서와 함께 각이한 크기와 모양을 가진 혼장들이 눈부신 빛을 발산하며 선숙의 눈을 자극하였다. 선숙은 령감의 옷에 혼장을 달기 시작하였다. 60돛생일날이면 사람들은 모두 혼장을 달고 상을 받으며 사진을 찍군다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선숙이였던것이다. 물론 령감이 이 옷을 입을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선숙이로서는 본능적으로 혼장을 달게 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선숙은 첫 혼장을 꺼내들었다. 혼장의 무게가 감촉되는 순간 불시에 가슴이 찢릿해졌다. 그것은 전쟁의 불구름이 이 땅에 휘몰아치던 그때 받은것이였다.

그때 공장은 장자장의 깊은 산간오지에 소개되어 갓었는데 그곳에서 군사위원회의 긴급명령을 받았었다. 고축전구를 생산하여 지하공장들과 갱도들에 보장해주는것이였다.

그때 령감은 발전소의 굴간에서 밤을 밝히며 수소로 공기를 연소시켜 질소를 고정시키는 혁신적인 발명안을 도입하여 전구생산의 결정적고리를 해결하였다. 그때 열아홉살 흥안의 청년이였던 령감은 이 첫 혼장을 받게 되였던것이다. 선숙은 그 혼장을 맨우에 달았다.

다음으로 손에 든 혼장은 정전되는 해 3월부터 풍치수려한 대동강방으로 공장을 다시 이설하면서 또 1953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여 공장이 전쟁전의 생산수준을 통과하여 받은것이였다. 그때 령감은 전구의 생산을 확대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여 고축전구생산의 비중을 2배이상으로 높였던것이다.

천리마의 대고조로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이 창조되던 때 일도 떠올랐다. 온 나라가 끓어번지고있던 어느날 조명기구직장장으로 일하고있던 령감은 건설 마감단계에 이른 평양대극장 중앙홀에 설치할 무리등을 한창 조립하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현지지도로 나오셨던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겠으랴.

무질서하게 널려진 무리등의 부속품들을 하나 하나 보아주시고 조립순서도 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무리등을 참 잘 만들었다고, 이것은 우리 수공업품의 생산수

준도 아주 높아졌다는것을 말해준다고, 수고가 많았겠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교시를 주시였었다.

그날밤 령감이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감격에 목이 메여하던 모습이 눈에 어려와 선숙은 코안이 매워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더우기 잊혀지지 않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안고 온 나라를 밝은 형광등불빛으로 뒤덮기 위하여 밤낮을 모르고 일하던 령감의 모습이였다. 그것은 곧 조명공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과정이기도 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형광등공장이 완공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령감에게 영원히 대를 두고 전해갈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그리하여 당 제6차대회전으로 형광등공장을 완공하고 어버이수령님을 공장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던것이다.

령감의 앞가슴에 빈자리가 없을만큼 혼장을 달아놓고 감회깊은 추억속에 잠겨있던 선숙은 가슴이 후터워움을 느끼며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령감이 들어올 시간은 퍼그나 있어야 하였다.

물끄러미 시계를 바라보느라니 왜 그런지 갑자기 그 어떤 불안감이 밤안개마냥 스르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새로 개조한 용용로의 시운전이 어떻게 되었을가.

정말 그것이 성공되었다면 얼마나 좋으랴싶었다. 그런데 방정맞게 왜 자꾸 이런 불안이 갈라들기만 할가.

선숙은 더 앓아있을수가 없었다. 령감이 일하는 작업장에 가보고싶었다. 혹시 하는 두려운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오금이 저려와서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었다. 선숙은 마침내 집을 나서고야말았다.

불안과 기대가 뒤설레는 마음을 안고 용용로도 입작업장에 들어서던 선숙은 그만 두눈을 홉뜨며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작업장이 별로 어설픈 분위기에 휩싸여있었기때문이었다. 숨막힐듯한 정적이 한산하기 이룰데 없는 작업장을 더욱 침울하게 만들고있었다.

금시 숨이 진듯 침묵을 지키고있는 용용로, 그 숨통을 껴지른 어마어마한 창처럼 용용로에 박혀있는 카봉, 그 봉에 내질리워 피를 쏟은것처럼 용용로밀의 흘러내린 돌물이 체나름대로 굳어진 채 검붉은 색으로 변해가고있었다.

순간 선숙은 눈앞이 아득했다. 온몸의 피가 다 발밑으로 새나간것 같았다. 그토록 우려하던 현실이 선숙의 눈앞에 너무나도 참혹하게 펼쳐진것

이다.

(또 실패로구나. 끝내...끝내...)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핑 돌았다. 선숙은 주저 앉으려는 자신을 겨우 지탱했다.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그랬으나 령감은 올라 갈수 있는 나무라고 했다. 꼭 올라가야 할 나무라고...그러나 결국은 나무에 다 오르지도 못하고 또다시 중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이 일을 어쩌면 중단말인가.

《철민이 어머니군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실패는 했지만 돌물을 녹이지 않았습니까. 일없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철민이와 너나들이로 지내는 공업시험소의 젊은 기사가 선숙에게 하는 말이였다.

그제야 선숙은 자신을 되찾았다. 이상하게도 작업장에는 령감도 철민이도 보이지 않았다. 선숙은 떨리는 어조로 나직이 물었다.

《그런데 우리 철민인 어데 갔나?》

《당비서동지가 찾아서 갔습니다. 부기사장동지와 함께말입니다.》

선숙은 눈이 커졌다.

(당비서가 찾아서 갔다. 당비서가...당위원회에...)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쳤다.

(그럼 령감은 끝내...)

맥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만싶었다.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선숙은 작업대열에 놓인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용암처럼 흘러내려 불품없이 굳어지기 시작한 돌물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저 불품없이 흘러내린 돌물처럼 령감의 말년도 저렇게 끝나고 마는것이 아닐가...

선숙이가 경황없는 생각에 쫓기고있을 때 승용차의 가벼운 경적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누군가의 급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선숙에게 그것은 먼 꿈결에서처럼 들려올뿐이였다.

《아주머니가 여기에 나와있는줄도 모르고 왔군요. 내 짐작이 틀림없다니. 허-》

당비서의 우선우선한 목소리가 들려와서야 선숙은 놀라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 ?!》

《아주머니, 빨리 집으로 가십시오. 부기사장동무도 철민이도 지금 아주머니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아니, 우리 령감이 집에서 날 기다려요?!》

선숙은 그만 어안이 병병해졌다. 령감이 집에서 날 기다리다니. 뭐가 뭔지 도무지 리해가 되지 않았다.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집

에는 언제 가고 왜 나를 기다린단 말인가. 그리고 철민이까지...

《아주머니,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장학섭부기사장동무에게 친히 은정어린 60돛생일상을 보내주시였습니다. 60돛생일상을 말입니다.》

《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요!》

선숙은 그만 깜짝 놀랐다. 자기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60돛생일상을... 자 어서 가십시오.》

순간 선숙은 가슴속에서 응어리같은것이 옥을 려밀면서 목을 짹 잠그어놓는것을 느꼈다. 아무런 말도 나가지 않았다.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는 현실앞에 온몸이 달아오를뿐이였다.

승용차는 패속으로 달리고있었으나 선숙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실패, ...실패를 해서 작업장이 저렇듯 어설픈 분위기에 잠겼는데 우리 장군님께서...

달리는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지나가는 모든것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좁전에 당비서가 들려주던 이야기만이 아직도 귀전에 쟁쟁할뿐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장학섭동무가 지난 기간 해온 일들을 보고받으시고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참 좋은 동무입니다. 수령님을 따라 한생을 변함없이 걸어온 동무입니다. 더우기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겠다고 그렇게도 아글타글하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나는 그 동무를 믿습니다. 그 동무가 60나이가 되었다는데 60돛생일상을 떼떼이 받도록 해줍시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는것이였다.

아, 장군님, 장군님은 어쩌면...

선숙의 주름진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온 나라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들끓는 평범한 날이였다. 바로 그날 장학섭은 드디어 돌물을 녹여 근 400키로그램이나 되는 벽돌을 10장이나 부어냈다.

잊을수 없는 그날 아버지수령님의 현지교시사적비에 심어진 두그루의 무성한 단풍나무잎새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며 붉게붉게 타번지고있었다.

시조

우리 겨레, 우리 민족

-한 해외교포의 일기중에서-

림공식

말하고싶소

가는 길은
배길도
차길도
모두 있건만

사람들은 굳이 이 길만 택하며
양보를 모르오
어서 가고싶어
빨리 가고싶어
하늘길만 바라다오

코레아로
조선으로
간다고 간다고 찾아간다고
그리운 조국에 가는 우리들과 함께 가자고
미국의 여기 넓은 공항은
피부색이 서로 다른 인파로
설레인다오 끝없이 끝없이

볼수록
대할수록
눈시울 뜨거운 이 현실앞에
아, 생각은 이리도 깊어지는지

가증스런 섬나라 쪽발이들에게
원통히도 나라를 도록당하여
세월의 망각속에 지워져가던
우리 조국땅

그 땅에 태를 묻은
이국의 우리들마저
눈길조차 돌리지 않던
바로 그 강토 삼천리에
오늘은 흠어졌던 겨레와 함께
이것 보오
세상사람들이 찾아가고있소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그 얼마나 감격적인 화폭이요
누리에 우뚝 솟은 조선의 하늘가에
만민이 그처럼 그려보던
희망의 봄노을이 찬란히 비졌다고

아아 코레아로
조선으로
비행기는 끝없이 날아가니
내 나라는 온 세상이 찾는
동경의 나라!
빛나는 조선!

말하고싶소
가슴을 헤치고 말하고싶소
내 위대한 나라의 인민
김일성민족의 일원임을
만방에 소리높이 말하고싶소

타향에서 부르는 노래

이국의 거리를 걸어도
남의 집 지붕아래서 밤을 지새도
너도나도 흥에 겨워
저절로 노래를 부르나이다

기쁨에 넘쳐
그리움에 젖어
이 노래만 부르나이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아, 지난날 우리들이
목이 메여
타향에서 부르던 노래는
얼마나 처량히도 울렸나йка

낮이면 구름너머

밤이면 십자성너머
삼삼히 어려오는 고향땅이 그리워
부르던 노래는 애절한 《아리랑》

포악한 농장주의 채찍보다
망국노의 그 슬픔이
너무도 아프고 쓰리어서
하염없이 부르던 노래는 《봉선화》

그러했나이다
산설고 물설은 타향에서
우리 부르던 노래는
눈물에 젖은 노래였나이다

내 나라 내 조국에
해와 별 찬란히 빛나
여기 이역의 하늘가에도
황홀한 꽃노을이 비껴

구슬프게 타향에서 부르던 노래
이제는 영영 사라졌나이다
오늘은 궁지와 행복에 넘쳐
부르는 노래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독한 술로 쓰리던 가슴 달래고
한곡조 노래로 설음을 잊으려 모대기던
우리들이 터치는 목소리
아아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

이 거리로 나오시라

나오시라
동포여
형제여
우리 사는 이역의 이 거리로

나오시라
경사스러운
이 기쁜 날
저 하늘가에
만세의 환호성 터쳐봅시다

행성의 유일 《초대국》 이라
그처럼 으시대던
아메리카 미합중국이
우리 조선앞에 또다시 두무릎을 꿇었소

얼마나 통쾌한 일이요
가슴 후련한 대경사요
장장 반세기
그렇게도 앓았던 백악관이
오늘은 조미합의문
그 행복서에 수표했으니

오만한 미제놈을 단번에 굴복시키신
아, 민족의 령수
김정일 장군님 우러러
감사의 큰절 삼가 드립시다

꽤지나 칭칭

괘과리를 울립시다
두리둥둥- 둥둥
승전복을 힘차게 울립시다

어서 뛰어드시소
경상도 가시내도
전라도 농부태생도
신이 나게 강강수월래
어깨춤도 들썩들썩

우리들이 부러워
정녕 부러워
피부색 다른 사람들도
가던 걸을 멈추고
우리를 보고 또 본다오

나오시라
어서 나오시라
동포여
형제여
감격의 이 거리로

남의 땅
남의 거리에 살아도
김일성 민족의 대경사를 축하합시다
아아 오늘의 이 거리가
조선의 거리로 되었소
승전복을 울리는 이날에
우리의 명절이 되었소

하나가 되자

나는 왜 별을 보아도
북두칠성을 바라보고싶고
나는 왜 하늘을 보아도

내 조국의 하늘만 보고싶은가
이밤도 나처럼

야자수 설레이는 기슭에서
저 별을 보며 생각하리
대양의 한끝 섬나라에서도
그리움에 못이겨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고있으리

터치고싶어라
이역의 머리 흰 동년배들과
한 마을의 이웃같은 동포들에게
진정을 웨치고싶구나

아, 고국을 떠나
긴긴세월
너나 우리모두
아직도 그리움과 그리움속에
눈시울을 적셔야 하는가

바람에 흩날린 가랑잎처럼
민족이 갈라져 살아야 하는
가슴저린 이 아픔 이 고통을
겨레여 동포여
우리 그대로 목새기며
생의 황혼기를 보내야 한단말인가

그대 알프스산줄기에 살건
그대 열대의 장글속에 있건
그대 초원에서 양떼를 물건
그대 사탕무우밭에서 낫질을 하건
묻어둔 심중의 말을 아낌없이 헤쳐놓자

외세의 룡락으로

타향의 거친 하늘아래서
흐르는 세월속에
이제는 생각도 다르고
품은 뜻도 같지 않은
서로서로이건만

우리에게는
하나가 되는
참말로 하나가 되게 하는
구심점이 있지 않느냐

보시라!
밤하늘의 찬란한 저 별무리들이
태양의 빛발이 없다면
저러히도 밝은 빛을 뿜을수 있으며
우주의 신비스런 보석이 되랴

태양이 있어
별무리를 이루듯
삶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민족의 무궁한 번영 펼쳐주시는
김정일 장군님 계시여
하나로 될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

태양없이 살수 없는
하나의 민족
김일성 민족의 하나하나의 별이 되자
아아 저 하늘을 더 아름답게 수놓을
태양계의 별이 되자

아, 장군님!

이날의 경사
이날의 환희를
내 무슨 말로 다 노래하오리까
밝은 미소 뿌리시며
손저어 반겨주시는
아, 우리 장군님

꿈결에도 뵈고싶어
언제나 마음은 하늘길을 날고
장군님 몸가까이 있고싶어
이역만리에서 달려온 우리

위대한 주석님 모습과
어쩌면 그리도 같으실가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 서계시는
탁월한 령수 **김정일** 장군님을
목메여 우러르나이다

멀리 있는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는 어머니처럼
이국의 우리들이 늘 걱정되시여
주석님의 심정 그대로
그처럼 마음쓰시며
경사로운 명절에 불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여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눈앞엔 자꾸만 어려오나이다
우리를 따뜻이 품에 안아주시던
생전의 그 모습
주석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하늘처럼 믿고 살던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 주석님
그분이... 믿어지지 않아
정녕 믿을수 없어

말을 채찍질하여 수백리
승용차로 비행기로 몇천리
바람처럼 달려오던 분향소

아, 태양이 꺼지니
우주는 온통 캄캄해지고
온몸은 그대로
천길나락에 떨어지는듯

통곡소리 그치지 않는
분향소에서
태양이시여
환생하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빌고 또 비는
우리들의 눈가에
이 무슨 기적이겠나이까
태양이 빛을 뿌렸나이다

어버이주석님과 꼭같은신

한없이 인자하고 친근하신
위대한 장군님!
당신께서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주시며
꺼져가던 가슴마다
힘찬 숨결을 부어주셨나이다

장군님!
우리 민족의 최고령수
김정일장군님!
당신이 계시여
내 나라 내 조국은 길이 흥하리니

아아 새 세기의 태양
장군님 7천만을 령도하시여
김일성민족은 대대손손 복락하리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당신께서는 우리 겨레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구세주이옵니다

분조장의 가을

오피천

소곤소곤 퍼진 말
올해의 가을은
분조장의 가을이라지
분조장의 가을이면
분명하지
우리 분조원들의 가을이지

소곤소곤 퍼진 말
올해의 가을은
분조농사 따져가며 새 종자 싹틔우고
보약비료 넘쳐나게 포전을 결군
분조장의 가을이라지

모내기경쟁에서 우승기도
풀베기경쟁에서 우승기도
한가슴에 받아안고 웃던
분조장의 가을이라지

분조장의 가을이면
여부있나

우리 분조원들의 가을이지

저걸 봐
군이 알고 도가 알고 평양이 알아
우리 분조장 찾아
평양서 사진기자 오는걸

오늘도 방송에선
우리 분조장 농사 줄 진 이야기
래일은 도농사총화에서
우리 분조장
분조농사 잘 지은 경험토론 한다지

아, 장군님 뜻대로
분조농사 잘 지은 우리 분조장
온 나라의 자랑 되었으니
올해의 가을은
분조장의 가을이지
우리 분조원들의 가을이지

열레 외 1편

-한 해외동포가 부른 노래-

김형준

대동강 제방가에서
연 놀이하느 아이들아
이 백발의 늙은이 나무람말고
잠시 연을 인주려마
어린 시절 나의 꿈이 연에 실려오게

《조국통일》 글을 새긴 연
열레를 쥐니 스리슬슬
놓아준 줄따라 훨훨 나는 연
창공을 휘젓는 댕기쫓아
갈매기도 훨훨 나래짓누나

너희들은 좋아라 웃지만
연줄처럼 끝없는 눈물
추억의 샘집을 터쳐 흐르고
열레에서 풀리는 연줄잡고 나는 연은
내 운명과 그 무엇 다르랴

잔디푸른 이 제방 그 어느 돌밑에
나의 태줄이 묻혀있고
빨래터로 나가던 나의 어머니
치마꼬리 잡고 따라나선 발자국
연을 따라 이 가슴에 점점이 밝힌다...

식민지청년으로 갈길잃어
마가울 락엽마냥 굴러다니며
때로는 이역의 변방에 찍은

치욕스런 《반공》의 피젓은 발자국소리도
연줄타고 이 가슴에 들려온다

그 무엇 다르랴
저 연과 나의 운명
만일 나를 지켜주는 품이 없었다면
탕수에 구겨박혀 날음 잃고 숨진
줄끊긴 연과 나의 운명이!...

허나 즐기며난 잎새 없고
태양떠난 해발 없듯
줄끊긴 연과 같은 나의 운명을
그 어떤 광풍에도 끊길세라
나의 운명 튼튼히 지켜준 품이 있었나니-

나의 태줄이 묻힌 제방가에서
열레잡고 창공에 연을 날리니
이 손에 천것은 연줄인가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넋이 된
파연 내 어머니의 태줄인가

오! 연아 네가 내 운명이였다면
열레는 크나큰 조국의 품과 같은것
온 겨레의 운명 한품에 안으신
김정일장군님 그 자애로운 넓은 품에
내 운명 연처럼 불새되어 나는구나

버들매

용서하옵소서 어머니
홍안에 어머니품 떠났던 자식이
불효의 백발을 가득이고 왔으니
왜 이리도 자신이 역겨워집니까

안기고보니 상기도 변함없이
품에서 풍기는 땀내와 젖내는
이 자식을 잊지 못하시는
어머니의 향수입니다

기쁨의 눈물 흘리기엔 늦은 나이
오히려 아픈 매 꼭 안겨주옵소서
저 구들의 퍼렇게 물오른 버들만은
아픈 매 안겨달라 꺾어온것입니다

꼭 때려주옵소서
가슴에 서렸던 치욕의 피멍 툇 터지게

어린 시절 버들피리 불며불어
가난의 설음돈구어 애태우던 그때처럼
매의 가락가락에 피울음소리 나도록
마구 사정없이 종아리쳐주옵소서

-이놈아 너 어데 갔다 이제 왔느냐...
어린 시절처럼 뺨소니 못치게 꼭 잡고
-이놈아 눈물 똑 그쳐 네 잘못 아니...
사람되라 애타시던 그 봉창 다 하시듯

다 익은 난알은 마당길에 싹이 되고
버들가지는 꺾어 심어야 구실하듯
차라리 이 몸 똑 꺾어진 버들되어서
어머니품에 묻혀 다시 태어나고싶소이다

아파 울어야 할 자식은 울지도 않는데
어머닌 왜 자꾸만 자꾸만 우십니까

버들의 푸르름 이 몸에 물들도록 매를 주옵소서
가식없는 어머니의 매는 멍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배는 내 몸과 내 넋에
초록빛 들어주는 따스한 봄비입니다

나는 농장의 딸 외 2 편

엄정희

나는 농장의 딸
우리의 어버이수령님
못잇을 그 가을날 남기신 유혼을
봄이면 새싹들과 가을이면 이삭들과
끝없이 속삭이며 해를 보냈고
또 속삭이며 한생을 살아갈
나는 이 땅의 딸

수령님 먼 남행길 헤쳐 이 벌에 오셨을 때
그 얼마나 하고싶으신 말씀 많으셨으랴만
장군님을 받들어 농사를 잘 지으라고
이 딸의 마음속에 심장속에 새겨주신
아 그 한마디 뜨거운 말씀

인생의 철은 나이로만 헤아리던가
수령님 말씀을 유혼으로 받아안았을 때
어머니 품에서만 맴돌던 이 몸은

피눈물 삼키며 가없는 벌을 안고
낮이나 밤이나 심장의 딸 속삭여왔거니

장군님 받드는 이 딸의 손은 언제면 커지랴
아지를 쳐도 례년보다 더 많이 치라고
포전마다 곡식이 톤으로 더 나라고
온몸에 거름내 흙내를 안고 살아온 이 딸

들에 나서도
잠자리에 누워도
못잇을 8월의 기적소리에 귀기울여 사는
나는 농장의 딸

아, 검은 머리 백발되여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을 지켜
오직 한분 경애하는 장군님을 쌀로 받들어갈
나는 대지의 딸이다

평양하늘

갈천벌에 가을이 오니
아버지장군님 더욱 그리워
이 딸은 바라봅니다
저 멀리 평양하늘 바라봅니다

1년이라 삼백에순다섯날
자나깨나 가고싶은 그리운 평양
때로는 그 하늘의 새가 부러워
애타게 불러보던 이 딸의 마음

별도 그 하늘에 빛나는 별은
나를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눈빛같고
언뜻 스쳐오는 바람결에도
사랑어린 장군님의 음성이 실려오는듯

기쁨드릴 자랑없는 그리움 무엇하랴
정초의 그 아침부터 달려온 한해농사의 나날들
내리는 함박눈보다도 더 짙은 흰김을 울리며
마지막 거름더미 실어낸 날도
나는야 평양하늘 우러렀지

아지랑이 춤추던 봄날에는
언덕진 뒤발에 무연한 앞벌에

6월전에 푸른 옷 다 입혀놓고 바라본 하늘
앞그루 보리이삭 익은 그날엔
강냉이 애기엮은 그 계절엔
만시름 다 잊고서 기뻐 바라본 저 하늘

아 발이라 논이라 황금빛 물든 이 가을
미풍에도 바다처럼 굽실대는 이삭의 파도앞에
서니
가슴가득 차오르는 아뢰임
-아버지장군님, 장군님을 모시고싶습니다
목메여 목메여 우러르는 평양하늘이여

뵈고싶어 뵈고싶어
간절한 마음 달래며 우러르니
몸부림쳐 새가 되어 날고싶은 저 하늘
나도 몰래 두뺨이 젖어드는 이 마음

아 일년을 하루같이
이 딸이 바라보며 산 평양하늘이여
뵈고싶어 다 말못할 그리움만 실었으랴
장군님께 충성다할 이 딸의 맹세를
새기고 새겨가는 내 마음의 하늘입니다

이 딸의 마음

어서 빨리 털어내자고
노상 들썩하던 탈곡장
마지막 벼단까지 털어놓았건만
이 딸의 마음은 저려드누나

산처럼 가려놓은 저 벼통구리들...
허나 어쩐지 가슴은 허전해
한줌 켜 벼알을
쓸어보고 쓸어보는 이 마음아

모내기 끝난 포전의 빈포기를 찾아
찬물속을 더 한번 걸었더라면
내 새벽잠 덜 자고
옷자락을 이슬에 더 적시었더라면

이랑마다 김 한번 더 잡아주고
이삭패던 계절에
거름 한줌 더 뿌렸더라면
알찬 열매 더 맺혔을걸

그랬으면 벼날가리 얼마나 더 높아졌으랴
한해농사 그대로 쌓여진 탈곡장에 서니
장군님께 바치는 이 딸의 충성의 무게가
저절로 가슴깊이 헤아려지나니

참말로 이 딸의 가슴에도 썸이 드는가
산더미같은 쌀의 무게를 앞에 놓고서도
장군님의 딸됨을 다시 생각하는
아, 이 가을날
이 딸은 참나이를 한살 더 먹는가봅니다

사랑해주세요

윤순옥

사랑해주세요 제대군인 동무여
귀중한 내 동무를
인생의 멀고먼 길
검은 머리 될 때까지 사랑해주세요

집에서는 어리다고
동생 한번 업어못본 그 등에
부모없는 세 아기를 업은 처녀
살뜰한 어머니가 된 내 동무를

광부들 새집을 세우던 그날
즐거운 휴식참에도
어머니란 큰 세계를
먼먼 미래의 꿈으로 그려보던
애어린 처녀였답니다

푸른 배낭 이 광산에 풀어놓고
남편이기전에
스스로 아이들의 아버지로 되여준 동무여
그 마음 어련하면만
부탁이에요 내 동무를 사랑해주세요

바람맵잔 겨울날에도
귀여운 《딸》애가 밥맛을 잃었다며
얼음구멍 뚫고 물고기를 잡느라
빨강게 얼어들었던 그 손을
한생 꼭 잡고 녹여주세요

은하수는 멀리 기울었어도
《아들》애가 연이 난다고
온밤 요람결에서 잠못들며
두눈에 맺혔던 그 눈물방울을
한생토록 잊지 말고 닦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부모없는 아이들 있으면
우리 장군님 걱정하신다고
세 아이의 새별눈에
친엄마의 웃음만을 담아주는 내 동무

그대들 두 가슴에
소문없이 피어난 마음의 꽃향기
온 세상에 풍겨주신 장군님 그 사랑
그 믿음 잊지 말고 사랑해주세요

《고난의 행군》길 열백번 걷는대도
그 어떤 바람이 불어온대도
일생을 하루같이 꽃피워주세요
내 동무 고운 꿈을 아껴주세요

아버이장군님 인덕정치의 해발아래
아름답게 피어나는 인간화원으로
우리 시대를 빛내가는
소중한 내 동무를 사랑해주세요

눈물 젖은 숲

종국(림원춘)

1

내가 림업로동자들에 대한 취재를 하려고 장백 림산작업소를 찾은것은 그날저녁때였다. 내가 살던 평강벌 약수동같은 언덕근처 한집 호미귀를 날리려던 산에 꼭 박히워 해빛가난에 든 이곳 림산작업소에서는 벌써 식어가고있었다. 너무 이르게 산그림자에 먹히우고 나무그림자에 가리운 림산마을은 듣던 말 그대로 수풀에 포근히 싸여서 코를 고는 백두산밀 첫동네였다.

머나먼 려로에서 휘발유내와 땀내에 무던히 절고 먼지에 복이고 튀기가 뻤던 나는 산소갈증을 만난 사람처럼 자동차에서 내리자바람으로 대자연이 선물한 시원하고 싱그러운 수풀에 려과되고 나무우듬지에 다듬어진 산천의 정갈한 공기를 탐욕스레 감쌀아들었다. 수려한 두메골이었다. 남산기슭에 벽돌집들이 울방자를 틀고앉은 림산마을은 가지 흐느러진 장백의 미인송을 고수머리처럼 머리에 띠이고 남골북골에서 흘러내리는 거울같은 개천으로 푸른 스카트를 강푹하게 입은 잘룩한 허리를 질끈 동인 미녀였다. 서쪽바람벽과 북쪽음달에는 아름답리 잣나무와 이깔나무가 꼭 막아서고 개펄과 느슨한 골짜기엔 붓나무며 느릅나무, 박달나무가 어깨걸고있었다. 푸르른 세계- 풀내와 송진내를 물씬물씬 풍기는 산천의 공기도 파랗고 태고연한 원시림을 깔고앉은 하늘도 파랗고 바위에 이마빼기를 얻어맞고 하얀 거품을 토하는 벽계수도 파랗고 온통 파아란 세계였다. 빨간 기와엮은 림산마을은 이 거대한 푸른 잎사귀에 받들리운 한송이의 진달래였다.

마을앞 석개울에 드문히 박혀있는 징검다리까지 다가선 나는 그 맑은 물에 몸을 잠그고싶어 퍼더버리고앉아 신을 벗기 시작했다. 내가 다리를 척 걷어올리고 오뉴월에도 쨍쨍 얼어드는 내물에 들어서서 징검돌우에 엉덩이를 붙이려는데 동산기슭 잣나무속에서 뭔가 빨간것이 움찔움찔 하는것이 눈에 날아들었다. 어찌보면 수림속에서 하느작거리는 참나리꽃같았고 어찌보면 수풀속에서 풀을 뜯고있는 매화사슴같았다. 나는 푸른 세계와 완전히 다른 색조를 가진 언플언플하는 그 붉은점에서 눈길을 버릴수가 없었다. 망망한 푸른 바다에서 반짝이는 등대처럼 푸르른 대자연속에서 나타난 그 반디불같은 붉은점이 의혹의 자기마당처럼 나를 끄잡아당겼다.

그 붉은점이 점점 커지면서 나의 동공에 날아들었다. 사람이었다. 사람이라는것이 확인되는 그

찰나 무엇인가를 기대하다가 그 궁금중이 확 풀리며 맥빠진것처럼 나의 흥취도 대뜸 사그라들고 말았다. 나는 시들먹해서 발을 씻은 다음 제법 옷통까지 벗어제끼고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

내가 한창 머리에 비누거품을 일구고 물을 끼얹어대는데 내가에서 무언가 달각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습관적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 빨간 점이였다. 경찰복장을 단정히 입고 어깨에 낫은 구구식보총을 인 녀삼림경찰이였다. 그녀의 왼손엔 빨간 털자켓가 들려있었다. 나의 눈길은 인츰 그녀의 두 점을 겨누게 되었다. 보기 힘든 녀삼림경찰이라는 그 한점과 언녕 박물관에 들어갔어야 할 구구식보총을, 그것도 녀인이 메고있다는 그 한점이였다.

그녀는 내가에서 내 행동거지를 살피면서 망설이고있었다. 내가 짐검돌 하나를 척 차지하고 제법 주인공세를 했으니 내를 건널수 없었던것이였다.

《이제 미안합니다.》

나는 물이 줄줄 흐르는 머리 그대로 부랴부랴 저고리를 걸어안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마저 감으세요.》

영? 어텐가 귀에 익은 소리였다. 나는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

나의 놀라는 표정에 그녀의 눈도 또다시 나의 각을 뜨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면서 황황해나기 시작했다. 눈초리를 파르르 떨었다.

《옥설이, 딱따구리 아니야?》

《뚝쟁이?》

《웁아, 나 뚝쟁이야!》

나는 침범침범 온몸에 물을 튕기면서 강가로 달려갔다. 옥설이였다. 학교문을 나선후로 소식을 봉쇄해버렸던 그 옥설이였다. 두메산골 진동나무속에서 만나다니? 정말 꿈같은 일이었다. 학교 다닐때만 해도 바이올린니스트로 된다면 책가방보다 바이올린에 정신이 팔린 옥설이였다. 남먼저 분세수를 배우고 불이 펴 나게 시체뿔을 부리던 그녀가 나가도 나무요 들어와도 나무인, 하늘에도 나무요 땅밑에도 나무인 사시장철 나무와 음박곡질하고 나무와 싱쟁이질하는 심심산골 림산작업소에 불박혀있다니?

《여직까지 여기서 살았소?》

옥설이는 머리만을 살짝 끄덕였다.

《아유, 밀폐된 공간, 격리된 세계에서 늘어지게는 살고있구먼?》

《뚝쟁이!》

옥설이는 눈귀를 살짝 들었다놓으며 입술에 옷을 물었다.

《아- 그 말 들어본지가 오래구먼. 쪽쟁이... 귀맛 좋지!》

《어떻게 되어 이런 산골까지 찾아왔어요?》

옥설이는 사십고개를 넘겼건만 처녀애들처럼 귀밀을 살짝 붉히며 물었다.

《딱따구리를 찾자면 진동나무속에 와야 하거든?》

《익살쟁이 자, 가자요. 우리 집이 바로 물건너저 강옆집이에요.》

나는 옷을 대충 주어입고 옥설의 뒤를 따랐다. 낫설고 물선 고장에서 옛동창을 만나니 여간 반갑지 않았다.

산 좋고 물 좋아서 그런지 옥설이는 후리후리한 키에 알맞춤한 살점을 엮고있어 40대의 한창 피어나는 숙성미를 보여주고있었다. 예술을 한다며 허리통을 조이고다닐 때의 여리고 가냘픈 모습은 전혀 찾을길 없었다. 피부속 그 어텐가 남성적인 세포를 무드기 담고있을듯한 그런 건강미를 자랑하는 몸매였다.

집에 들어서자 옥설이는 어깨에 메었던 총을 북쪽구들벽우에 걸어놓았다. 총을 걸어놓은 그옆 못에 귀가 다슬어빠진 바이올린케스가 걸려있었다. 저 바이올린이었다. 상학할 때나 하학할 때나 책가방과 함께 언제나 어깨에 메고다니던, 그래서 《너바이올린니스트》라고 놀림받고 조롱받던 그 바이올린이었다. 나도 남에게 질세라 놀려주지 않았던가. 이제 검은 칠이 벗어져서 얼룩이 가고 모서리천이 다슬어 보풀이 일기는 했지만 저 케이스속에는 짙짙한 윤기도는 바이올린이 누워있을것이다.

《지금도 바이올린을 켜오?》

《답답할 때 그리구 생각날 때 가끔 들어보군해요.》

《남편도 이 림산작업소에서 일보우?》

《네, 자, 곤하신편데 누우세요!》

나는 사양하지 않고 베개를 베고 누웠다. 하지만 눈길은 집안에서 배회하고있었다. 나무고장인데도 이상하리란만치 집안이 웅덩그렁하다싶을 정도로 가정귀물을 갖춰 놓은것이 없었다. 그저 서툴게 짠 낫은 이불장 하나가 외롭게 놓여있을 뿐이었다. 결불 안이라고 집안을 보니 이 집 주인을 알만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치우고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넘기는, 시골에 풀썩 깔리운 그런 사람일것이다. 아니면 래일 빠져나가오 모레 들고뛰오 하면서 풀안신세를 면해보려고 신뒤축이 다슬지경으로 하루 멀다하게 시가지쪽으로 나들이하는 그런 사람일것이다.

옥설이가 깨우는바람에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밖이 어둡시그레할 때였다. 로독이 올라 쪽잠을 잤던 모양이다.

북쪽구들엔 벌써 꾸집한 저녁상이 놓여져있었

다. 상우엔 닭고기며 장줄임했던 메돼지고기며 닭알지짐, 더덕구이, 오이김치, 고사리채... 산중진미들로 그득했다.

《주인은 여직 안왔소?》

《 시내에 갔는데 래일쯤 오실거예요.》

《이거 술맛이 가겠는데?》

《제가 있잖아요?》

《애들은 어데 갔소?》

《여기엔 학교가 없다보니 몽땅 시내에 가 공부해요.》

《몇이요?》

《아들 하나. 그런 말씀 뵈다 하시구 저녁들자요.》

우리는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무슨 일로 이 끝안을 찾으셨어요?》

옥설이 내 접시에 닭의 다리를 각을 떼어놓으며 물었다.

《소설감이나 하나 쥘가 해서.》

《좋은 일자리군요.》

《종다는게 뭐요? 내 머리를 보오. 마흔고개를 방금 넘었는데 벌써 반백이 됐소. 글쟁이들은 제 고기를 뜯어먹고 제 피를 빨아먹고 제 뼈를 갉아 먹으면서 글을 쓴다니까. 그러면서 말밥에는 오르지 않는줄 아우?》

《그래도 붓대를 쥐는 일은 우리보다 쉽지요. 나무와 씨름하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줄 아세요?》

《육체로동이니까.》

《아니예요. 적막과 고독이에요.》

《적막과 고독?》

《그래요. 세상과 유리된 작디작은 소천지, 이것이 림산마을이예요.》

옥설이는 빈잔에 술을 부으며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여기로 오게 됐소?》

《꼭 알아야 하나요?》

《소설가라지 않소?》

《차츰 알게 되겠지요.》

《수수께끼네?》

《한토막 우화에 지나지 않아요. 이 림산마을은 림해의 파도를 헤가르며 나가는 하나의 쪽배예요. 자칫하면 암초에 부딪쳐 산산조각이 날수도 있고 자칫하면 거센 풍랑에 휘감겨들어 수림의 수령에 빠져들어갈수도 있구요. 우리는 림해의 어부들이예요. 림해를 지키고 림해에서 나무를 건져내는 림해의 어부들이란말이에요. 그래서 림산마을사람들의 마음은 거칠고 뜨거운거예요.》

《시적인데?》

《극상 봐냈다는것이 그런가요?》

소리없이 잔이 오갔다. 나는 술잔을 놓으며 옥설이를 쳐다보았다. 얼굴 어데를 조금만 다쳐도 땀구멍마다에서 걸쭉한 눈물이 샘솟듯 쏟아져나올듯싶은 그런 슬픔과 분노가 반죽된 표정이었다.

옥설이가 이고장 귀신으로 된것이 수수께끼일뿐 아니라 옥설이 스스로가 수수께끼 인물이었다.

나는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일었다.
《주인이 안계셔서 집에 모시지 못하는걸 용서하세요.》

나는 옥설의 길안내를 받으면서 러관방 아닌 러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예술세포로 짝 찬, 옥설이가 무엇때문에 삼림경찰이 됐을까? 권총을 차야 할 녀인이 낡은 보총을 왜 메고다닐까?

이튿날아침,

옥설이 조반상 차려놓고 나를 데리러 왔다. 푸른 스카르치마에 연분홍적삼을 받쳐입고 하얀 삼각수건으로 머리를 잘끈 동인 옥설이는 수놓은 행주치마로 허리를 가튼하게 조이고 내앞에 나타났다. 얼굴에 웃음이 남실거리고있는 예전의 옥설그대로였다. 원래의 그녀로 돌아가서일까? 아니면...

나는 옥설이네 집 문턱을 넘어서자바람으로 벽에 걸려있는 구구식보총부터 벗겨들었다.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면서 이 어깨 저 어깨로 물려있었던 보총, 지금 한 녀인과 어깨동무하면서 삼림을 지켜나선 보총이었다. 이름모를 한 삼림지기의 손땀에 젖고 손기름에 반들반들해진 보총이었다. 나는 한쪽귀가 문드러져 나간 총박죽, 진이 빠져서 섬유 몇가닥이 거칠게 일어난 손잡이를 어루쓸며 들창밖에 펼쳐진 무연한 산밭들을 내다봤다.

《왜 그러세요?》

옥설이 총과 나로부터 눈길을 돌리며 물었다.

《옥설이, 뭔가 나를 속이고있지!》

나는 보총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옥설의 눈길을 되끄잡아왔다.

《속이다니요?》

《속이고있소. 틀림없이 속이고있소.》

《주인집량반이 말하던가요?》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용서하세요. 더께 앉은 상처를 푸지기가 얼마나 피로운가를 알아준다면 말이에요.》

《내가 작가라는걸 이해해준다면...》

《알겠어요.》

옥설이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두줄기의 눈물이 속눈썹을 비집고 뾰족뾰족 솟아올랐다. 그 눈물에 내 마음도 젖어들고말았다. 여리고 가냘픈 녀인의 가슴에 새 상처를 남겨주다니?

《또다시 피로운 상처자국을 푸지는 일이라면 용서하오. 말하지 않아도 괜찮소.》

《아니예요. 피로움은 피로움으로 뭉뚱려야지요. 20여년전이었어요....》

20여년전,

미래의 바이올린니스트는 바이올린을 더는 다시 들수 없었다. 그에게 바이올린을 들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버렸다. 이마빼기에 딱지를 붙이고

농촌에 내려간 옥설이겐 그런 호화로운 자유가 없었다.

옥설이는 사람이 싫었다.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에 그녀는 고독한 인생을 찾기 시작했다. 사람이 없는곳, 자기를 건드리지 않는곳, 그런곳으로 가고싶었다. 외롭고 적막한곳에서 잃었던 안온을 찾고 잃었던 평형을 찾고 잃었던 희망을 찾고싶었다. 인멀미 날지경으로 사람이 싫었고 사람들속에서 산다는 그 생각마저 그녀를 몹서리치게 했다.

그때, 바로 그때 《장백의 수리개》라는 큰 제목으로 신문 제2면을 몽땅 차지한 장백림산작업소의 산지기-리영철이를 소개한 기사가 실렸었다. 수모와 버림, 고뇌와 번민에 모대기던 옥설이는 그 즉시로 자기를 안해로 받아달라는 만장같은 편지를 띄워보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답서는 한장의 뻥뻥한 쪽지였다.

《우리고장은 녀인들이 살만한곳이 못됩니다. 도회지나 별방처녀들이 살곳은 더욱 아니구요.》

중학교문턱을 넘어본것 같지 않은 서툰 글씨였다. 하지만 획을 꼭꼭 박아썩었다는가 획이 비뚤곳은 재벌그움을 한 글씨를 보면 그 남성의 성의와 성품을 보고도 남음이 있었다. 편지내용은 차가웠지만 글체는 뜨거웠다. 옥설이는 직접 당자를 만나기로 작심했다. 그녀가 그녀자신을 구할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갈래, 지금의 환경에서 해탈하는 그것이었다.

기차로 몇백리, 뺨스로 몇백리, 도보로 몇십리 기진맥진한 옥설이 장백림산작업소에 이르렀을 때는 통나무연통들이 저녁연기를 토하느라 숨을 헐떡이는 한창때였다. 귀틀막 네채가 남산굽이에 오도카니 앉아 흰 연기를 말아올리는 산간마을, 이것이 옥설이를 기다리는 림산작업소였다.

늦가을이라 달이 폭 올라 울긋불긋 단풍 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떠난지 이틀밖에 안되는데 이곳 천리 림해에는 벌써 된서리까지 내려 터밭곡식들은 물론 나무이파리까지 시래기로 돼버린채 습습한 땅에 깔려 산짐승들 발에 밟히고있었다. 네 호마울은 입을 몽땅 뜯기우고 오돌오돌 떠는 앙상한 떡갈나무가지처럼 애처롭고 가냘프고 호젓하게 살고있었다. 그 나무이파리 그 나무우듬지처럼 옥설의 마음도 급작스레 서글퍼졌다. 그때에야 그녀는 뻥정해지는 스스로를 발견할수 있었다. 누구를 찾아오는것일까? 무엇때문에? 이것이 그가 찾으려던 무릉도원이란말인가? 현실은 너무나도 무정하고 뻥혹했다.

옥설이는 징검다리를 건널 엄두를 못냈다. 맥푼 다리보다 더 맥푼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떠날적만해도 무언가 알수 없는 기대를 품고있었는데 엄혹한 현실은 그녀의 그 가들가들하는 한가닥 기대마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 무엇때문에 누구를 찾아 이런 심심산골에 왔을까?

한발작 내디딜수도 그렇다고 되돌아설수도 없었다. 그녀가 알고있는 땅덩어리는 너무나 컸었다. 하지만 그녀가 설 자리는 너무나 작았다. 아마 그 어데 가나 그녀가 설 자리는 없었다.

터벅터벅 등뒤에서 묵중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옥설이는 얼음장같은 가슴을 떨며 돌아섰다. 그녀의 앞에 낡은 군모에 퇴색한 군복을 입은 억대우사나이가 서있었다. 옥설의 눈길이 그 사나이의 얼굴에 미치기도전에 그는 반경을 그리듯이 옥설의 곁을 빙 둘러 징검다리에 올라서는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큼직한 붉은 점이 푹푹 박힌 팔뚝같은 이면수와 손뼉같은 붉은 산천어를 쥔 고기썩이 들려있었다.

《저- 말씀 좀 물읍시다.》

그제야 꺾진 사나이는 징검돌우에 한발을 올려놓은채 몸을 뒤달며 옥설이를 뜯어보는것이였다.

《실례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리영철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옥설이는 신문에 실렸던 얼굴을 떠올리며 물었다.

《네, 그런데...》

《전 김옥설이라 불려요.》

《김옥설?》

영철이는 그 인상깊은 술진 눈섭을 량미간쪽으로 몰아붙이며 되물었다. 뭔가 생각하는듯한 표정이였다. 옥설이는 그 생각하는듯한 수동적인 표정이 미웠다. 생각할 여지가 없어야 했다. 한 처녀의 고백을 듣든지 열흘뿐히 되겠는데 그 이름을 설게 되물어오다니? 몇글자 되지 않는 그 쌀쌀한 회답을 받았을 때보다 옥설이는 더 섭섭했다. 천리길 마다하고 찾아까지 왔는데 그 첫대면에 이름이 설수 있단말인가?

《한 처녀의 편지 받은적 있지요?》

《있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예까지 찾아왔소?》

인상적인 붓초리같은 눈섭이 또다시 량미간으로 좁혀들었다.

《직접 제 눈으로 보고파서요.》

《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요? 못올곳으로 왔나요?》

《옥설인... 오지 말았어야 했소.》

영철의 어깨가 급시에 꺼지듯 처져내렸다.

《온바하군 앓을 자리나 마련해줘야지요?》

《이제 찾아온걸 후회하게 될거요.》

몰인정한 사나이는 머리를 푹 떨구더니 그 맵시 그대로 징검다리를 경충경충 밟으며 건너갔다. 뒤에 눈길 한번 팔지 않고 인사 한마디 없이...

옥설이는 그자리에 풍덩 물앉고말았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만 쏟았다. 저런 미륵불같은 사나이도 사나이로 믿고 찾아오다니? 그때에야 그녀는 스스로의 행동이 얼마나 경박하고 소홀했던가를 알았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나 늦었다.

점점 날이 저물고있었다. 우중충한 산들과 무

성한 수림이 뽁-뽁- 울면서 하늘을 메우고 땅을 덮치며 무시무시한 어둠을 몰고왔다.

옥설이는 벌떡 일어섰다. 물집진 발이 통증을 알려왔다. 그녀는 옷가지와 생활용품이 들어있는 작은 트렁크를 들고 징검다리에 올라섰다. 되돌아간다 해도 하루밤 묵을 자리는 있어야 하고 텅 빈속은 굶어야 했다. 그녀는 너무나 지쳐있었다. 너무나 주려있었다. 첫 징검돌우에서 다음 징검돌을 디디려던 그녀는 더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디찬 물속에 끈지고말았다.

누군가 침범침범하는 물소리뿐이였다. 억센 팔이 옥설의 허리를 감았다. 옥설이는 대단한 팔이라는, 그런 팔을 여직 본적 없다는 생각만을 간직했다. 그녀는 선뜻 들리워 아니 꼭 안기워 물을 건지고있음을 민감한 처녀의 피부로 느꼈다. 그리고 그 팔의 임자가 누구라는것도 다급한 숨결이 알려왔다.

《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에 나와 팔을 풀며 영철이 혼자소리처럼 되풀이했다. 어느새 어떻게 쥐였는지 그의 손에는 옥설의 작은 트렁크가 들려있었다. 그는 쓰러지듯 비칠거리는 옥설이를 내동댕이친채 군말 한마디없이 트렁크를 들고 성큼성큼 앞서 걷기 시작했다. 무뚝뚝이였다. 옥설이는 절뚝절뚝 힘겨웁게 자욱을 떼었다.

영철이 사는 귀틀집은 단칸방이였다. 비닐천을 댄 피창과 널 몇쪽을 무어 만든 바당문 하나, 그것이 귀틀막에 붙은 전부의 문이였다. 내굴에 까맣게 끄슨 부뚜막엔 작은 술 하나와 쟁개비가 걸려있고 어데서 주어왔는지 덮개없는 상자를 가로놓혀놓은, 식장이나 쌀독으로 쓰는 께짝이 당실하게 놓여있었다. 북쪽벽엔 걸옷, 훌옷 할것없이 철모르기처럼 때를 가리지 않은 옷들이 마구 걸려있어 옷장이자 옷걸이를 방불케 했다. 벽은 언제 회가루맛을 봤는지 흰색갈을 찾을수 없이 되었고 천정에선 거미줄이 그네를 뒹고있었다. 물고게워놓은 외도톨의 집이였다.

옥설이는 낮선 집안을 눈도적질하며 물벼락을 맞은 신부터 벗기 시작했다. 화끈화끈 열이 나고 쏙쏙 싸나는 발이 오금을 졸라매고있어 몸을 움직일수가 없었던것이다.

영철이는 좋다굿다 말없이 부엌아궁이에 장작개비를 시리우고있었다.

《옷을 바꿔입어도 될가요?》

옥설이는 물참봉이 된 옷매무시를 여겨보며 뜨직뜨직 말했다. 그제야 영철이는 부엌에서 얼굴을 내보이며 옥설이를 쳐다보았다. 벽에 걸린 석유등잔불이 펄럭펄럭 별에 탄 그의 얼굴에 얼룩이를 그리며 희미한 광채를 뿌리고있었다. 영철이는 얼른 도끼를 찾아쥐더니 바당문을 떼고 밖으로 나가는것이였다. 잠시 지나 밖에서 나무패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엌에선 찌지직 탕탕 장작개비가 타고 술에선

구수한 가마치냄새를 풍기며 승농이 설설 끓고 있었다.

옷을 바꿔입은 옥설이는 가마목에 다가가 승농 한사발을 떠서 입으로 훌훌 불며 마시기 시작했다. 쌀 우린 물이라 대뜸 속이 후끈후끈해나고 초기기를 말리면서 얼었던 몸이 녹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발밑굽에 붙은 물가마치까지 마셔버리려고 한사발을 입에 가져다댔을 때 두툼한 손이 덮치듯이 사발을 거머쥐는 것이었다.

《참소. 생선국을 인츰 끓일테니.》

《저... 갈증... 이 나...서...》

옥설이는 도적질하다 붙잡힌 애들처럼 낮을 밝히며 주인의 얼굴을 쳐다봤다. 보기 좋게 구레나룻이 흘러내린 영철의 뺨볼이 좌우로부터 협박하면서 만들어진 우람진 체통이거나 너부죽한 얼굴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싶은 작은 입이 무언가 말하려고 살짝 움직이다가 그자리에 얼어붙고말았다. 그 입술은 그리도 참지 못하겠어 하고 질책하는 것 같기도 했고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것 같기도 했다. 옥설이는 그 구레나룻과 그 입술이 맘에 들었다. 송진에 절은 몸에서도 인정미가 풍기누나싶으면서 다소의 위로라도 받을 수 있었다.

영철이는 노루가죽으로 집을 만든 사냥칼과 고기괘를 들고 일어섰다.

《쌀이 어데 있어요?》

《괘짝안에.》

영철이는 아까 도끼를 들고 나갈 때처럼 고기괘를 들고 썩 나가버렸다.

옥설이는 호-하고 한숨을 쉬면서 식장이자 쌀독으로 쓰는 괘짝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석유등불이 긴 꼬리를 끌며 깜박깜박 줄고있었다.

술에선 찌찌찌찌 밥이 잦아가고 쟁개비에선 보글보글 산천어국이 끓고있었다. 옥설이는 가시데 없는 부뚜막에서 밥그릇과 사발을 가시기 시작했다. 영철이는 부엌아궁이를 마주하고 앉아서 풀썩썩썩 엽초를 태우며 부지깽이로 불만 뚜지고있었다. 어색하고 군색스런 행동거지였다.

옥설이는 밥과 국을 떠놓고 영철이를 기다렸다. 영철이는 부엌에 앉으니 자리 움쭉하지 않고 그대로였다.

《옥설인 오지 말았어야 했소.》

영철이는 처음으로 그토록 오래 옥설이를 내려다보다가 가마밑굽을 굽으며 뜬 가마치밥과 물고기대가리쪽으로 골라담은 국그릇을 들고 옷발치로 가는 것이었다.

《그건 제가 먹자고 뜬거예요.》

《어두일미라지 않소?》

영철이는 이불을 엮은, 언제 종이맛을 봤는지 신문지가 누렇게 뜬 괘짝을 열고 손더듬질하더니 술병을 붓고는 그 술종지를 옥설이앞에 놓았다.

《전 술을 몰라요.》

《산사람들은 이걸로 로독을 꾸오.》

《마셔야 하나요?》

《마시오!》

마시라는 그 말에는 어텐가 명령식 냄새가 다문했다. 옥설이는 더는 다시 거절할수가 없어 눈을 찔끔 감고 한모금 넘겼다. 그제야 영철이는 술병을 한참 여겨보다가 괘짝속에 넣고는 퍼더버리고 앉아서 산천어국에 밥을 조겨대기 시작했다.

《왜 술을 마시지 않아요?》

영철이는 대답대신 머리를 저어보이고는 불이 메여지게 밥과 국을 연신 떠넣었다.

식사가 끝나자 영철이는 벽에 걸린 색바랜 군인의투를 벗겨들고 바닥에 내려서는 것이었다.

《빗장을 질러도 되고 지르지 않아도 되오. 안심하오.》

《제가 옷발치에 자겠으니 여기에서 쉬세요.》

영철이는 버릇처럼 도리머리를 했다. 그리고는 옥설이를 내려다보다가 외투를 어깨에 걸치면서 바당문을 나갔다. 그의 발자국소리가 멀어져갔다.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사나이, 옥설이는 외로웠다. 낮설고 물선 고장에서 오두막에 홀로 있다는 그 생각만 해도 섬찝했다. 심산속에 거간을 두고 앉았던, 낮에 보았던 립산마을 그 귀틀막 하나를 스스로가 홀로 점유하고있다는, 꿈이거나 환상이 아닌 현실로 되고있다는 그자체가 옥설이를 놀라게 했고 공포를 자아내게 했다.

그물그물 실오리같은 그을음을 날려올리며 석유등불이 가물거리고 천정에서 먼지를 들썩 거미줄이 흔들흔들 춤추고있다. 적막하고 고독했다. 적막과 고독을 그토록 바랐고 그 적막과 고독을 찾아 발이 부르트게 백두산밑 첫동네를 찾은 그녀가 아니었던가. 바라던 것이 급시에 찾아와 외로울가 아니면 이것이 그가 바라던 그 적막과 고독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색조를 가져서일까? 어쨌든 그는 피로왔다. 피로운 밤이었다.

소쩍소쩍...

밀립의 고요를 깨뜨리며 소쩍새가 울고있다. 접동새소리는 수풀에 먼지를 털고 송진에 티를 묻혀낸 청량한 밀립의 밤공기를 흔들며 처량하게 울렸다. 옥설이는 잠들수 없었다. 진저리나도록 지루한 밤이었다. 그녀는 새벽녘에야 쪽잠을 들었다.

베익하는 바당문소리가 났다. 새우잠에 들었던 옥설이는 화닥닥 일어났다. 바당에 영철이 나타났다. 그제야 그녀는 동창이 흰히 밝았음을 알았다.

영철의 머리카락과 털외투에 지푸라기가 달려있었다. 고산지대 가을벌에 타고 산바람에 끄는 영철의 적동색 얼굴이 소나무껍질처럼 보풀이 일고 그밑으로 하얗스름한 새살이 깨알처럼 내리비

치고있었다. 우툴우툴 잘 여문 울감자처럼 얼굴이 꺼질꺼칠하기는 했지만 보기 좋게 들어앉은 눈확속에 희다못해 파랗게 보이는 흰자위와 그 포위권에 유리알처럼 들어박힌 검은자위와 동공에서는 산사람만이 갖고있는 열기가 활활 쏟아져 나오고있었다.

밖에서 밤을 패다니? 옥설이는 더는 그 지푸래기를 쳐다볼수가 없었다. 그 지푸래기는 서리내리는 늦가을 한밤의 랭기를 몽땅 끌어다 작은 귀틀집에 털어놓은것처럼 써늘한 감을 주었다. 옥설이는 눈물에 젖어있었다.

《머리에 달린 그 지푸래기를 보세요.》

《음?》

《밖에서 주무셨지요?》

《아니 나무를 패다가...》

영철이는 못할 일이나 저지른것처럼 몸둘바를 몰라하며 이렇게 얼버무렸다.

《나무패는 소리를 못들었는데요?》

《저- 잊을뻔했구먼.》

영철이는 덤벼치며 나가더니 엿저녁에 뺨을 파서 달아뻤던 이면수 두마리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머리카락에선 그 지푸래기가 지꽃게 붙어다녔다.

영철이는 부엌에 쭈크리고 앉아 장작개비를 서리우고 부지깽이를 놀리면서 더는 다시 머리를 들념 않았다. 지푸래기를 단채...

아침을 들고나자 영철이는 말없이 일어나갈 차비를 했다. 신발까지 다 동인 다음에야 영철이는 구들턱에 걸터앉으며 품에서 돈 30원을 꺼내는 것이었다.

《차비나 하오.》

《네?》

《간수하고있는것이 이것밖에 없소.》

《돈 비락질 온줄 아세요?》

《적다고 그러오?》

《싫어요!》

옥설이는 눈물을 왈칵 쏟았다.

《위낙 오지 말았어야 하는건데... 헤잇, 오지나 말거지!》

영철이는 잘 가라는 인사말 한마디 없이 바당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어디로 무슨 일간다는 말한마디 남기지 않고 그 옥중한 발걸음소리만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그날 옥설이는 귀틀집을 떠나지 않았다. 아니 떠날수 없었다. 통기진 발을 끌고 몇십리가 아니라 몇리길도 걸을것 같지 않았다. 아니 그녀의 마음이 갈수 없었다. 어쩐지 해야 할 말을 다 한것 같지 않았고 들어야 할 말을 다 들은것 같지 않았다. 어텐가 부족했고 어텐가 미타했다.

옥설이는 하루해를 어떻게 넘겼는지 몰랐다. 홀로 하염없이 눈물짓다가는 먼지털이를 하고 울다가는 부뚜막을 깨끗이 거둬질하고 일과 눈물로

그 지루한 하루해를 넘겼다. 그녀는 일찍 저녁을 지어놓고 영철이 들어서기만을 기다렸다.

밖이 어둑어둑해질 때에야 귀에 익은 그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종일토록 기다려온 그 발자국소리였다. 행여나 하면서 바라오던 발자국소리였다. 옥설이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둑시그레한 구들에서 까딱 앓고 그 발자국소리에만 귀를 강구었다. 드디어 그 발걸음소리는 바당문앞에 와 멎더니 삐익- 하고 바당문이 열렸다. 영철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자리에 굳어진채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끝내... 가지 않았구만.》

한참 지나서야 백두산폭포의 울림같은 웅글진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발이 부르터서 걸을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불을 켜지 않았소?》

《불빛을 보고 피해갈가봐서요.》

옥설이는 그제야 성냥을 켜가지고 석유등잔에 불을 달았다. 어둑속에서 불빛을 본 집안은 대뜸 환해졌다. 모든것을 정돈하고 깨끗이 닦아낸 옥설의 그 손부리에서 더 밝은 빛이 흘러나왔다. 영철이는 대뜸 그것을 눈치챘다.

영철의 손에는 어제처럼 몇근 잘 나갈 이면수 서너마리와 여라문마리 잘되는 산천어가 버들꼬챙이에 꿰들러있었다.

《발이 부르터도 갔어야 했소.》

역시 정 떨어지는는 그 말이였다.

《너무 무정하지 않아요?》

《이다음 후회하게 될거요.》

영철이는 대답대신 옥설이를 이윽도록 지켜보다가 구들턱에 걸터앉았다.

옥설이는 부랴부랴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국은 따로 떴지만 밥은 한그릇에 담았다. 엿저녁처럼 제각기 제 점령구에서만 주인공세를 하는 그런 못난 연극이 또 벌어질가봐서였다. 그녀는 주부가 되거나 한것처럼 제법 영철의 께짜를 열고 술병까지 꺼냈다. 그리고 종지에 반나마 부었다.

《자, 들어요.》

《모른다지 않았소?》

《산사람은 술로 로독을 푼다면서요?》

옥설이 술종지를 받쳐올렸다. 영철이는 술종지를 받아 꿀꺽하고 한모금 마시고는 말없이 이면수고기점을 입에 넣는것이였다.

《마시겠소?》

《전 정말 몰라요.》

영철이는 더 권하지 않고 또 한모금 꿀꺽하고 마시더니 구레나룻이 덮인 볼따구니와 입술을 쓱 씻으며 벌쭉 웃었다. 옥설이로서는 처음 보는 웃음이였다. 웃음을 모르고 태어난 얼굴인가싶더니 털보얼굴에도 보기 좋은 웃음이 있었다.

《엿저녁에는 왜 마시지 않았어요?》

《그예 알아야 하오?》

《알고싶어요.》

《여기서는 술이 여간 귀하지 않소. 돈을 주고도 살수 없으니까.》

영철이는 하지 못할 말을 한것처럼 얼굴을 붉히면서 옥설이를 건너다봤다. 옥설의 얼굴도 붉어있었다. 엿저녁 자기에게 술을 찌워주고 술병을 들고보다가 마개를 퐁퐁 막던 영철의 거동이 새삼스럽게 안겨와서였다. 얼마나 마시고싶었으면 들고 보기까지 했을까? 눈치 무딘 여자, 남자들의 마음을 도적질할줄 모르는 여자, 옥설이는 엿저녁 스스로를 질책하고있었다.

《옥설이, 애초에 여기로 오지 말았어야 하거니와 오늘 꼭 갔어야 했소.》

술이 몇모금 들어가자 영철의 그 무거운 입이 헤물사하게 움직였다.

《왜서요?》

《보다싶이 옥설이같은 녀인들은 이런 고장에 와서 못사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옥설인... 옥설인 너무 고와!》

영철이는 그 말을 뱉어버린 입술을 지저뎡양으로 인츰 종지를 입술에 갖다대었다. 그의 얼굴이 검붉게 익어갔다.

《옥설인 산에 살긴 아까운 여자야. 또 살수도 없구. 옥설이같은 고운 여자는 도회지에서 살아야 해!》

《제가 원한다면 어찌했어요?》

《안돼, 안된다니까. 우리 립산마을은 명색종계네호가 산다지만 이웃집 령감로친을 내놓고는 몽땅 흠애비들이야. 녀자들이 왔다가는 몇달 되기전에 달아난다니까.》

《장가들었됐어요?》

《장가를 들었건 들지 않았건 혼자 살면 흠애비지 뭐야. 기실 우리 네호 마을은 흠애비마을로 소문있거든.》

《이때까지 녀자친구 없었됐어요?》

《오려는 처녀들이 없었거니와 처녀들 만나기가 겁났어! 흠애비 신세가 되느니보다 차라리 더꺼머리총각으로 사는것이 낫지 뭐야.》

《저를 받아주지 않겠어요?》

《안돼! 데려다 고생시키고싶잖아!》

《제가 원한다면요?》

《그래도 안돼! 옥설인 산사람으로 될수 없구 또 산사람으로 돼선 안돼!》

영철이는 그 말을 피롭게 뱉어버리고는 꿀꺽하고 종지굽을 비웠다.

《저의 아버지가 자살한걸 꺼려서 하는 말씀 아니요?》

《아니야. 우리 산사람들은 그따위걸 상관하지 않아! 제발 빌어. 내 녀동생으로 돼줘. 그러면 고맙겠어.》

《아니 안해로 되겠어요.》

옥설이 딱 잡아챘다.

《이제 그 말 후회할거야. 후회하기전에 그 말 물려버려!》

《저를 몰아내지만 말아주세요.》

그들은 한참동안 말이 없었다. 할 말도 없었다! 그들은 그렇듯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상대방의 얼굴만 지켜볼뿐이었다. 영철이는 불타는듯한 옥설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도 불타고있었다.

《자, 먹어, 실컷 먹어. 도회지나 벌방에선 이런 이면수거나 산천어는 구경도 못하는 물고기야!》

영철이는 제 국그릇에 담긴 가운데 토막을 집어 옥설의 국그릇에 넘겨놓았다.

《더 드실래요?》

《암 들지, 술맛 나는데 더 들고말고. 옥설이도 한잔 하지?》

《한모금만.》

영철이는 옥설이 부은 술을 한모금 내고 종지를 넘겼다. 옥설이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한모금 넘겼다. 이밤을, 이 뜻깊은 밤을 그저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영철이처럼 그녀의 마음도 흥분의 족배를 타고싶었다...

《조반상이 다 식는데 이만할가요?》

옥설이 말을 툭 끊으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더 듣고싶었지만 옥설의 출근시간을 넘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럼 저녁에 마저 들려주요.》

《그러자요.》

우리는 수저를 들었다.

《해장해야지요.》

《중도록! 이면수거나 산천어가 있었다면 술맛 갑절 나겠는데.》

나는 옥설의 기분을 돌려세우려고 우정 우스개를 피웠다.

《림장이 앉으면서부터 종적을 감추었어요.》

아침식사가 끝나자 옥설이는 경찰복으로 정복을 하고 그 낡은 구구식보총을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는 노루가죽으로 칼집을 만든 사냥칼을 혁띠에 차는것이였다.

《누구도 방해할 사람 없으니 조용히 글을 쓰세요. 미안하지만 점심은 혼자 들어야겠어요. 전 내려올새가 없어요.》

《안심하오.》

《저녁에 다시 만나자요.》

옥설이 떠나가자 나는 옥설이 들려준 이야기를 원고지에 올리기 시작했다.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시적재료 그대로도 훌륭한 소설이 될듯싶어 다듬지 않고 그대로 적어버렸다.

석양을 받은 밀림은 따로운 자세, 따로운 기분, 따로운 미, 따로운 얼굴을 하고 내앞에 나타났다. 점심때만 해도 느릅나무거나 떡갈나무이파리에서 뛰놀던 뽕약벌이, 그밀으로 겨우 숨새는 오리오리 찢진 창살같은 해빛만을 맥없이 떨거주던 뽕약벌이, 활엽수들의 이파리들을 산물길처럼 하얗게 번져눕히고 돌아눕히고 하던 뽕약벌이 해가 서녘으로 기우는 지금은 찬연한 금판을 쓰고 그 부드러운 잔광으로 한낮에 지저주고 북아주던 그 이파리들을 어루쓸고있었다. 그래서 한낮에 하얀 물보라처럼 상록수 림대를 꺾지르고 출렁이던 활엽수군체가 지금은 연한 풀물이 들어 조용히 누워있었다.

동남쪽 뒤편에는 빨간 노을이 걸려있어 침엽수의 이파리들을 버려주고 서북쪽 끝까지엔 벌써 어둠이 군림하면서 림해의 림체감을 석연히 드러내주고있었다. 굵은 선과 짙은 색조로 빚어진 이 거대한 조각상은 대자연만이 회사할수 있는 산물이었다.

나는 마을로 발길을 돌렸다. 구경 지금 쓰고있는 소설이 어떻게 끝날것인가를 가늠할수 없어 배회하던 나는 지체할수가 없었다. 지금쯤 나의 주인공이 집에 당도했을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발길을 재우쳤다. 하지만 옥설이네 집 근처에 왔을 때 나는 한발작도 더 내디딜수가 없었다. 집안으로부터 바이올린소리가 은은히 흘러나오고있었던것이다. 《삼림의 노래》였다. 흥벽을 울리면서 수림속을 헤집는 아름다운 그 선율은 림해를 품에 안은 산사람들의 드넓은 흥금과 나무한그루, 풀 한포기를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림업로동자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있었다.

그 소리에 화답하는듯 동산 정수리에 걸린 마지막 석양이 불찌를 튀기며 불타고있었다.

나는 듣고만 있을수 없었다. 20년전에 봤고 그 후 더는 볼수 없었던 바이올린을 켜는 옥설의 그 자태를 보고싶었다. 내가 문앞에 이르렀을 때 환락과 기쁨으로 넘쳐흐르던 선물이 슬픔과 비애로 눈물을 떨구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비운에 젖은 그 애상곡은 장백의 원시림을 개척하고 지켜가다가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자취를 감춘 림산마을사람들을 한사람한사람 불러내면서 눈물로 얼룩져있었다. 그 소리는 어둠이 자리잡기 시작한 끝짜기의 송림속을 누비며 림해와 하직한 령혼들을 잠재우고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떼고 들어섰다. 활을 쥐고 오르내리던 옥설의 오른손이 푹 멎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복이 고여있었다.

《정서를 깨뜨려서...》

《아니예요.》

옥설이는 활을 쥔채 오른팔굽으로 눈물을 씻으

며 미안쩍게 웃어보였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때마침 오셨어요. 좀 지나면 전 울고말았을거예요.》

《지금 울고있으면서?》

《저녁 들가요?》

《천천히.》

내 기분도 바이올린 선율과 함께 울적해졌다.

《옥설이, 하던 얘기 마저 들려주지 않겠소?》

《소원이라면.》

《듣고싶소. 지금의 기분상태가 알맞춤하니까.》

《좋아요. 그날저녁 우리는 림해의 귀신이 되리라 굳게 언약했땀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의 힐난을 받으면서 제 났던 이불과 바이올린만을 메고 귀틀집 문턱을 넘어섰다는거야 믿어주시겠지요? 그래요. 전 첫날옷도 입어보지 못하고 시집온 여자예요...》

잔치날이자 옥설이가 그렇듯 간절히 바라던 고독하고 적막한 생활의 시작이었다.

잔치상을 받은 이튿날 아침 영철이는 부엌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는 칠새없이 담배만 태웠다. 담배 한대 다 타기도전에 누런 신문지에 엽초를 말아서서는 련이어 불을 붙여물곤했다.

《무슨 담배를 그렇게 피우세요?》

《이제 떠나면 땃새후에야 담배구경하겠는지...》

《어데 가시나요?》

《산을 돌아봐야 하오.》

《꼭 오늘 떠나셔야 하나요?》

《봄이여서 더 지체할수 없소. 봄가를 삼림지기는 신끈 풀새 없다는 말 못들었소? 산불위험이 제일 큰 때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누령이를 두고 갈테니까 겁낼것 없소. 집을 잘 지킬거요.》

《누가 겁나서 그러는줄 아세요?》

《내가 책임을 졌는데 나부터 태만해서야 되오?》

《아무러면 삼일도 되기전에 떠나는 법 어데 있어요?》

옥설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야속한 남편이었다. 물인정한 남편이었다. 목석같은 남편이었다.

《영 가는것도 아닌데 눈물은?》

영철이는 담배꽁초를 아궁이에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서면서 그 터실터실한 손으로 쌀을 일다 말고 눈물짓는 옥설의 눈굽을 훔쳤다.

《목석! 당신은 목석이야!》

옥설이는 눈물을 단채 남편을 쳐다보며 해죽 웃었다.

《형님네랑 아침반으러 오겠는데 새각시가 눈물을 달고있어야 되오? 싸웠는가 알겠소. 빨리 눈물을 말리우오.》

《무뚝뚝이.》

옥설이는 웃고름으로 눈물을 말끔히 닦고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기 시작했다.

옥설이는 찹쌀을 섞어 지은 쌀밥으로 장죽임했던 메돼지고기를 잘게 썰어 꿩기밥을 만들었다.

《정 혼자 있기 적적하면 돌아올 때까지 리아바이네 집에 가있소.》

영철이는 탄띠대신 미대를 어깨에 가로 질러며 말했다.

《제 걱정은 말고 밖에 나가 몸조심하세요.》

옥설이 꿩기밥 꾸레미를 영철의 허리에 처매주며 속삭였다.

《나라고 뭐 떠나고싶어서 떠나는줄 알아?》

《알고있어요.》

《옷설을 감아쥐고 동동 매달리며 울줄 알았는데 팬찮아, 합격이야!》

《부담거리로 여겼나요?》

《야생적인것, 그것이 산사람으로 되는 첫째 조건이거던.》

《나약한 너자로 봤지요?》

《너무나 고우니까 그렇게 볼수밖에!》

《무뚝뚝이!》

옥설이는 동동 달리다싶이하면서 구척같은 남편의 목을 와락 끌어안고 구레나룻이 더부룩한 남편의 뒀볼을 감빨기 시작했다. 영철이는 뼈가 부서지도록 옥설의 허리를 짹 껴안았다가 풀어놓았다.

《누렁이야, 집을 잘 지켜!》

영철이는 곁에 와 몸을 비탈며 꼬리를 젖는 황동개의 목덜미를 툭툭 쳐주며 벌쭉 웃었다.

《데리구 떠나세요.》

《십년 산발을 탄 사람이라니까. 근심말어.》

영철이는 노루가죽집을 한 사냥칼을 허리에 지르더니 구구식보총을 메고 문을 나섰다.

옥설이는 철부지를 밖에 내놓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에까지 따라나와 숲속으로 사라지는 남편에게 손짓했다.

옥설이는 호젓했다. 금시에 귀중한 그 무엇을 떼운것처럼 허전하고 구슬퍼지면서 어쩐지 생리별같은 못된 생각만 잡혀들었다.

《나두 이때까지 기다리며 늙어왔네.》

어느새엔가 웃집 할머니가 옥설의 옆에 와서 영철이 사라진 숲속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 할머니...》

《언제 한번 시름놓을새 있었겠나? 근심속에 살아왔지.》

할머니가 헤벌러진 옥설의 옷설을 여며주며 꼬리를 달았다.

《지금은 그래도 자네들이 있으니 말동무도 있구 의지할데가 있네. 남편이 해방전쟁을 끝내구 여기 삼림지기로 배치를 받았을 때는 우리 부부간뿐이었네. 더구나 남편이 순시를 떠나고 보면 난 대엿새씩 심산속 귀틀막에 홀로 있어야 했네.

속은 얼마나 태우구 눈물은 얼마나 흘렸대구.》

《이젠 퇴직까지 하셨는데 왜 시내로 내려가시지 않나요?》

《시내? 자네 아직 우리 령감을 몰라서 하는 소리네. 뼈를 물어도 여기다 묻겠다는 령감이네. 나무를 떠나서는 한시도 못산다나? 저 영철이도 꼭 우리 령감을 닮았다니까. 며칠 함께 있으면서 새색시의 마음이나 안정시키구 떠나라 그렇게 말렸는데두 훌쩍 떠나버리니 찌찌 책대루 하는 너석이야. 산귀신이지 산귀신!》

도거리어머니로 불리우는 웃집할머니는 나무람인지 자랑인지 대중잡기 어렵게 산귀신이라는 석자를 곱씹으며 옥설의 팔을 잡았다.

《꼭 돌아오니 근심 말게.》

《호-밖에서 밤을 어떻게 보내나요?》

《산사람 가죽 오동지선탄에도 얼지 않는다는 소릴 자네 못들었나?》

《그래두...》

옥설이는 치마자락에 감겨드는 누렁이를 내려다보며 근심에 꼭 잠겨 말했다.

《어서 들어오지 않구 거기서 뒹들 하구있나?》

집앞에서 령감이 강가에 서있는 녀인들보고 소리쳤다.

《예-들어가우다.》

로친이 대답하며 옥설의 팔을 당겼다.

《령감이 또 야단치겠수. 어서 들어가기우.》

옥설이는 웃집할머니가 끄는대로 내가를 떠났다. 누렁이가 꼬리를 치며 뒤를 따랐다.

《떠나는 사람 그렇게 바라는데 아니여!》

령감이 인정사정 없이 두 녀인을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떠나는 사람 뒹등에 눈물을 달고 오금을 저려서 발 축을 내겠나? 산사람에겐 눈물이 제일 상스럽지 못한 법인데 그쯤이야 알아야지?》

《누가 눈물을 보였대구 야단이시우?》

로친이 눈을 흘기며 령감을 나무랐다.

《그 사람 돌아올 때까지 자네 우리 집에 와있게.》

령감이 옥설의 얼굴에 눈물자국이라도 있잖나 하여 살펴보다가 다래끼를 들고 복골을 따라 난 진동나무속 오솔길에 들어서는데였다.

《섭섭해말게. 안귀이 따로 없는 령감이네. 산사람이 길떠날 때 녀자들이 눈물을 보이면 불길한 징조라고 생질색이네.》

옥설이는 웃집할머니가 자기 집으로 끄는것도 마다하고 제집문을 떼고 들어섰다. 집안이 웅텡그렷했다. 남편이 집안의 화기를 몽땅 안고갔던 것이다.

낮에는 그래도 일감을 찾아 소일할수 있었으나 저녁어스름이 찾아들자 옥설이는 못견디게 쓸쓸해났다.

(다음호에 계속)

사형수 1번

리상건

병거지 사들고
돈방석 싸들고
김영삼 틀고앉은 《청와대》는
세종로 1번지라

그 누가 달았던지
너의 문패를
신통히도 알맞구나
세종로 1번지라

병거지를 벗거라
면사포를 헤치거라
알몸으로 몇푼인데
세종로 1번지라

어물전은 아니런데
까마귀떼 까웁까웁
장송곡 반주런듯
해종일 까웁까웁

역도야 나서라
네놈은 벼랑끝에 내몰린
타도의 표적!
던져진 고기덩이!

꿈속에 들어서는
한밤에도 만리성 쌓으련만
네놈은 쇠고랑에 채워진
사형수 1번이다

협잡으로도 으뜸이고
악행으로도 첫째이니
마땅하지 않는가
사형수로도 제1번

역도야
너는 면사포로 가리워진 독재광
군부독재의 이불속에서 태줄을 달고나온
《문민》파시스트

검은 돈 집어삼켜
연회동에서 굶아터진
썩은 탁류의 악취 풍기는
황금광이며 도적왕초!

썩은 고기점인들 너처럼 역하라
쓰레기속 녀마런들 너처럼 더러우라
까마귀도 맞다들면 너를 에돌리
굶주린 샅샅개도 네앞에선 돌파서리

너는 꼬리 회여진 구미여우
허나 네 아무리 둔갑술을 쓴다 한들
흉악스런 꼬리만은 감출수 없거니
너야말로 만악의 대명사

지난 세월 너로 하여 당한 수치만도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받을길 없거니
5000년이 분노하고
온 남녘이 치를 편다

네놈이 집어삼킨 검은 돈뭉치는
인민들의 피와 땀이며 눈물
네놈이 황금소나기를 맞고있을 때
인민들이 당한 고통 얼마였더냐

도적소굴 《청와대》가 생겨나 수십년
네놈처럼 지독스런 도적왕초 없었거니
너를 물어버릴
한치 땅마저 아깝노라

바야흐로 태풍을 안고
폭풍전야로 치닫는 남녘땅은
징벌의 우뢰터쳐 너를 날려보내리라
형체도 없이 뼈가루도 남김없이...

홀딱 벗고 나서라
사형수로 제1번
교수대로도 제1번
마땅도 하지 응당도 하지